

2015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고등교육·취업통계편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시시각각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에게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점차 필수 불가결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최근 데이터 및 증거 기반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 파악에서 나아가 정보들 간의 관계와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은 교육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통계·정보의 풍부한 수집과 다양한 분석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과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정책 입안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정확한 통계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육통계 조사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유·초·중등교육통계편’, ‘고등교육·취업통계편’, ‘평생교육통계편’으로 나누어 발간하여 각각의 교육단계 또는 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자 하였다.

교육통계 분석자료집(고등교육·취업통계편)은 고등교육기관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으로 나누어 각 장을 구성하였고, 각 장은 학교, 학생, 교원, 학습 환경 및 여건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단순히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통계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술하여 우리나라의 교육현황 및 여건에 대해 조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자료집이 우리나라 교육 현황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넓히고, 과학적 교육정책의 기획 및 수립에 이바지하며, 학술연구 활동 등 교육발전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집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적극 지원해 주신 교육부 관계관 여러분과 본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5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직무대행 윤 중 혁

일러두기

| 분석자료집 개요

- 교육통계 분석자료집(고등교육·취업통계편)은 고등교육기관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으로 나누어 각 장을 구성하였고, 각 장은 학교, 학생, 교원, 학습 환경 및 여건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함. 각 장은 여러 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자료에 근거한 현황 기술 및 분석, 그래프, 통계표의 순으로 제시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해가 용이하도록 구성함.

| 일러두기

- I장의 전문대학은 전문대학과정에서 전문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 전문대학과정에 있는 학교의 정보는 개황에서 제시함.
- II장의 대학은 대학과정에서 4년제 일반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 대학과정에 있는 학교의 정보는 개황에서 제시함.
- 시계열 자료는 198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일부 확보가 어려운 자료의 경우에는 제시가 가능한 연도부터 수록함.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및 교육통계연보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그 외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 장표 하단에 출처를 표기함.
- 휴학, 중도탈락, 편입 등 학생 변동 상황과 관련된 자료들의 기준일은 조사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임.
- 고등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별 구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제시함.
- 학생 수나 전임교원 수와 같은 기본현황은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등의 7대 계열 구분을 따르나, 법률로 정한 교원법정정원을 통해 산출되는 전임교원확보율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5대 계열 구분(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을 따름.
-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각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으로 축약하여 표기함.

목 차

개 황	1
대한민국 학제	2
2015년도 학교급별 규모.....	3
2015년도 시도별 개황.....	4
학교 수.....	4
학생 수.....	5
교원 수.....	6
직원 수.....	7
연도별 개황	8
학교 수.....	8
학생 수.....	9
교원 수.....	10
 I. 전문대학	11
1. 학교.....	12
2. 학생.....	14
3. 교원.....	31
4. 학습 환경 및 여건.....	38
 II. 대학	47
1. 학교.....	48
2. 학생.....	50
3. 교원.....	71
4. 학습 환경 및 여건.....	77
 III. 대학원	85
1. 학교.....	86
2. 학생.....	88
3. 교원.....	111
 관련조사 및 자료/참고문헌	119
관련조사 및 자료.....	120
참고문헌.....	122

표목차

- 013 표 | -1-1 연도별 설립별 학교 수(1980~2015)
- 013 표 | -1-2 지역별 규모별 설립별 학교 수(2015)
- 015 표 | -2-1 연도별 설립별 성별 학생 수(1980~2015)
- 015 표 | -2-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학생 수(2015)
- 017 표 | -2-3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수(2006~2015)
- 017 표 | -2-4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 수(2015)
- 017 표 | -2-5 학생유형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 수(2015)
- 019 표 | -2-6 연도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 수 및 휴학률(1980~2014, 학년도 기준)
- 019 표 | -2-7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 수 및 휴학률(2014, 학년도 기준)
- 021 표 | -2-8 연도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 수 및 중도탈락률(1980~2014, 학년도 기준)
- 021 표 | -2-9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 수 및 중도탈락률(2014, 학년도 기준)
- 023 표 | -2-10 연도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 수 및 편입률(1980~2014, 학년도 기준)
- 023 표 | -2-11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 수 및 편입률(2014, 학년도 기준)
- 025 표 | -2-12 연도별 설립별 성별 졸업자 수(1985~2015)
- 025 표 | -2-13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졸업자 수(2015)
- 029 표 | -2-14 연도별 설립별 성별 진학률(2011~2014)
- 029 표 | -2-15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진학률(2014)
- 030 표 | -2-16 연도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1~2014)
- 030 표 | -2-17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4)
- 031 표 | -2-18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4)
- 034 표 | -3-1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교원 수(1990~2015)
- 035 표 | -3-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전임교원 수(2015)
- 035 표 | -3-3 연도별 설립별 외국인 교원 수(2005~2015)
- 037 표 | -3-4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1980~2015)
- 037 표 | -3-5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15)
- 039 표 | -4-1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5)
- 039 표 | -4-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15)

- 041 표 I-4-3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00~2015)
- 041 표 I-4-4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15)
- 043 표 I-4-5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00~2015)
- 043 표 I-4-6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15)
- 045 표 I-4-7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 및 교사면적(2000~2015)
- 045 표 I-4-8 지역별 설립별 학생 1인당 도서관 현황(2015)
-
- 049 표 II-1-1 연도별 설립별 학교 수(1980~2015)
- 049 표 II-1-2 지역별 규모별 설립별 학교 수(2015)
- 052 표 II-2-1 연도별 설립별 성별 학생 수(1980~2015)
- 052 표 II-2-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학생 수(2015)
- 054 표 II-2-3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수(2006~2015)
- 054 표 II-2-4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 수(2015)
- 054 표 II-2-5 학생유형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 수(2015)
- 056 표 II-2-6 연도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 수 및 휴학률(1980~2014, 학년도 기준)
- 056 표 II-2-7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 수 및 휴학률(2014, 학년도 기준)
- 058 표 II-2-8 연도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 수 및 중도탈락률(1980~2014, 학년도 기준)
- 058 표 II-2-9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 수 및 중도탈락률(2014, 학년도 기준)
- 060 표 II-2-10 연도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 수 및 편입률(1980~2014, 학년도 기준)
- 060 표 II-2-11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 수 및 편입률(2014, 학년도 기준)
- 062 표 II-2-12 연도별 설립별 성별 졸업자 수(1980~2015)
- 062 표 II-2-13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졸업자 수(2015)
- 066 표 II-2-14 연도별 설립별 성별 진학률(2011~2014)
- 066 표 II-2-15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진학률(2014)
- 067 표 II-2-16 연도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1~2014)
- 067 표 II-2-17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4)
- 069 표 II-2-18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2005~2015)

표목차

- 069 표 II-2-19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2015)
- 069 표 II-2-20 지역별 출신국가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2015)
- 070 표 II-2-21 연도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현황(2007~2015)
- 070 표 II-2-22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연수생 수(2005~2015)
- 070 표 II-2-23 연도별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연수생 수(2005~2015)
- 073 표 II-3-1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교원 수(1990~2015)
- 074 표 II-3-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전임교원 수(2015)
- 074 표 II-3-3 연도별 설립별 외국인 교원 수(2005~2015)
- 076 표 II-3-4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1980~2015)
- 076 표 II-3-5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15)
- 078 표 II-4-1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5)
- 078 표 II-4-2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15)
- 080 표 II-4-3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06~2015)
- 080 표 II-4-4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15)
- 082 표 II-4-5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00~2015)
- 082 표 II-4-6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15)
- 084 표 II-4-7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 및 교사면적(2000~2015)
- 084 표 II-4-8 지역별 설립별 1인당 도서관 현황(2015)

- 087 표 III-1-1 연도별 설립별 유형별 대학원 수(1980~2015)
- 087 표 III-1-2 연도별 유형별 대학원 수(2000~2015)
- 090 표 III-2-1 연도별 과정별 성별 학생 수(1980~2015)
- 090 표 III-2-2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학생 수(2015)
- 091 표 III-2-3 유형별 과정별 성별 학생 수(2015)
- 093 표 III-2-4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입학생 수(2015)
- 093 표 III-2-5 유형별 과정별 성별 입학생 수(2015)
- 094 표 III-2-6 연도별 과정별 연령별 입학생 수(2006~2015)

- 094 표 Ⅲ-2-7 계열별 과정별 연령별 입학생 수(2015)
- 096 표 Ⅲ-2-8 연도별 과정별 성별 휴학생 수(2006~2014, 학년도 기준)
- 096 표 Ⅲ-2-9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휴학생 수(2014, 학년도 기준)
- 097 표 Ⅲ-2-10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휴학률(2014, 학년도 기준)
- 099 표 Ⅲ-2-11 연도별 과정별 성별 중도탈락 학생 수(1980~2014, 학년도 기준)
- 099 표 Ⅲ-2-12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중도탈락 학생 수(2014, 학년도 기준)
- 100 표 Ⅲ-2-13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중도탈락률(2014, 학년도 기준)
- 102 표 Ⅲ-2-14 연도별 과정별 성별 학위취득자 수(1980~2015)
- 102 표 Ⅲ-2-15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학위취득자 수(2015)
- 103 표 Ⅲ-2-16 계열별 과정별 평균 졸업소요기간(일반대학원, 2015)
- 106 표 Ⅲ-2-17 연도별 과정별 성별 취업률(일반대학원, 2011~2014)
- 106 표 Ⅲ-2-18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취업률(일반대학원, 2014)
- 109 표 Ⅲ-2-19 연도별 과정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2005~2015)
- 109 표 Ⅲ-2-20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2015)
- 109 표 Ⅲ-2-21 출신국가별 과정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2015)
- 110 표 Ⅲ-2-22 연도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현황(2007~2015)
- 110 표 Ⅲ-2-23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연수생 수(2012~2015)
- 110 표 Ⅲ-2-24 연도별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연수생 수(2012~2015)
- 113 표 Ⅲ-3-1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교원 수(2000~2015)
- 113 표 Ⅲ-3-2 연도별 설립별 외국인 교원 수(2005~2015)
- 114 표 Ⅲ-3-3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교원 수(2015)
- 116 표 Ⅲ-3-4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00~2015)
- 116 표 Ⅲ-3-5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15)
- 117 표 Ⅲ-3-6 연도별 성별 신규임용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 현황(2006~2015)
- 117 표 Ⅲ-3-7 지역별 계열별 성별 신규임용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 현황(2015)

그림목차

- 012 그림 | -1-1 연도별 설립별 학교 수(1980~2015)
- 014 그림 | -2-1 연도별 성별 학생 수(1980~2015)
- 014 그림 | -2-2 계열별 성별 학생 비율(2015)
- 016 그림 | -2-3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비율(2006~2015)
- 016 그림 | -2-4 지역별 계열별 입학생 수(2015)
- 018 그림 | -2-5 연도별 성별 휴학률(1980~2014, 학년도 기준)
- 018 그림 | -2-6 지역별 계열별 휴학률(2014, 학년도 기준)
- 020 그림 | -2-7 연도별 성별 중도탈락률(1980~2014, 학년도 기준)
- 020 그림 | -2-8 지역별 계열별 중도탈락률(2014, 학년도 기준)
- 022 그림 | -2-9 연도별 성별 편입률(1980~2014, 학년도 기준)
- 022 그림 | -2-10 지역별 계열별 편입률(2014, 학년도 기준)
- 024 그림 | -2-11 연도별 성별 졸업자 수(1985~2015)
- 024 그림 | -2-12 지역별 계열별 졸업자 수(2015)
- 026 그림 | -2-13 연도별 성별 진학률(2011~2014)
- 026 그림 | -2-14 지역별 계열별 진학률(2014)
- 028 그림 | -2-15 연도별 성별 취업률(2011~2014)
- 028 그림 | -2-16 계열별 성별 취업률(2014)
- 028 그림 | -2-17 수도권 계열별 성별 취업률(2014)
- 028 그림 | -2-18 비수도권 계열별 성별 취업률(2014)
- 028 그림 | -2-19 수도권 계열별 설립별 취업률(2014)
- 028 그림 | -2-20 비수도권 계열별 설립별 취업률(2014)
- 031 그림 | -3-1 연도별 성별 전임교원 수(1990~2015)
- 031 그림 | -3-2 연도별 전임 여교원 비율(1990~2015)
- 032 그림 | -3-3 연도별 성별 비전임교원 수(1990~2015)
- 032 그림 | -3-4 연도별 비전임 여교원 비율(1990~2015)
- 033 그림 | -3-5 연도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1990~2015)
- 033 그림 | -3-6 연도별 외국인 교원 수(2005~2015)

- 036 그림 I-3-7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1980~2015)
- 036 그림 I-3-8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15)
- 038 그림 I-4-1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5)
- 038 그림 I-4-2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율(2015)
- 040 그림 I-4-3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00~2015)
- 040 그림 I-4-4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15)
- 042 그림 I-4-5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00~2015)
- 042 그림 I-4-6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15)
- 044 그림 I-4-7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2000~2015)
- 044 그림 I-4-8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사면적(2000~2015)

- 048 그림 II-1-1 연도별 설립별 학교 수(1980~2015)
- 050 그림 II-2-1 연도별 성별 학생 수(1980~2015)
- 050 그림 II-2-2 연도별 성별 학생 비율(1980~2015)
- 051 그림 II-2-3 연도별 설립별 학생 수(1980~2015)
- 051 그림 II-2-4 계열별 성별 학생 비율(2015)
- 053 그림 II-2-5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비율(2006~2015)
- 053 그림 II-2-6 지역별 계열별 입학생 수(2015)
- 055 그림 II-2-7 연도별 성별 휴학률(1980~2014, 학년도 기준)
- 055 그림 II-2-8 지역별 계열별 휴학률(2014, 학년도 기준)
- 057 그림 II-2-9 연도별 성별 중도탈락률(1980~2014, 학년도 기준)
- 057 그림 II-2-10 지역별 계열별 중도탈락률 (2014, 학년도 기준)
- 059 그림 II-2-11 연도별 성별 편입률(1980~2014, 학년도 기준)
- 059 그림 II-2-12 지역별 계열별 편입률(2014, 학년도 기준)
- 061 그림 II-2-13 연도별 성별 졸업자 수(1980~2015)
- 061 그림 II-2-14 지역별 계열별 졸업자 수(2015)
- 063 그림 II-2-15 연도별 성별 진학률(2011~2014)

그림목차

- 063 그림 II-2-16 지역별 계열별 진학률(2014)
- 064 그림 II-2-17 연도별 성별 취업률(2011~2014)
- 065 그림 II-2-18 수도권 계열별 성별 취업률(2014)
- 065 그림 II-2-19 비수도권 계열별 성별 취업률(2014)
- 065 그림 II-2-20 수도권 계열별 설립별 취업률(2014)
- 065 그림 II-2-21 비수도권 계열별 설립별 취업률(2014)
- 068 그림 II-2-22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 수(2005~2015)
- 068 그림 II-2-23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2015)
- 071 그림 II-3-1 연도별 성별 전임교원 수(1990~2015)
- 071 그림 II-3-2 연도별 전임 여교원 비율(1990~2015)
- 072 그림 II-3-3 연도별 성별 비전임교원 수(1990~2015)
- 072 그림 II-3-4 연도별 비전임 여교원 비율(1990~2015)
- 072 그림 II-3-5 연도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1990~2015)
- 072 그림 II-3-6 연도별 외국인 교원 수(2005~2015)
- 075 그림 II-3-7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1980~2015)
- 075 그림 II-3-8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15)
- 077 그림 II-4-1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5)
- 077 그림 II-4-2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율(2015)
- 079 그림 II-4-3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06~2015)
- 079 그림 II-4-4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15)
- 081 그림 II-4-5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00~2015)
- 081 그림 II-4-6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15)
- 083 그림 II-4-7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2000~2015)
- 083 그림 II-4-8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사면적(2000~2015)

- 086 그림 III-1-1 연도별 설립별 대학원 수(1980~2015)
- 086 그림 III-1-2 연도별 유형별 대학원 수(2000~2015)

- 088 그림 Ⅲ-2-1 연도별 성별 학생 수(1980~2015)
- 089 그림 Ⅲ-2-2 연도별 성별 학생비율(석사과정, 1980~2015)
- 089 그림 Ⅲ-2-3 연도별 성별 학생비율(박사과정, 1980~2015)
- 089 그림 Ⅲ-2-4 계열별 성별 학생비율(석사과정, 2015)
- 089 그림 Ⅲ-2-5 계열별 성별 학생비율(박사과정, 2015)
- 092 그림 Ⅲ-2-6 계열별 성별 입학생 비율(석사과정, 2015)
- 092 그림 Ⅲ-2-7 계열별 성별 입학생 비율(박사과정, 2015)
- 095 그림 Ⅲ-2-8 과정별 성별 휴학률(2014, 학년도 기준)
- 095 그림 Ⅲ-2-9 계열별 성별 휴학률(2014, 학년도 기준)
- 098 그림 Ⅲ-2-10 연도별 과정별 중도탈락률(1980~2014, 학년도 기준)
- 098 그림 Ⅲ-2-11 계열별 과정별 중도탈락률(2014, 학년도 기준)
- 101 그림 Ⅲ-2-12 연도별 성별 석사학위 취득자 수(2000~2015)
- 101 그림 Ⅲ-2-13 연도별 성별 박사학위 취득자 수(2000~2015)
- 104 그림 Ⅲ-2-14 연도별 성별 석사 취업률(2012~2014)
- 104 그림 Ⅲ-2-15 지역별 계열별 석사 취업률(2014)
- 105 그림 Ⅲ-2-16 연도별 성별 박사 취업률(2012~2014)
- 105 그림 Ⅲ-2-17 지역별 계열별 박사 취업률(2014)
- 107 그림 Ⅲ-2-18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석사과정, 2005~2015)
- 107 그림 Ⅲ-2-19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박사과정, 2005~2015)
- 108 그림 Ⅲ-2-20 지역별 계열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석사과정, 2015)
- 108 그림 Ⅲ-2-21 지역별 계열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박사과정, 2015)
- 108 그림 Ⅲ-2-22 출신국가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연수생 현황(2015)
- 111 그림 Ⅲ-3-1 연도별 성별 전임교원 수(2000~2015)
- 111 그림 Ⅲ-3-2 연도별 성별 비전임교원 수(2000~2015)
- 111 그림 Ⅲ-3-3 연도별 전임 여교원 비율(2000~2015)
- 111 그림 Ⅲ-3-4 연도별 비전임 여교원 비율(2000~2015)
- 112 그림 Ⅲ-3-5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2000~2015)

그림목차

- 112 그림 Ⅲ-3-6 연도별 외국인 교원 수(2005~2015)
- 115 그림 Ⅲ-3-7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00~2015)
- 115 그림 Ⅲ-3-8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15)

개황

대한민국 학제

2015년도 학교급별 규모

2015년도 시도별 개황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직원 수

연도별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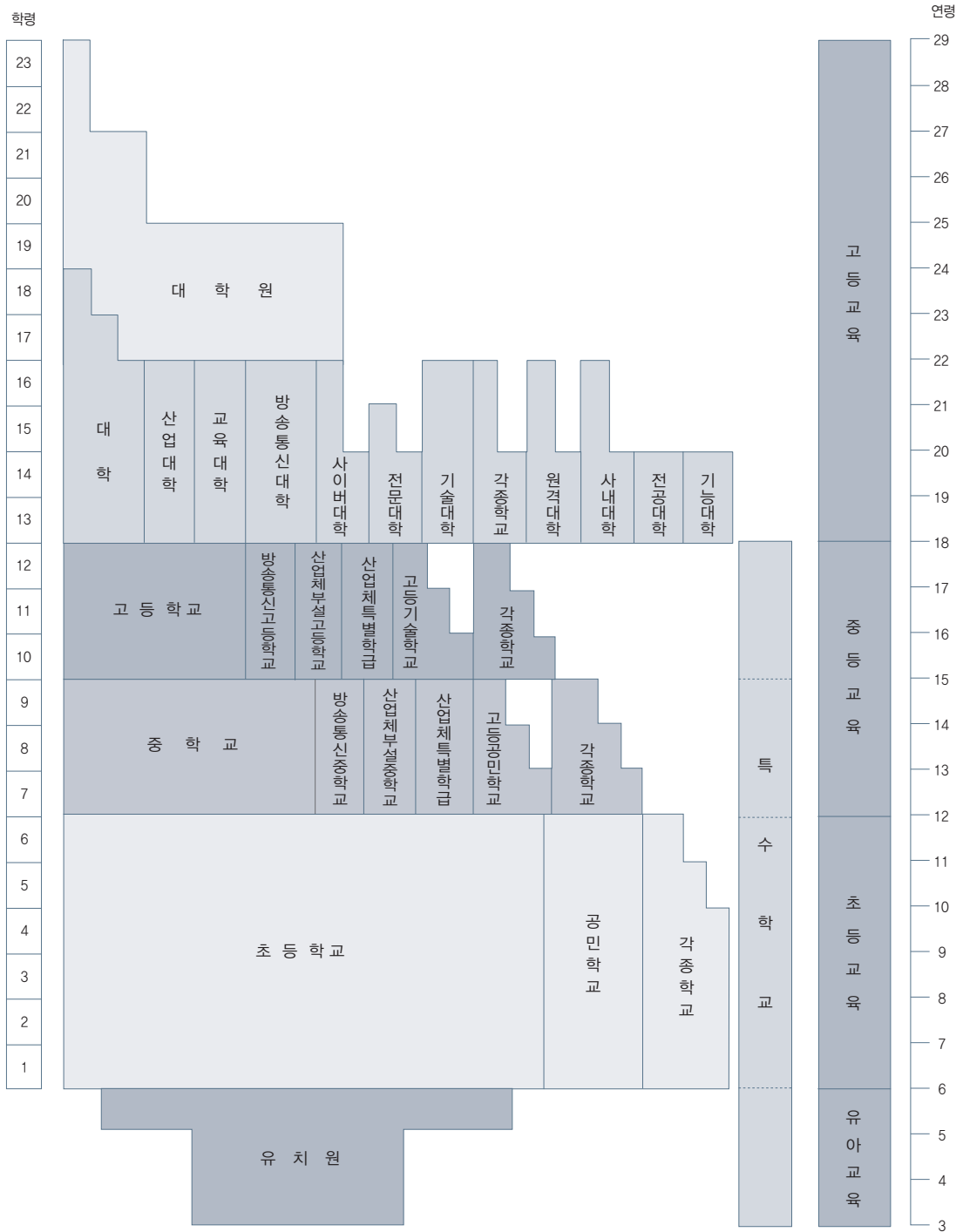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대한민국 학제



2015년도 학교급별 규모

(단위: 개, 명)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전체		433	50	8	375	3,608,071	831,182	28,383	2,748,506	90,215	19,362	636	70,217	
전문 대학 과정	소계	160	2	7	151	769,384	2,257	12,071	755,056	14,165	90	232	13,843	
	전문대학	138	2	7	129	720,466	2,257	12,071	706,138	12,991	90	232	12,669	
	기술대학	—	—	—	—	19	—	—	19	—	—	—	—	
	각종학교	—	—	—	—	9	—	—	9	—	—	—	—	
	원격대학	1	—	—	1	2,195	—	—	2,195	17	—	—	17	
	사이버대학	2	—	—	2	5,604	—	—	5,604	38	—	—	38	
	사내대학	5	—	—	5	474	—	—	474	4	—	—	4	
	기능대학	11	—	—	11	28,873	—	—	28,873	876	—	—	876	
	전공대학	3	—	—	3	11,763	—	—	11,763	239	—	—	239	
대학 과정	소계	226	46	1	179	2,505,209	720,581	13,331	1,771,297	67,499	16,430	354	50,715	
	일반대학	189	34	1	154	2,113,293	471,465	13,331	1,628,497	65,423	15,299	354	49,770	
	교육대학	10	10	—	—	15,967	15,967	—	—	849	849	—	—	
	산업대학	2	—	—	2	44,679	15,629	—	29,050	357	—	—	357	
	기술대학	1	—	—	1	103	—	—	103	—	—	—	—	
	방송통신대학	1	1	—	—	214,347	214,347	—	—	154	154	—	—	
	각종학교	2	1	—	1	3,489	3,173	—	316	145	128	—	17	
	원격대학	1	—	—	1	1,080	—	—	1,080	10	—	—	10	
	사이버대학	17	—	—	17	111,924	—	—	111,924	558	—	—	558	
	사내대학	3	—	—	3	308	—	—	308	3	—	—	3	
대학원 과정	소계	1,197	231	9	957	333,478	108,344	2,981	222,153	8,551	2,842	50	5,659	
	대학원 대학	소계	47	2	—	45	9,102	333	—	8,769	1,322	76	—	1,246
		일반대학원	1	1	—	—	289	289	—	—	55	55	—	—
		전문대학원	38	—	—	38	7,949	—	—	7,949	1,152	—	—	1,152
		특수대학원	8	1	—	7	864	44	—	820	115	21	—	94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1,150	229	9	912	324,376	108,011	2,981	213,384	7,229	2,766	50	4,413
		일반대학원	182	35	1	146	154,528	58,526	1,196	94,806	1,474	513	3	958
		전문대학원	163	54	3	106	37,780	15,682	334	21,764	4,884	2,225	40	2,619
특수대학원		805	140	5	660	132,068	33,803	1,451	96,814	871	28	7	836	

주: 1) 분교 수는 학교 수에서 제외됨.

2) 대학부설 대학원은 학교 수에서 제외됨.

3) 기술대학은 한 개의 대학에서 전문대학과정과 대학과정을 함께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수는 대학과정에 포함됨.

4) 교원 수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5) 기술대학에는 전임교원이 없음.

2015년도 시도별 개황

학교 수

(단위: 개)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문 대학 과정	전체	433	90	24	14	10	18	20	6	3
	소계	160	14	9	10	4	7	5	3	1
	전문대학	138	9	9	7	3	6	4	2	1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	—	—	—	—	—	—
	원격대학	1	—	—	—	—	—	—	—	—
	사이버대학	2	—	—	1	—	—	—	—	—
	사내대학	5	1	—	—	—	—	—	1	—
	기능대학	11	1	—	2	1	1	1	—	—
	전공대학	3	3	—	—	—	—	—	—	—
대학 과정	소계	226	53	15	4	4	11	13	2	1
	일반대학	189	38	12	3	3	10	11	2	1
	교육대학	10	1	1	1	1	1	—	—	—
	산업대학	2	—	—	—	—	—	—	—	—
	기술대학	1	1	—	—	—	—	—	—	—
	방송통신대학	1	1	—	—	—	—	—	—	—
	각종학교	2	1	—	—	—	—	—	—	—
	원격대학	1	—	—	—	—	—	—	—	—
	사이버대학	17	10	2	—	—	—	1	—	—
	사내대학	3	1	—	—	—	—	1	—	—
대학원 과정	소계	1,197	396	74	33	26	43	67	9	7
	대학원	47	23	—	—	2	—	2	1	1
	일반대학원	1	—	—	—	—	—	—	—	—
	전문대학원	38	17	—	—	2	—	2	1	1
	특수대학원	8	6	—	—	—	—	—	—	—
	대학	1,150	373	74	33	24	43	65	8	6
	일반대학원	182	41	13	3	4	9	12	2	2
	전문대학원	163	86	6	3	7	7	7	—	—
	특수대학원	805	246	55	27	13	27	46	6	4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문 대학 과정	전체	78	19	17	25	22	19	39	25	4
	소계	33	10	5	7	9	9	18	14	2
	전문대학	31	9	5	6	9	9	16	10	2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	—	—	—	—	—	—
	원격대학	1	—	—	—	—	—	—	—	—
	사이버대학	—	—	—	—	—	—	1	—	—
	사내대학	—	—	—	—	—	—	1	2	—
	기능대학	1	1	—	1	—	—	—	2	—
	전공대학	—	—	—	—	—	—	—	—	—
대학 과정	소계	31	9	12	16	12	10	20	11	2
	일반대학	29	8	10	13	9	10	18	10	2
	교육대학	—	1	1	1	1	—	—	1	—
	산업대학	—	—	—	1	1	—	—	—	—
	기술대학	—	—	—	—	—	—	—	—	—
	방송통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1	—	—	—	—	—	—
	원격대학	—	—	—	—	—	—	1	—	—
	사이버대학	1	—	—	1	1	—	1	—	—
	사내대학	1	—	—	—	—	—	—	—	—
대학원 과정	소계	178	42	44	61	56	25	78	46	12
	대학원	14	—	—	2	1	—	1	—	—
	일반대학원	1	—	—	—	—	—	—	—	—
	전문대학원	11	—	—	2	1	—	1	—	—
	특수대학원	2	—	—	—	—	—	—	—	—
	대학	164	42	44	59	55	25	77	46	12
	일반대학원	26	7	8	13	8	8	17	8	1
	전문대학원	14	5	4	4	6	—	7	4	3
	특수대학원	124	30	32	42	41	17	53	34	8

주: 3쪽 하단 주 1)~3) 참조.

학생 수

(단위: 명)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체		3,608,071	1,036,116	292,975	145,235	83,215	131,934	176,392	40,502	26,658
전문 대학 과정	소계	769,384	74,619	57,028	63,442	27,495	28,635	31,868	13,145	5,195
	전문대학	720,466	59,499	55,347	57,468	23,821	27,245	30,122	11,571	5,195
	기술대학	19	19	-	-	-	-	-	-	-
	각종학교	9	-	-	-	-	-	-	-	-
	원격대학	2,195	-	-	-	-	-	-	-	-
	사이버대학	5,604	-	-	3,690	-	-	-	-	-
	사내대학	474	52	-	-	-	-	-	123	-
	기능대학	28,873	3,305	1,681	2,284	3,674	1,390	1,746	1,451	-
	전공대학	11,763	11,763	-	-	-	-	-	-	-
대학 과정	소계	2,505,209	814,962	214,911	68,789	47,679	88,861	123,117	23,852	19,707
	일반대학	2,113,293	500,178	208,811	67,079	46,379	87,415	115,724	23,852	19,707
	교육대학	15,967	1,600	1,617	1,710	1,300	1,446	-	-	-
	산업대학	44,679	5,930	17	-	-	-	4,631	-	-
	기술대학	103	103	-	-	-	-	-	-	-
	방송통신대학	214,347	214,347	-	-	-	-	-	-	-
	각종학교	3,489	3,173	-	-	-	-	11	-	-
	원격대학	1,080	-	-	-	-	-	-	-	-
	사이버대학	111,924	89,499	4,466	-	-	-	2,647	-	-
	사내대학	308	113	-	-	-	-	104	-	-
	소계	333,478	146,535	21,036	13,004	8,041	14,438	21,407	3,505	1,756
대학원 과정	대학원	소계	9,102	4,098	-	-	351	-	1,281	106
	대학원	일반대학원	289	-	-	-	-	-	-	-
		전문대학원	7,949	3,313	-	-	351	-	1,281	106
		특수대학원	864	785	-	-	-	-	-	-
	대학	소계	324,376	142,437	21,036	13,004	7,690	14,438	20,126	3,399
	대학원	일반대학원	154,528	66,903	11,430	5,981	2,820	7,482	13,350	2,256
		전문대학원	37,780	21,967	1,198	1,230	2,938	2,104	1,197	-
		특수대학원	132,068	53,567	8,408	5,793	1,932	4,852	5,579	1,143
		소계	31,975	7,729	11,136	12,700	10,577	3,476	13,222	9,945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511,327	144,153	145,938	226,789	146,662	85,335	241,151	140,181	33,508
전문 대학 과정	소계	226,299	25,639	26,868	28,682	27,324	30,023	50,681	39,852	12,589
	전문대학	220,935	24,941	25,544	26,703	26,288	29,466	47,607	36,125	12,589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9	-	-	-	-	-	-	-	-
	원격대학	2,195	-	-	-	-	-	-	-	-
	사이버대학	-	-	-	-	-	-	1,914	-	-
	사내대학	-	-	-	-	-	40	55	204	-
	기능대학	3,160	698	1,324	1,979	1,036	517	1,105	3,523	-
	전공대학	-	-	-	-	-	-	-	-	-
대학 과정	소계	253,053	110,785	107,934	185,407	108,761	51,836	177,248	90,384	17,923
	일반대학	242,426	109,341	105,577	167,172	94,571	49,941	169,540	87,657	17,923
	교육대학	1,362	1,444	1,285	1,570	1,235	-	-	1,398	-
	산업대학	6,407	-	767	14,042	7,830	1,895	1,831	1,329	-
	기술대학	-	-	-	-	-	-	-	-	-
	방송통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305	-	-	-	-	-	-
	원격대학	-	-	-	-	-	-	1,080	-	-
	사이버대학	2,767	-	-	2,623	5,125	-	4,797	-	-
	사내대학	91	-	-	-	-	-	-	-	-
	소계	31,975	7,729	11,136	12,700	10,577	3,476	13,222	9,945	2,996
대학원 과정	대학원	소계	2,155	-	-	257	65	-	83	-
	대학원	일반대학원	289	-	-	-	-	-	-	-
		전문대학원	1,787	-	-	257	65	-	83	-
		특수대학원	79	-	-	-	-	-	-	-
	대학	소계	29,820	7,729	11,136	12,443	10,512	3,476	13,139	9,945
	대학원	일반대학원	10,588	3,818	4,961	4,953	5,211	1,909	7,112	3,919
		전문대학원	1,698	398	747	385	1,159	-	793	1,542
		특수대학원	17,534	3,513	5,428	7,105	4,142	1,567	5,234	4,484
		소계	17,534	3,513	5,428	7,105	4,142	1,567	5,234	4,484

교원 수

(단위: 명)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문 대학 과정	전체	90,215	23,530	7,257	3,375	2,138	3,785	5,447	1,613	604
	소계	14,165	1,446	920	1,089	489	532	567	250	110
	전문대학	12,991	1,106	877	981	395	489	516	212	110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	—	—	—	—	—	—
	원격대학	17	—	—	—	—	—	—	—	—
	사이버대학	38	—	—	27	—	—	—	—	—
	사내대학	4	1	—	—	—	—	—	1	—
	기능대학	876	100	43	81	94	43	51	37	—
대학 과정	전공대학	239	239	—	—	—	—	—	—	—
	소계	67,499	18,670	6,137	1,904	1,185	2,979	3,783	1,340	426
	일반대학	65,423	17,957	6,009	1,821	1,092	2,847	3,693	1,340	426
	교육대학	849	—	96	83	93	132	80	—	—
	산업대학	357	—	—	—	—	—	—	—	—
	기술대학	—	—	—	—	—	—	—	—	—
	방송통신대학	154	154	—	—	—	—	—	—	—
	각종학교	145	128	—	—	—	—	—	—	—
	원격대학	10	—	—	—	—	—	—	—	—
대학원 과정	사이버대학	558	430	32	—	—	—	9	—	—
	사내대학	3	1	—	—	—	—	1	—	—
	소계	8,551	3,414	200	382	464	274	1,097	23	68
	대학원	소계	1,322	294	—	23	—	716	17	35
		일반대학원	55	—	—	—	—	—	—	—
		전문대학원	1,152	211	—	23	—	716	17	35
	대학 부설 대학원	특수대학원	115	83	—	—	—	—	—	—
		소계	7,229	3,120	200	382	441	381	6	33
		일반대학원	1,474	857	41	62	12	149	123	31
		전문대학원	4,884	1,866	114	310	424	112	236	—
		특수대학원	871	397	45	10	5	13	22	6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문 대학 과정	전체	11,441	4,144	3,805	6,082	3,938	2,225	6,153	3,669	1,009
	소계	3,967	462	516	537	586	650	1,103	720	221
	전문대학	3,851	427	479	465	553	631	1,049	629	221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	—	—	—	—	—	—
	원격대학	17	—	—	—	—	—	—	—	—
	사이버대학	—	—	—	—	—	—	11	—	—
	사내대학	—	—	—	—	—	—	1	1	—
	기능대학	99	35	37	72	33	19	42	90	—
대학 과정	전공대학	—	—	—	—	—	—	—	—	—
	소계	6,563	3,507	3,117	5,395	3,012	1,566	4,890	2,418	607
	일반대학	6,545	3,507	3,022	5,130	2,722	1,507	4,852	2,418	535
	교육대학	—	—	78	71	85	59	—	—	72
	산업대학	—	—	—	178	179	—	—	—	—
	기술대학	—	—	—	—	—	—	—	—	—
	방송통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17	—	—	—	—	—	—
	원격대학	—	—	—	—	—	—	10	—	—
대학원 과정	사이버대학	17	—	—	16	26	—	28	—	—
	사내대학	1	—	—	—	—	—	—	—	—
	소계	911	175	172	150	340	9	160	531	181
	대학원	소계	203	—	16	10	—	8	—	—
		일반대학원	55	—	—	—	—	—	—	—
		전문대학원	116	—	16	10	—	8	—	—
	대학 부설 대학원	특수대학원	32	—	—	—	—	—	—	—
		소계	708	175	172	134	330	9	152	531
		일반대학원	80	1	1	52	19	5	38	1
		전문대학원	401	170	163	32	295	—	68	519
		특수대학원	227	4	8	50	16	4	46	11

주: 1) 교원 수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2) 기술대학에는 전임교원이 없음.

직원 수

(단위: 명)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체			35,346	9,565	2,804	1,303	851	1,515	1,865	456	242
전문 대학 과정	소계		5,740	533	364	385	178	209	196	101	49
	전문대학		5,310	419	355	353	162	196	183	92	49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	—	—	—	—	—	—
	원격대학		23	—	—	—	—	—	—	—	—
	사이버대학		44	—	—	11	—	—	—	—	—
	사내대학		2	2	—	—	—	—	—	—	—
	기능대학		278	29	9	21	16	13	13	9	—
전공대학		83	83	—	—	—	—	—	—	—	—
대학 과정	소계		28,573	8,677	2,407	912	630	1,159	1,561	325	134
	일반대학		26,651	7,557	2,312	857	534	1,104	1,551	325	134
	교육대학		619	81	65	55	96	55	—	—	—
	산업대학		123	—	—	—	—	—	—	—	—
	기술대학		—	—	—	—	—	—	—	—	—
	방송통신대학		515	515	—	—	—	—	—	—	—
	각종학교		131	126	—	—	—	—	—	—	—
	원격대학		2	—	—	—	—	—	—	—	—
대학원 과정	소계		1,033	355	33	6	43	147	108	30	59
	대학원 대학	소계	459	185	—	—	13	—	50	28	59
		일반대학원	6	—	—	—	—	—	—	—	—
		전문대학원	413	154	—	—	13	—	50	28	59
		특수대학원	40	31	—	—	—	—	—	—	—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574	170	33	6	30	147	58	2	—
		일반대학원	292	38	13	5	5	127	55	—	—
		전문대학원	146	85	7	—	23	16	—	—	—
특수대학원		136	47	13	1	2	4	3	2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4,393	1,528	1,571	2,142	1,530	1,076	2,609	1,484	412
전문 대학 과정	소계		1,524	268	234	280	274	258	531	289	67
	전문대학		1,464	239	224	251	256	251	482	267	67
	기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	—	—	—	—	—	—
	원격대학		23	—	—	—	—	—	—	—	—
	사이버대학		—	—	—	—	—	—	33	—	—
	사내대학		—	—	—	—	—	—	—	—	—
	기능대학		37	29	10	29	18	7	16	22	—
전공대학		—	—	—	—	—	—	—	—	—	
대학 과정	소계		2,711	1,260	1,323	1,822	1,250	817	2,052	1,188	345
	일반대학		2,700	1,207	1,260	1,660	1,132	817	2,023	1,133	345
	교육대학		—	53	58	59	42	—	—	55	—
	산업대학		—	—	—	69	54	—	—	—	—
	기술대학		—	—	—	—	—	—	—	—	—
	방송통신대학		—	—	—	—	—	—	—	—	—
	각종학교		—	—	5	—	—	—	—	—	—
	원격대학		—	—	—	—	—	—	2	—	—
대학원 과정	소계		158	—	14	40	6	1	26	7	—
	대학원 대학	소계	101	—	—	20	1	—	2	—	—
		일반대학원	6	—	—	—	—	—	—	—	—
		전문대학원	86	—	—	20	1	—	2	—	—
		특수대학원	9	—	—	—	—	—	—	—	—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57	—	14	20	5	1	24	7	—
		일반대학원	18	—	3	4	1	1	18	4	—
		전문대학원	8	—	4	—	—	—	3	—	—
특수대학원		31	—	7	16	4	—	3	3	—	

주: 기술대학에는 전담 직원이 없음.

연도별 개황

학교 수

(단위: 개)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전체		237	262	265	327	372	419	412	408
전문 대학 과정	소계	128	120	117	149	159	161	155	152
	전문대학	128	120	117	145	158	158	152	148
	기술대학	-	-	-	-	-	-	-	-
	각종학교	-	-	-	4	1	1	1	1
	원격대학	-	-	-	-	-	2	2	2
	사이버대학	-	-	-	-	-	-	-	-
	사내대학	-	-	-	-	-	-	-	1
	기능대학	-	-	-	-	-	-	-	-
	전공대학	-	-	-	-	-	-	-	-
대학 과정	소계	109	142	148	178	196	224	221	220
	일반대학	85	100	107	131	161	173	175	175
	교육대학	11	11	11	11	11	11	11	11
	산업대학	-	6	6	17	19	18	14	14
	기술대학	-	-	-	-	1	1	1	1
	방송통신대학	1	1	1	1	1	1	1	1
	각종학교	12	24	23	18	3	4	3	2
	원격대학	-	-	-	-	-	15	15	15
	사이버대학	-	-	-	-	-	-	-	-
	사내대학	-	-	-	-	-	1	1	1
대학원 과정	소계	121	201	298	421	829	1,051	1,051	1,042
	대학원 대학	소계	-	-	-	17	34	36	36
		일반대학원	-	-	-	-	-	-	-
		전문대학원	-	-	-	10	32	32	31
		특수대학원	-	-	-	7	2	4	5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121	201	298	812	1,017	1,015	1,006
		일반대학원	58	75	97	129	145	149	154
		전문대학원	-	126	201	315	44	98	106
		특수대학원	63	-	-	639	774	760	73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405	407	411	434	432	433	433	433
대학 과정	소계	151	150	149	167	163	163	163	160
	전문대학	147	146	145	147	142	140	139	138
	기술대학	-	-	-	-	-	-	-	-
	각종학교	1	1	1	1	1	1	1	-
	원격대학	2	2	1	1	1	1	1	1
	사이버대학	-	-	1	2	2	2	2	2
	사내대학	1	1	1	1	2	4	5	5
	기능대학	-	-	-	12	12	3	12	11
	전공대학	-	-	-	3	3	12	3	3
대학 과정	소계	217	219	222	226	226	227	226	226
	일반대학	174	177	179	183	189	188	189	189
	교육대학	10	10	10	10	10	10	10	10
	산업대학	13	12	11	9	2	2	2	2
	기술대학	1	1	1	1	1	1	1	1
	방송통신대학	1	1	1	1	1	1	1	1
	각종학교	2	1	2	4	4	4	2	2
	원격대학	15	4	2	1	1	1	1	1
	사이버대학	-	12	15	16	17	17	17	17
	사내대학	1	1	1	1	1	3	3	3
대학원 과정	소계	1,055	1,115	1,138	1,167	1,177	1,200	1,209	1,197
	대학원 대학	소계	37	38	40	41	43	44	47
		일반대학원	1	1	1	1	1	1	1
		전문대학원	31	32	34	35	37	37	38
		특수대학원	5	5	5	5	5	6	8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1,018	1,077	1,098	1,126	1,134	1,157	1,150
		일반대학원	157	162	166	177	181	183	182
		전문대학원	119	161	165	171	173	177	178
		특수대학원	742	754	767	778	780	797	806

주: 1) 3쪽 하단 주 1)~3) 참조.

2) 개방대학이 산업대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1985~1995년 산업대학에 개방대학 학교수를 계수함.

3) 전체 합계를 산정할 때, 대학원 과정은 대학원 대학 소계만을 포함함.

학생 수

(단위: 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전체		647,505	1,451,297	1,691,429	2,342,786	3,363,549	3,548,728	3,545,774	3,558,711
전문 대학 과정	소계	165,051	242,117	323,825	574,239	914,347	856,564	821,698	800,423
	전문대학	165,051	242,117	323,825	569,820	913,273	853,089	817,994	795,519
	기술대학	-	-	-	-	-	87	65	43
	각종학교	-	-	-	4,419	1,074	54	39	53
	원격대학	-	-	-	-	-	3,304	3,600	4,769
	사이버대학	-	-	-	-	-	-	-	-
	사내대학	-	-	-	-	-	30	-	39
	기능대학	-	-	-	-	-	-	-	-
	전공대학	-	-	-	-	-	-	-	-
대학 과정	소계	448,515	1,141,002	1,280,693	1,655,819	2,219,765	2,409,939	2,434,047	2,461,712
	일반대학	402,979	931,884	1,040,166	1,187,735	1,665,398	1,859,639	1,888,436	1,919,504
	교육대학	9,425	18,174	15,960	19,650	20,907	25,141	25,881	25,834
	산업대학	-	20,254	51,970	120,670	170,622	188,753	180,435	169,862
	기술대학	-	-	-	-	100	102	130	139
	방송통신대학	32,053	153,215	148,650	314,977	360,051	282,023	273,417	272,763
	각종학교	4,058	17,475	23,947	12,787	2,687	1,094	1,027	1,061
	원격대학	-	-	-	-	-	53,156	64,658	72,454
	사이버대학	-	-	-	-	-	-	-	-
	사내대학	-	-	-	-	-	31	63	95
	소계	33,939	68,178	86,911	112,728	229,437	282,225	290,029	296,576
대학원 과정	대학원 대학	소계	-	-	-	2,164	3,601	4,832	5,361
		일반대학원	-	-	-	-	-	-	-
		전문대학원	-	-	-	1,305	3,467	4,501	4,844
		특수대학원	-	-	-	859	134	331	517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33,939	68,178	86,911	227,273	278,624	285,197	291,215
		일반대학원	21,551	40,377	51,054	65,756	111,542	123,835	126,584
		전문대학원	-	27,801	35,857	46,972	4,504	12,361	13,938
		특수대학원	12,388	-	-	-	111,227	145,662	146,758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3,562,844	3,591,088	3,644,158	3,735,706	3,728,802	3,709,734	3,668,747	3,608,071
전문 대학 과정	소계	776,782	766,033	772,509	818,661	814,644	805,011	789,045	769,384
	전문대학	771,854	760,929	767,087	776,738	769,888	757,721	740,801	720,466
	기술대학	39	38	34	41	44	42	41	19
	각종학교	65	65	55	44	34	36	25	9
	원격대학	4,755	4,931	2,855	2,671	2,515	2,262	2,064	2,195
	사이버대학	-	-	2,399	3,577	4,784	5,250	5,602	5,604
	사내대학	69	70	79	83	129	251	400	474
	기능대학	-	-	-	25,817	26,505	11,581	28,528	28,873
	전공대학	-	-	-	9,690	10,745	27,868	11,584	11,763
대학 과정	소계	2,484,650	2,518,584	2,555,016	2,587,112	2,584,614	2,574,901	2,548,830	2,505,209
	일반대학	1,943,437	1,984,043	2,028,841	2,065,451	2,103,958	2,120,296	2,130,046	2,113,293
	교육대학	24,116	22,879	21,618	20,241	18,789	17,500	16,566	15,967
	산업대학	161,876	143,368	133,736	122,916	95,533	76,377	60,082	44,679
	기술대학	132	130	121	135	143	128	121	103
	방송통신대학	272,550	277,372	272,452	268,561	254,652	245,257	227,618	214,347
	각종학교	1,214	1,127	1,213	4,829	4,333	4,448	3,539	3,489
	원격대학	81,229	19,826	3,646	969	1,032	1,011	1,099	1,080
	사이버대학	-	69,743	93,297	103,917	106,080	109,673	109,466	111,924
	사내대학	96	96	92	93	94	211	293	308
	소계	301,412	306,471	316,633	329,933	329,544	329,822	330,872	333,478
대학원 과정	대학원 대학	소계	6,009	6,637	7,074	7,877	8,120	8,746	9,102
		일반대학원	205	210	223	256	267	261	289
		전문대학원	5,226	5,699	6,076	6,786	7,038	7,692	7,949
		특수대학원	578	728	775	835	815	793	864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295,403	299,834	309,559	322,056	321,424	321,076	324,376
		일반대학원	129,464	131,807	137,309	146,782	147,310	148,978	151,721
		전문대학원	20,541	24,467	28,285	32,119	33,701	36,856	37,649
		특수대학원	145,398	143,560	143,965	143,155	140,413	135,242	132,068

주: 1) 전문대학의 1980년 학생수에는 초급대학 및 전문학교 값이 포함되어 있고, 1985년 학생수에는 전문학교 값이 포함되어 있음.
 2) 개방대학이 산업대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1985~1995년 산업대학에 개방대학 학생수를 계수함.
 3) 1995년 전체 학생수는 개방대학 과정(1,108명)을 제외하고 합산함.

교원 수

(단위: 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전체		20,900	33,895	42,911	58,977	57,632	66,862	69,201	70,957
전문 대학 과정	소계	5,488	6,406	7,382	10,502	11,713	12,053	11,879	11,713
	전문대학	5,488	6,406	7,382	10,384	11,707	12,027	11,857	11,685
	기술대학	-	-	-	-	-	-	-	-
	각종학교	-	-	-	118	6	5	4	4
	원격대학	-	-	-	-	-	21	18	21
	사이버대학	-	-	-	-	-	-	-	-
	사내대학	-	-	-	-	-	-	-	3
	기능대학	-	-	-	-	-	-	-	-
	전공대학	-	-	-	-	-	-	-	-
대학 과정	소계	15,174	27,077	35,529	48,475	45,190	53,136	55,332	56,349
	일반대학	14,458	26,047	33,340	45,087	41,943	49,200	51,859	52,763
	교육대학	564	623	694	766	698	798	857	855
	산업대학	-	-	855	2,106	2,390	2,658	2,117	2,190
	기술대학	-	-	-	-	-	-	-	-
	방송통신대학	-	-	136	166	113	131	134	136
	각종학교	152	407	504	350	46	28	18	18
	원격대학	-	-	-	-	-	321	347	386
	사이버대학	-	-	-	-	-	-	-	-
대학원 과정	소계	238	412	-	-	729	1,673	1,990	2,895
	대학원 대학	소계	-	-	-	194	379	403	479
		일반대학원	-	-	-	-	-	-	-
		전문대학원	-	-	-	123	365	376	438
		특수대학원	-	-	-	71	14	27	41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	-	-	535	1,294	1,587	2,416
		일반대학원	-	-	-	-	-	92	271
		전문대학원	-	-	-	319	998	1,170	1,787
		특수대학원	-	-	-	216	296	325	358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73,072	75,469	77,697	82,190	84,910	86,656	88,163	90,215
전문 대학 과정	소계	12,134	12,487	12,573	14,028	14,215	14,143	14,090	14,165
	전문대학	12,100	12,451	12,530	12,891	13,078	13,015	12,920	12,991
	기술대학	-	-	-	-	-	-	-	-
	각종학교	4	3	7	7	7	7	11	-
	원격대학	23	25	12	15	16	16	15	17
	사이버대학	-	-	16	30	32	37	38	38
	사내대학	7	8	8	1	2	3	4	4
	기능대학	-	-	-	894	881	213	876	876
	전공대학	-	-	-	190	199	852	226	239
대학 과정	소계	57,841	57,977	59,381	61,646	63,996	65,077	66,396	67,499
	일반대학	54,331	54,518	55,972	58,104	61,993	63,042	64,378	65,423
	교육대학	812	805	813	820	842	835	834	849
	산업대학	2,137	2,073	1,942	1,869	286	316	335	357
	기술대학	-	-	-	-	-	-	-	-
	방송통신대학	137	140	139	148	149	145	150	154
	각종학교	19	7	23	180	184	171	141	145
	원격대학	404	104	30	9	8	10	10	10
	사이버대학	-	324	453	506	524	542	546	558
대학원 과정	소계	3,097	5,005	5,743	6,516	6,699	7,436	7,677	8,551
	대학원 대학	소계	561	604	619	636	650	665	1,322
		일반대학원	54	52	57	56	57	60	55
		전문대학원	455	502	498	516	528	539	1,152
		특수대학원	52	50	64	65	66	76	115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2,536	4,401	5,124	5,880	6,049	6,771	7,229
		일반대학원	265	314	560	819	826	1,002	1,474
		전문대학원	1,877	3,649	4,009	4,222	4,394	5,006	4,884
		특수대학원	394	438	555	839	829	763	871

주: 1) 교원 수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되었으며, 2013년부터 전임강사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후 전임강사를 제외하고 교수함.
 2) 1980년, 1985년 대학원 과정은 대학원 대학, 대학부설 대학원으로 구분되지 않고 전체 값만을 계수함.
 3) 개방대학이 산업대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1985~1995년 산업대학에 개방대학 교원수를 계수함.
 4) 기술대학에는 전임교원이 없음.

I. 전문대학

1. 학교
2. 학생
3. 교원
4. 학습 환경 및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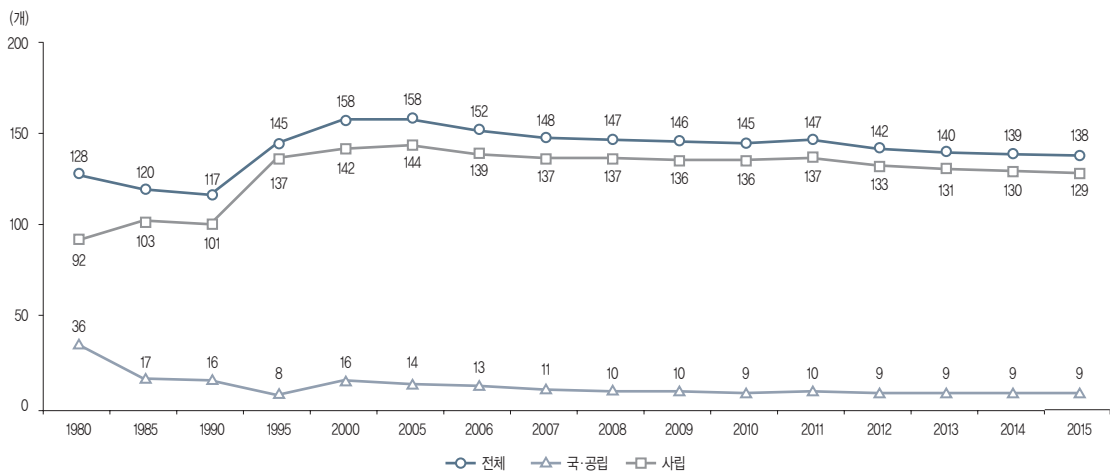
이 장에서의 '전문대학'은 전문대학과정에 있는 전문대학만을 대상으로하고, 그 외 전문대학과정에 있는 학교의 정보는 개황에서 제시하고 있음.

1 학교

[그림 I-1-1]을 통해 전문대학 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 당시 128개교였던 전문대학은 1990년까지 감소하다가 1990년 중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으로 대학설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전에는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와 평가를 통과해야 했지만,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본격 시행된 이후부터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 수가 양적으로 크게 팽창되었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및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경영부실대학퇴출,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으로 이어지는 대학 체질 개선의 영향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전문대학 수는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2015년 전문대학 수는 138개교로 1980년과 비교해 10개교 증가했지만, 전문대학 수가 양적으로 가장 많았던 2005년 158개교에 비해서는 20개교 감소하였다.

전문대학 수의 연도별 변화를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의 경우 1980년 36개교에서 1995년 8개교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설립준칙주의의 영향으로 2000년에는 2배에 달하는 16개교가 운영되었으며,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2012년부터 9개교로 유지되고 있다. 사립은 1980년 92개교에서 2005년 144개교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 129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표 I-1-2]를 통해 2015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문대학 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43개교, 비수도권은 95개교로 나타났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1개교, 8개교가 있고, 사립은 각각 42개교, 87개교가 있다. 학생 수 규모로 보면, 국·공립은 모두 5,000명 미만의 규모이고, 사립은 5,000명 미만인 학교가 63개교, 5,000명 이상인 학교가 66개교이다. 수도권에는 5,000명 이상의 학교가 수도권 전체 전문대학 43개교 중 31개교로 72.1%를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5,000명 미만의 학교가 95개교 중 60개교로 63.2%에 달하였으며, 5,0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학교는 35개교로 36.8%에 그쳤다.



■ 그림 I-1-1 ■ 연도별 설립별 학교 수(1980~2015)

주: <표 I-1-1> 참조.

■ 표 I-1-1 ■ 연도별 설립별 학교 수(1980~2015)

(단위: 개)

	전체	국·공립	사립
1980	128	36	92
1985	120	17	103
1990	117	16	101
1995	145	8	137
2000	158	16	142
2005	158	14	144
2006	152	13	139
2007	148	11	137
2008	147	10	137
2009	146	10	136
2010	145	9	136
2011	147	10	137
2012	142	9	133
2013	140	9	131
2014	139	9	130
2015	138	9	129

■ 표 I-1-2 ■ 지역별 규모별 설립별 학교 수(2015)

(단위: 개)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138	9	129
수도권	소계	43	1	42
	5,000명 미만	12	1	11
	5,000명 이상	31	0	31
비수도권	소계	95	8	87
	5,000명 미만	60	8	52
	5,000명 이상	35	0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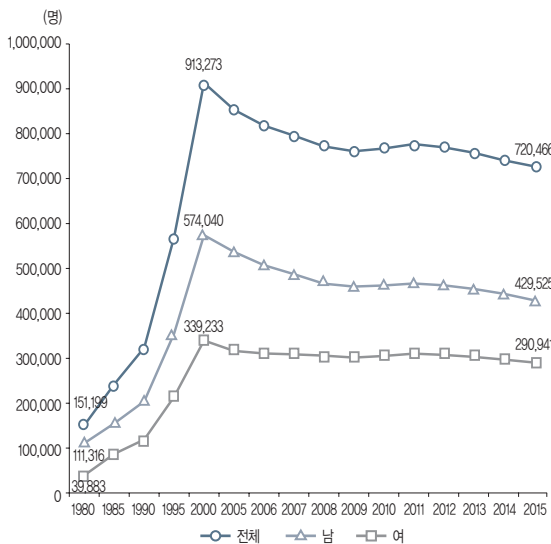
2 학생

1) 학생 수

[그림 I-2-1]은 연도별 성별 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대학의 학생 수는 학교 수의 변화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1980년 151,199명에서 2000년 913,273명으로 6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감소,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로 인한 4년제 대학의 양적 팽창 및 이들 4년제 대학의 직업교육기능의 잠식 등 교육환경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한강희 외, 2010). 2015년 현재 전문대학의 학생 수는 남학생 429,525명(59.6%), 여학생 290,941명(40.4%)이며, 전체 학생 수는 720,466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2.7%(20,335명)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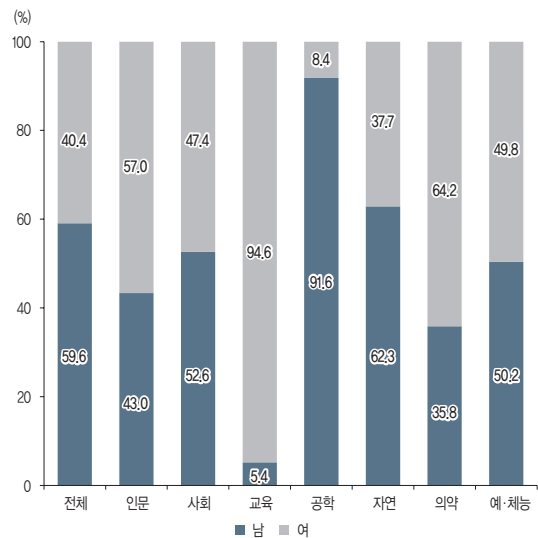
성별로 학생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남학생 수는 1980년 111,316명에서 2015년 429,525명으로 약 3.9배 늘어난 반면, 여학생 수는 1980년 39,883명에서 2015년 290,941명으로 약 7.3배 증가하였다. 여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는 남녀 비율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1980년 당시 26.4%에 불과했던 여학생의 비율은 1985년에는 36.0%에 이르렀고, 이후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5년에는 전체 학생 중 40.4%가 여학생으로 나타났다(〈표 I-2-1〉 참조).

2015년 학생 수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공학계열이 전체 학생의 30.3%(218,473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계열 23.1%(166,383명), 의약계열 16.8%(120,852명), 예·체능계열 15.4%(111,041명), 자연계열 7.3%(52,565명), 교육계열 4.4%(31,565명) 순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문계열이 2.7%(19,587명)로 가장 비중이 낮았다(〈표 I-2-2〉 참조). 아래 [그림 I-2-2]를 통해 계열별 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교육계열이 9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의약계열(64.2%), 인문계열(57.0%), 예·체능계열(49.8%), 사회계열(47.4%), 자연계열(37.7%)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학계열은 8.4%로 다른 계열에 비해 여학생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 그림 I-2-1 ■ 연도별 성별 학생 수(1980~2015)

주: 〈표 I-2-1〉 참조.



■ 그림 I-2-2 ■ 계열별 성별 학생 비율(2015)

주: 〈표 I-2-2〉 참조.

■ 표 I-2-1 ■ 연도별 설립별 성별 학생 수(1980~2015)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151,199	111,316	39,883	22,422	17,857	4,565	128,777	93,459	35,318
1985	242,114	154,991	87,123	22,956	19,588	3,368	219,158	135,403	83,755
1990	323,825	204,480	119,345	26,959	22,113	4,846	296,866	182,367	114,499
1995	569,820	355,510	214,310	21,473	15,414	6,059	548,347	340,096	208,251
2000	913,273	574,040	339,233	37,331	24,822	12,509	875,942	549,218	326,724
2005	853,089	536,763	316,326	36,153	26,042	10,111	816,936	510,721	306,215
2006	817,994	507,280	310,714	33,553	24,261	9,292	784,441	483,019	301,422
2007	795,519	487,066	308,453	30,372	22,204	8,168	765,147	464,862	300,285
2008	771,854	466,153	305,701	26,702	19,531	7,171	745,152	446,622	298,530
2009	760,929	459,534	301,395	25,248	18,514	6,734	735,681	441,020	294,661
2010	767,087	462,241	304,846	21,473	15,801	5,672	745,614	446,440	299,174
2011	776,738	466,491	310,247	18,790	14,313	4,477	757,948	452,178	305,770
2012	769,888	462,538	307,350	16,792	12,782	4,010	753,096	449,756	303,340
2013	757,721	454,552	303,169	16,019	12,146	3,873	741,702	442,406	299,296
2014	740,801	443,849	296,952	15,341	11,655	3,686	725,460	432,194	293,266
2015	720,466	429,525	290,941	14,328	10,779	3,549	706,138	418,746	287,392

■ 표 I-2-2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학생 수(2015)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720,466	429,525	290,941	14,328	10,779	3,549	706,138	418,746	287,392
수도권	소계	304,255	176,172	128,083	915	635	280	303,340	175,537	127,803
	인문	13,117	4,868	8,249	59	20	39	13,058	4,848	8,210
	사회	75,254	36,855	38,399	182	115	67	75,072	36,740	38,332
	교육	12,954	609	12,345	53	4	49	12,901	605	12,296
	공학	99,978	89,034	10,944	290	275	15	99,688	88,759	10,929
	자연	20,425	10,774	9,651	-	-	-	20,425	10,774	9,651
	의약	22,005	6,974	15,031	103	81	22	21,902	6,893	15,009
	예·체능	60,522	27,058	33,464	228	140	88	60,294	26,918	33,376
비수도권	소계	416,211	253,353	162,858	13,413	10,144	3,269	402,798	243,209	159,589
	인문	6,470	3,552	2,918	77	52	25	6,393	3,500	2,893
	사회	91,129	50,609	40,520	2,389	1,525	864	88,740	49,084	39,656
	교육	18,611	1,107	17,504	533	54	479	18,078	1,053	17,025
	공학	118,495	111,063	7,432	5,648	5,308	340	112,847	105,755	7,092
	자연	32,140	21,998	10,142	2,806	2,137	669	29,334	19,861	9,473
	의약	98,847	36,322	62,525	847	521	326	98,000	35,801	62,199
	예·체능	50,519	28,702	21,817	1,113	547	566	49,406	28,155	21,251

■ I. 전문대학 ■

2) 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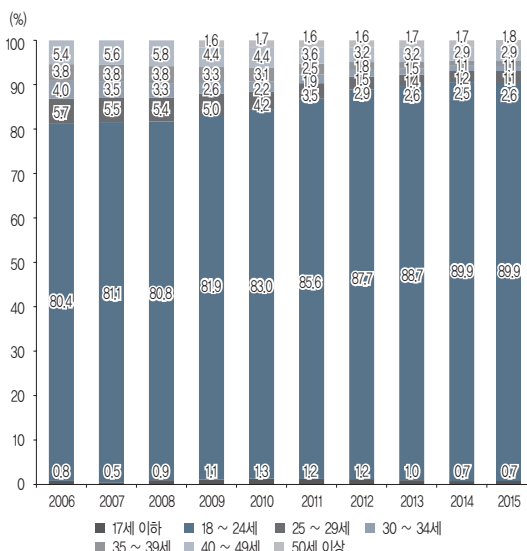
2015년 전문대학 입학생 수는 전년 대비 약 3.3%(7,284명) 줄어든 214,466명으로 남학생 101,510명, 여학생 112,956명이다. 전체 입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은 52.7%이었으며, 설립별로는 사립의 입학생 수가 209,974명으로 전체 입학생 수의 97.9%를 차지하였다(〈표 I-2-3, 4〉 참조).

[그림 I-2-3]을 통해 연령별 입학생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18~24세 입학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연령의 입학생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25~29세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2006년 대비 2015년에 약 3.1%p 감소하였다.

2015년 계열별 입학생 수를 살펴보면, 사회계열 입학생이 전체 입학생의 26.3%(56,42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공학계열 25.0%(53,690명), 의약계열 16.6%(35,627명), 예·체능계열 16.1%(34,561명), 자연계열 7.3%(15,633명), 교육계열 5.6%(11,981명)이었고, 인문계열은 3.1%(6,553명)로 가장 적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학생의 비중은 공학계열, 자연계열, 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인문계열, 의약계열, 교육계열 순으로 많았고, 여학생의 비중은 교육계열, 의약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순이었다(〈표 I-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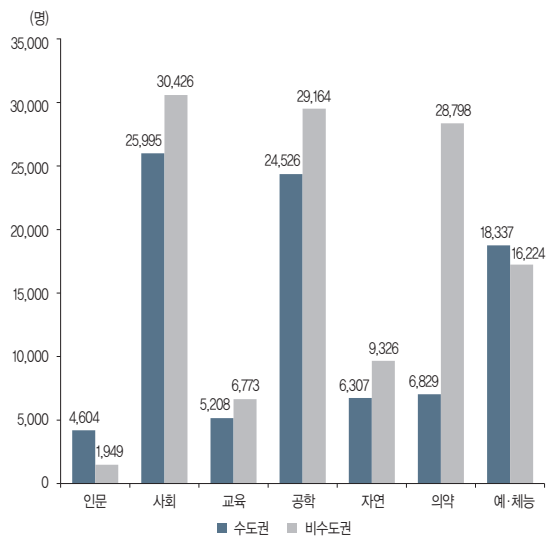
[그림 I-2-4]에서 지역별로 계열별 입학생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문대학의 경우 사회계열이 25,99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약계열, 자연계열, 교육계열, 인문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수도권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사회계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교육계열, 인문계열 순이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학생유형별 입학생 수를 살펴보면, 입학생 중 당해년도 고교졸업자가 70.3%, 재수자 20.6%, 재진학자 2.4%, 검정고시합격자 2.7%, 그 외 기타가 3.9%를 차지했다. 아울러 학생유형별 입학생의 성비에서 대부분의 유형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재진학자의 경우 여자 입학생이 72.6%로 남자 입학생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2-5〉 참조).



■ 그림 I-2-3 ■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비율(2006~2015)

주: 〈표 I-2-3〉 참조.



■ 그림 I-2-4 ■ 지역별 계열별 입학생 수(2015)

주: 〈표 I-2-4〉 참조.

■ 표 I-2-3 ■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수(2006~2015)

(단위: 명)

	전체	17세 이하	18 ~ 24세	25 ~ 29세	30 ~ 34세	35 ~ 39세	40 ~ 49세	50세 이상
2006	254,433	2,037	204,542	14,421	10,155	9,557	13,721	-
2007	255,395	1,166	207,211	14,158	9,056	9,628	14,176	-
2008	249,291	2,346	201,317	13,414	8,105	9,559	14,550	-
2009	242,525	2,653	198,549	12,223	6,321	8,118	10,675	3,986
2010	249,144	3,268	206,832	10,390	5,598	7,841	10,947	4,268
2011	249,693	3,110	213,654	8,832	4,824	6,131	9,032	4,110
2012	238,952	2,846	209,538	6,985	3,678	4,213	7,754	3,938
2013	227,707	2,209	202,029	5,875	3,081	3,374	7,267	3,872
2014	221,750	1,649	199,260	5,501	2,644	2,454	6,484	3,758
2015	214,466	1,455	192,830	5,508	2,329	2,263	6,197	3,884

주: 2006~2008년의 40~49세 범주에는 '40세 이상'의 값을 제시함. 당시에는 50세 이상의 범주를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고, 해당 대상을 40세 이상에 포함시켜 함께 집계함.

■ 표 I-2-4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 수(2015)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214,466	101,510	112,956	4,492	2,913	1,579	209,974	98,597	111,377
수도권	소계	91,806	40,427	51,379	251	123	128	91,555	40,304	51,251
	인문	4,604	1,229	3,375	24	7	17	4,580	1,222	3,358
	사회	25,995	9,213	16,782	76	35	41	25,919	9,178	16,741
	교육	5,208	182	5,026	24	2	22	5,184	180	5,004
	공학	24,526	20,123	4,403	29	22	7	24,497	20,101	4,396
	자연	6,307	2,350	3,957	-	-	-	6,307	2,350	3,957
	의약	6,829	1,664	5,165	33	21	12	6,796	1,643	5,153
비수도권	예·체능	18,337	5,666	12,671	65	36	29	18,272	5,630	12,642
	소계	122,660	61,083	61,577	4,241	2,790	1,451	118,419	58,293	60,126
	인문	1,949	818	1,131	31	18	13	1,918	800	1,118
	사회	30,426	13,076	17,350	852	436	416	29,574	12,640	16,934
	교육	6,773	370	6,403	216	17	199	6,557	353	6,204
	공학	29,164	26,218	2,946	1,497	1,340	157	27,667	24,878	2,789
	자연	9,326	5,101	4,225	926	652	274	8,400	4,449	3,951
	의약	28,798	8,471	20,327	317	176	141	28,481	8,295	20,186
	예·체능	16,224	7,029	9,195	402	151	251	15,822	6,878	8,944

■ 표 I-2-5 ■ 학생유형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 수(2015)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214,466	101,510	112,956	4,492	2,913	1,579	209,974	98,597	111,377
당해년도 고교졸업자		150,826	72,431	78,395	3,081	2,046	1,035	147,745	70,385	77,360
재수자		44,194	21,546	22,648	876	535	341	43,318	21,011	22,307
재진학자		5,233	1,436	3,797	138	85	53	5,095	1,351	3,744
검정고시합격		5,807	2,718	3,089	140	75	65	5,667	2,643	3,024
기타		8,406	3,379	5,027	257	172	85	8,149	3,207	4,942

주: 재수자는 대학입시를 2번 이상 치른 학생을 일컫는 말로 3번이나 4번 그 이상의 대학입시를 치른 학생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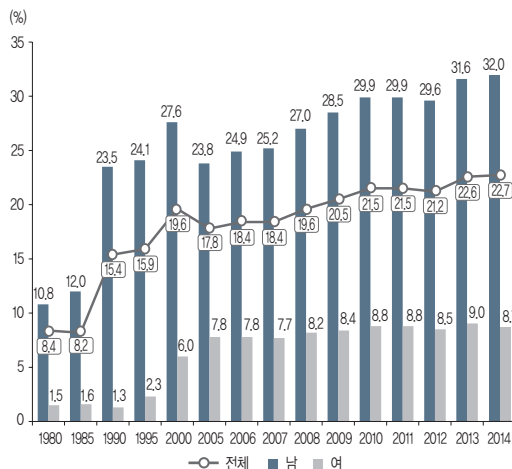
■ I. 전문대학 ■

3) 학생 변동 상황¹⁾

① 휴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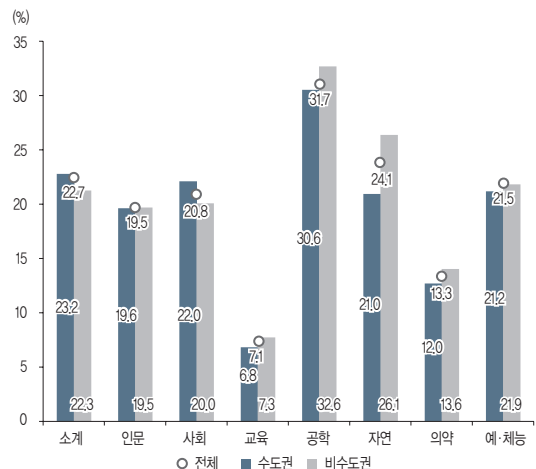
2014학년도 전문대학의 전체 휴학생 수는 167,876명이었으며, 휴학률은 전 학년도 대비 약 0.1%p 증가한 22.7%로 나타났다. [그림 I-2-5]를 통해 연도별 휴학률 추이를 살펴보면, IMF 외환위기 이후인 2000학년도에 휴학률이 19.6%로 이전에 비하여 급격하게 늘었다가, 200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별 휴학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80학년도에는 남학생은 10.8%, 여학생은 1.5%였으나 2014학년도에는 남학생 32.0%, 여학생 8.7%로 각각 21.2%p, 7.2%p 증가하였다. 1980학년도 이래로 남학생의 휴학률이 여학생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남학생의 군복무로 인한 휴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대학의 설립별 휴학률을 보면, 1980학년도에 국·공립은 9.0%, 사립은 8.3%이었다. 그러나 2014학년도에는 국·공립 24.1%, 사립 22.6%로 1980학년도 대비 모두 2.6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I-2-6〉 참조).

[그림 I-2-6]은 2014학년도 전문대학 학생들의 지역별 계열별 휴학률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계열별로 보면, 교육계열의 휴학률이 7.1%로 가장 낮았으며, 공학계열이 31.7%로 가장 높았다. 자연계열(24.1%), 예·체능계열(21.5%), 사회계열(20.8%)의 휴학률 또한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계열(19.5%), 의약계열(13.3%)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에서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휴학률이 수도권보다 더 높았으며,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약 5.1%p로 가장 컸다.



■ 그림 I-2-5 ■ 연도별 성별 휴학률(1980~2014, 학년도 기준)

주: 〈표 I-2-6〉 참조.



■ 그림 I-2-6 ■ 지역별 계열별 휴학률(2014, 학년도 기준)

주: 〈표 I-2-7〉 참조.

1) 전문대학의 학생 변동 상황과 관련된 자료들의 기준일은 조사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임.

■ 표 I-2-6 ■ 연도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 수 및 휴학률(1980~2014,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휴학생 수			휴학률			휴학생 수			휴학률			휴학생 수			휴학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12,656	12,074	582	8.4	10.8	1.5	2,011	1,954	57	9.0	10.9	1.2	10,645	10,120	525	8.3	10.8	1.5
1985	19,972	18,593	1,379	8.2	12.0	1.6	2,844	2,780	64	12.4	14.2	1.9	17,128	15,813	1,315	7.8	11.7	1.6
1990	49,709	48,116	1,593	15.4	23.5	1.3	4,473	4,381	92	16.6	19.8	1.9	45,236	43,735	1,501	15.2	24.0	1.3
1995	90,711	85,762	4,949	15.9	24.1	2.3	3,845	3,685	160	17.9	23.9	2.6	86,866	82,077	4,789	15.8	24.1	2.3
2000	179,016	158,535	20,481	19.6	27.6	6.0	7,051	6,482	569	18.9	26.1	4.5	171,965	152,053	19,912	19.6	27.7	6.1
2005	152,207	127,622	24,585	17.8	23.8	7.8	5,266	4,658	608	14.6	17.9	6.0	146,941	122,964	23,977	18.0	24.1	7.8
2006	150,433	126,268	24,165	18.4	24.9	7.8	7,785	6,986	799	23.2	28.8	8.6	142,648	119,282	23,366	18.2	24.7	7.8
2007	146,546	122,763	23,783	18.4	25.2	7.7	6,726	5,985	741	22.1	27.0	9.1	139,820	116,778	23,042	18.3	25.1	7.7
2008	150,912	125,824	25,088	19.6	27.0	8.2	6,451	5,825	626	24.2	29.8	8.7	144,461	119,999	24,462	19.4	26.9	8.2
2009	156,212	130,852	25,360	20.5	28.5	8.4	7,097	5,812	1,285	28.1	31.4	19.1	149,115	125,040	24,075	20.3	28.4	8.2
2010	165,175	138,373	26,802	21.5	29.9	8.8	5,547	4,677	870	25.8	29.6	15.3	159,628	133,696	25,932	21.4	29.9	8.7
2011	166,987	139,668	27,319	21.5	29.9	8.8	4,008	3,646	362	21.3	25.5	8.1	162,979	136,022	26,957	21.5	30.1	8.8
2012	163,084	136,900	26,184	21.2	29.6	8.5	3,821	3,457	364	22.8	27.0	9.1	159,263	133,443	25,820	21.1	29.7	8.5
2013	171,028	143,610	27,418	22.6	31.6	9.0	3,601	3,308	293	22.5	27.2	7.6	167,427	140,302	27,125	22.6	31.7	9.1
2014	167,876	142,038	25,838	22.7	32.0	8.7	3,692	3,358	334	24.1	28.8	9.1	164,184	138,680	25,504	22.6	32.1	8.7

주: 휴학률=(휴학생 수/전년도 재적 학생 수) × 100

■ 표 I-2-7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 수 및 휴학률(2014,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휴학생 수			휴학률			휴학생 수			휴학률			휴학생 수			휴학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67,876	142,038	25,838	22.7	32.0	8.7	3,692	3,358	334	24.1	28.8	9.1	164,184	138,680	25,504	22.6	32.1	8.7
수도권	소계	73,091	59,439	13,652	23.2	32.2	10.4	196	175	21	6.9	7.5	3.9	72,895	59,264	13,631	23.3	32.5	10.5
	인문	2,813	1,661	1,152	19.6	31.8	12.6	7	3	4	7.7	8.1	7.4	2,806	1,658	1,148	19.6	32.0	12.6
	사회	17,033	12,759	4,274	22.0	33.1	11.0	29	25	4	11.7	13.3	6.7	17,004	12,734	4,270	22.0	33.2	11.0
	교육	863	182	681	6.8	31.4	5.6	4	0	4	8.7	0.0	9.5	859	182	677	6.8	31.7	5.6
	공학	31,565	30,292	1,273	30.6	32.8	11.8	78	76	2	9.1	9.4	4.1	31,487	30,216	1,271	30.8	33.1	11.8
	자연	4,620	3,771	849	21.0	30.9	8.7	—	—	—	—	—	—	4,620	3,771	849	22.2	33.6	8.9
	의약	2,525	1,763	762	12.0	27.1	5.2	26	26	0	25.2	33.8	0.0	2,499	1,737	762	11.9	27.0	5.3
	예·체능	13,672	9,011	4,661	21.2	31.0	13.1	52	45	7	15.8	19.1	7.4	13,620	8,966	4,654	21.2	31.1	13.1
비수도권	소계	94,785	82,599	12,186	22.3	31.8	7.3	3,496	3,183	313	28.0	34.1	9.9	91,289	79,416	11,873	22.1	31.8	7.3
	인문	1,250	915	335	19.5	26.6	11.3	—	—	—	—	—	—	1,250	915	335	19.5	26.6	11.3
	사회	19,809	16,168	3,641	20.0	29.7	8.1	631	534	97	25.3	33.6	10.7	19,178	15,634	3,544	19.8	29.6	8.1
	교육	1,347	257	1,090	7.3	24.9	6.2	59	21	38	10.8	35.0	7.8	1,288	236	1,052	7.2	24.3	6.2
	공학	39,274	38,522	752	32.6	34.1	10.1	1,855	1,811	44	32.4	33.4	13.9	37,419	36,711	708	32.6	34.1	9.9
	자연	8,518	7,501	1,017	26.1	33.9	9.7	562	498	64	33.2	42.4	12.4	7,956	7,003	953	25.7	33.5	9.6
	의약	13,014	10,175	2,839	13.6	28.8	4.7	146	137	9	18.6	27.9	3.0	12,868	10,038	2,830	13.6	28.8	4.7
	예·체능	11,573	9,061	2,512	21.9	30.1	11.1	243	182	61	19.7	30.1	9.7	11,330	8,879	2,451	22.0	30.1	11.1

주: 휴학률=(휴학생 수/전년도 재적 학생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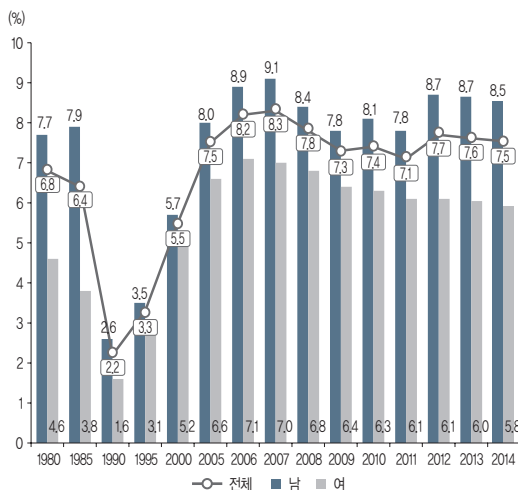
■ I. 전문대학 ■

② 중도탈락

[그림 I-2-7]에 의하면 2014학년도 전문대학의 중도탈락률은 전 학년도 대비 약 0.1%p 감소한 7.5%(55,239명)로 남학생 8.5%(37,894명), 여학생 5.8%(17,345명)로 나타났다. 중도탈락률은 1990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학년도 이후로는 큰 변동없이 7%대를 유지해오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매 학년도에서 남학생의 중도탈락률이 여학생보다 높았는데, 1985학년도에는 남학생의 중도탈락률이 여학생보다 4.1%p정도 높아 가장 큰 격차가 있었다. 그 이후로는 대체로 2%p 이내로 격차가 나타났으나, 2012학년도부터 그 격차가 2%p 후반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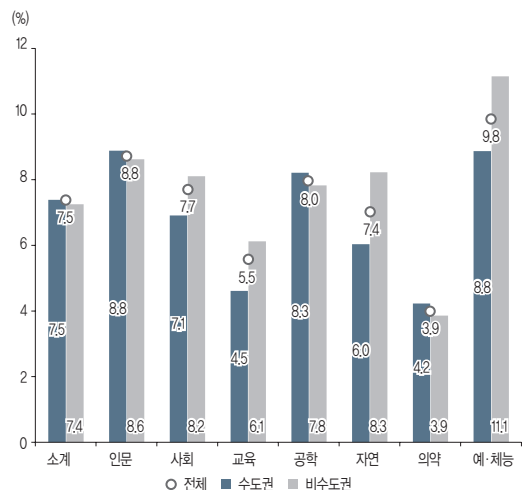
연도별로 전문대학의 설립별 중도탈락률 변화를 살펴보면, 1980학년도 중도탈락률은 국·공립 4.9%, 사립은 7.2%로 나타났고, 2014학년도에는 국·공립 7.3%, 사립은 7.5%로 나타났다. 국·공립의 경우 1990학년도에 3.1%로 중도탈락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2012학년도에는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립 역시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1990학년도에 2.2%로 중도탈락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007학년도에는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2-8> 참조).

다음으로 [그림 I-2-8]에 나타난 2014학년도 계열별 중도탈락률을 보면, 예·체능계열 9.8%, 인문계열 8.8%, 공학계열 8.0%, 사회계열 7.7%, 자연계열 7.4%, 교육계열 5.5%, 의약계열 3.9%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문대학의 중도탈락률(7.5%)이 비수도권 전문대학(7.4%)보다 약간 높았다. 인문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에서는 0.5%p 내의 작은 차이로 수도권의 중도탈락률이 높았으나, 나머지 계열에서는 비수도권의 중도탈락률이 수도권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예·체능계열과 자연계열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전문대학간 중도탈락률의 차이가 2%p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 그림 I-2-7 ■ 연도별 성별 중도탈락률(1980~2014, 학년도 기준)

주: <표 I-2-8> 참조.



■ 그림 I-2-8 ■ 지역별 계열별 중도탈락률(2014, 학년도 기준)

주: <표 I-2-9> 참조.

■ 표 1-2-8 ■ 연도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 수 및 중도탈락률(1980~2014,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10,346	8,516	1,830	6.8	7.7	4.6	1,097	995	102	4.9	5.6	2.2	9,249	7,521	1,728	7.2	8.0	4.9
1985	15,598	12,258	3,340	6.4	7.9	3.8	1,328	1,265	63	5.8	6.5	1.9	14,270	10,993	3,277	6.5	8.1	3.9
1990	7,224	5,361	1,863	2.2	2.6	1.6	837	774	63	3.1	3.5	1.3	6,387	4,587	1,800	2.2	2.5	1.6
1995	19,066	12,511	6,555	3.3	3.5	3.1	1,544	1,352	192	7.2	8.8	3.2	17,522	11,159	6,363	3.2	3.3	3.1
2000	50,496	32,905	17,591	5.5	5.7	5.2	1,725	1,247	478	4.6	5.0	3.8	48,771	31,658	17,113	5.6	5.8	5.2
2005	63,853	42,898	20,955	7.5	8.0	6.6	2,902	2,236	666	8.0	8.6	6.6	60,951	40,662	20,289	7.5	8.0	6.6
2006	67,323	45,196	22,127	8.2	8.9	7.1	3,462	2,694	768	10.3	11.1	8.3	63,861	42,502	21,359	8.1	8.8	7.1
2007	65,697	44,227	21,470	8.3	9.1	7.0	2,339	1,761	578	7.7	7.9	7.1	63,358	42,466	20,892	8.3	9.1	7.0
2008	59,958	39,166	20,792	7.8	8.4	6.8	2,276	1,707	569	8.5	8.7	7.9	57,682	37,459	20,223	7.7	8.4	6.8
2009	55,237	35,948	19,289	7.3	7.8	6.4	1,947	1,468	479	7.7	7.9	7.1	53,290	34,480	18,810	7.2	7.8	6.4
2010	56,658	37,463	19,195	7.4	8.1	6.3	1,316	998	318	6.1	6.3	5.6	55,342	36,465	18,877	7.4	8.2	6.3
2011	55,163	36,335	18,828	7.1	7.8	6.1	1,122	869	253	6.0	6.1	5.7	54,041	35,466	18,575	7.1	7.8	6.1
2012	58,923	40,148	18,775	7.7	8.7	6.1	2,533	2,110	423	15.1	16.5	10.5	56,390	38,038	18,352	7.5	8.5	6.0
2013	57,651	39,325	18,326	7.6	8.7	6.0	1,576	1,275	301	9.8	10.5	7.8	56,075	38,050	18,025	7.6	8.6	6.0
2014	55,239	37,894	17,345	7.5	8.5	5.8	1,124	887	237	7.3	7.6	6.4	54,115	37,007	17,108	7.5	8.6	5.8

주: 중도탈락률=(중도탈락자 수/전년도 재적 학생 수) × 100

■ 표 1-2-9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 수 및 중도탈락률(2014,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55,239	37,894	17,345	7.5	8.5	5.8	1,124	887	237	7.3	7.6	6.4	54,115	37,007	17,108	7.5	8.6	5.8
수도권	소계	23,757	15,589	8,168	7.5	8.5	6.2	110	93	17	3.9	4.0	3.2	23,647	15,496	8,151	7.6	8.5	6.3
	인문	1,270	488	782	8.8	9.3	8.5	5	4	1	5.5	10.8	1.9	1,265	484	781	8.8	9.3	8.6
	사회	5,488	3,229	2,259	7.1	8.4	5.8	13	9	4	5.2	4.8	6.7	5,475	3,220	2,255	7.1	8.4	5.8
	교육	570	47	523	4.5	8.1	4.3	5	1	4	10.9	25.0	9.5	565	46	519	4.5	8.0	4.3
	공학	8,546	7,825	721	8.3	8.5	6.7	62	60	2	7.2	7.4	4.1	8,484	7,765	719	8.3	8.5	6.7
	자연	1,325	794	531	6.0	6.5	5.4	—	—	—	—	—	—	1,325	794	531	6.4	7.1	5.6
	의약	880	418	462	4.2	6.4	3.2	4	4	0	3.9	5.2	0.0	876	414	462	4.2	6.4	3.2
	예·체능	5,678	2,788	2,890	8.8	9.6	8.1	21	15	6	6.4	6.4	6.3	5,657	2,773	2,884	8.8	9.6	8.1
비수도권	소계	31,482	22,305	9,177	7.4	8.6	5.5	1,014	794	220	8.1	8.5	7.0	30,468	21,511	8,957	7.4	8.6	5.5
	인문	551	310	241	8.6	9.0	8.1	—	—	—	—	—	—	551	310	241	8.6	9.0	8.1
	사회	8,143	5,310	2,833	8.2	9.8	6.3	162	114	48	6.5	7.2	5.3	7,981	5,196	2,785	8.3	9.8	6.4
	교육	1,132	124	1,008	6.1	12.0	5.8	26	6	20	4.8	10.0	4.1	1,106	118	988	6.2	12.1	5.8
	공학	9,403	8,864	539	7.8	7.8	7.2	498	466	32	8.7	8.6	10.1	8,905	8,398	507	7.8	7.8	7.1
	자연	2,702	1,975	727	8.3	8.9	6.9	144	105	39	8.5	8.9	7.5	2,558	1,870	688	8.3	8.9	6.9
	의약	3,702	1,973	1,729	3.9	5.6	2.9	40	28	12	5.1	5.7	4.1	3,662	1,945	1,717	3.9	5.6	2.9
	예·체능	5,849	3,749	2,100	11.1	12.4	9.2	144	75	69	11.7	12.4	10.9	5,705	3,674	2,031	11.1	12.4	9.2

주: 중도탈락률=(중도탈락자 수/전년도 재적 학생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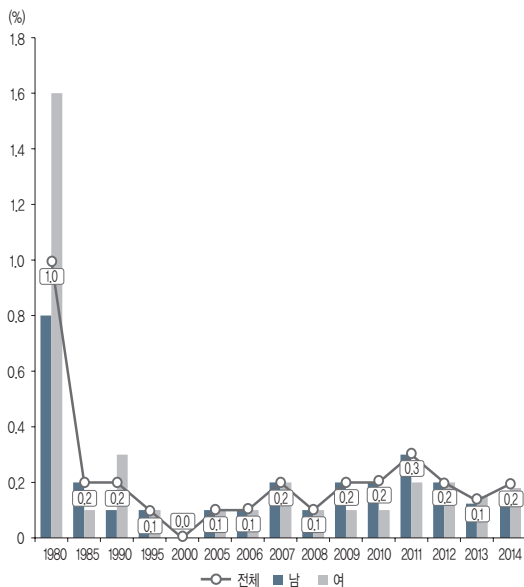
■ I. 전문대학 ■

③ 편입

전문대학의 편입생 수는 지난 30여년간 2,000명 이내로 전체 학생 대비 편입생 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었다. 특히 1980학년도를 제외하고 2000학년도까지는 600명 이하였으며, 이후 2005학년도부터 1,000명 내외로 증가했는데, 이는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한 전문대학 수의 증가 및 대학정원 자율화로 인한 학생 수의 증가로 편입생 수 역시 함께 증가해 온 것으로 보여진다(〈표 I-2-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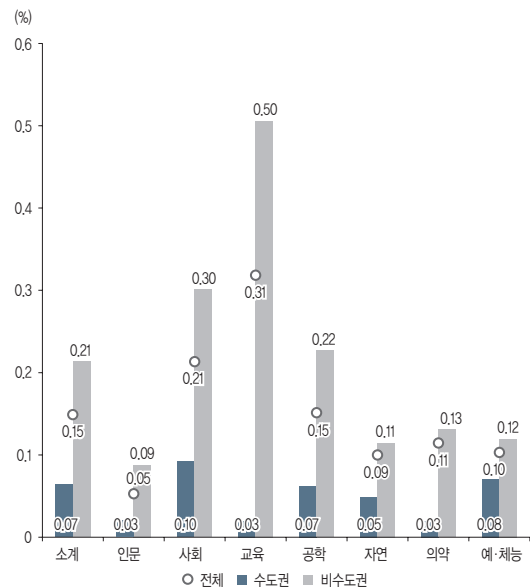
[그림 I-2-9]을 통해 편입률 변화를 살펴보면, 1980학년도에 1.0%이었고, 그 이후에는 0.3% 이내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1980학년도 이후 1~2%대의 편입률을 보이고 있는 대학과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여진다(〈표 II-2-10〉 참조). 성별로 살펴보면 1980학년도와 1990학년도를 제외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약 0.1%p 이내로 차이가 났으며, 최근 들어서는 여학생의 편입률이 남학생보다 약 0.1%p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설립별로는 국·공립은 전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편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편입은 사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I-2-10〉 참조)

[그림 I-2-10]은 2014학년도 지역에 따른 계열별 편입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4학년도의 경우, 전문대학 전체 편입률은 0.15%이며, 계열별로는 교육계열이 0.3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0.21%), 공학계열(0.15%), 의약계열(0.11%), 예·체능계열(0.10%), 자연계열(0.09%), 인문계열(0.05%)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전문대학(0.07%)에 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0.21%)의 편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은 사회계열의 편입률이 0.10%로 가장 높았고, 인문, 교육, 의약계열이 0.03%로 가장 낮았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교육계열의 편입률이 0.50%로 전체 계열 중 가장 높았고, 인문계열의 편입률이 0.09%로 가장 낮았다.



■ 그림 I-2-9 ■ 연도별 성별 편입률(1980~2014, 학년도 기준)

주: 〈표 I-2-10〉 참조.



■ 그림 I-2-10 ■ 지역별 계열별 편입률(2014, 학년도 기준)

주: 〈표 I-2-11〉 참조.

■ 표 I-2-10 ■ 연도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 수 및 편입률(1980~2014,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편입생 수			편입률			편입생 수			편입률			편입생 수			편입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1,538	901	637	1.0	0.8	1.6	12	4	8	0.1	0.0	0.2	1526	897	629	1.2	1.0	1.8
1985	410	313	97	0.2	0.2	0.1	18	18	0	0.1	0.1	0.0	392	295	97	0.2	0.2	0.1
1990	507	173	334	0.2	0.1	0.3	4	4	0	0.0	0.0	0.0	503	169	334	0.2	0.1	0.3
1995	525	291	234	0.1	0.1	0.1	-	-	-	-	-	-	525	291	234	0.1	0.1	0.1
2000	130	103	27	0.0	0.0	0.0	1	1	0	0.0	0.0	0.0	129	102	27	0.0	0.0	0.0
2005	1,034	663	371	0.1	0.1	0.1	22	11	11	0.1	0.0	0.1	1,012	652	360	0.1	0.1	0.1
2006	968	753	215	0.1	0.1	0.1	14	12	2	0.0	0.0	0.0	954	741	213	0.1	0.2	0.1
2007	1,425	894	531	0.2	0.2	0.2	104	76	28	0.3	0.3	0.3	1,321	818	503	0.2	0.2	0.2
2008	1,041	633	408	0.1	0.1	0.1	4	1	3	0.0	0.0	0.0	1,037	632	405	0.1	0.1	0.1
2009	1,145	773	372	0.2	0.2	0.1	4	3	1	0.0	0.0	0.0	1,141	770	371	0.2	0.2	0.1
2010	1,428	985	443	0.2	0.2	0.1	-	-	-	-	-	-	1,428	985	443	0.2	0.2	0.1
2011	1,953	1,338	615	0.3	0.3	0.2	3	2	1	0.0	0.0	0.0	1,950	1,336	614	0.3	0.3	0.2
2012	1,322	726	596	0.2	0.2	0.2	2	0	2	0.0	0.0	0.0	1,320	726	594	0.2	0.2	0.2
2013	1,020	560	460	0.1	0.1	0.2	1	1	0	0.0	0.0	0.0	1,019	559	460	0.1	0.1	0.2
2014	1,114	549	565	0.2	0.1	0.2	5	2	3	0.0	0.0	0.1	1,109	547	562	0.2	0.1	0.2

주: 편입률=(편입생 수/전년도 재적 학생 수) × 100

■ 표 I-2-11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 수 및 편입률(2014,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편입생 수			편입률			편입생 수			편입률			편입생 수			편입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114	549	565	0.15	0.12	0.19	5	2	3	0.03	0.02	0.08	1,109	547	562	0.15	0.13	0.19
수도권	소계	226	108	118	0.07	0.06	0.09	0	0	0	0.00	0.00	0.00	226	108	118	0.07	0.06	0.09
	인문	4	1	3	0.03	0.02	0.03	0	0	0	0.00	0.00	0.00	4	1	3	0.03	0.02	0.03
	사회	79	12	67	0.10	0.03	0.17	0	0	0	0.00	0.00	0.00	79	12	67	0.10	0.03	0.17
	교육	4	0	4	0.03	0.00	0.03	0	0	0	0.00	0.00	0.00	4	0	4	0.03	0.03	0.03
	공학	70	64	6	0.07	0.07	0.06	0	0	0	0.00	0.00	0.00	70	64	6	0.07	0.07	0.06
	자연	10	6	4	0.05	0.05	0.04	—	—	—	—	—	—	10	6	4	0.05	0.05	0.04
	의약	6	1	5	0.03	0.02	0.03	0	0	0	0.00	0.00	0.00	6	1	5	0.03	0.02	0.03
	예·체능	53	24	29	0.08	0.08	0.08	0	0	0	0.00	0.00	0.00	53	24	29	0.08	0.08	0.08
비수도권	소계	888	441	447	0.21	0.17	0.27	5	2	3	0.04	0.02	0.10	883	439	444	0.21	0.18	0.27
	인문	6	5	1	0.09	0.15	0.03	—	—	—	—	—	—	6	5	1	0.09	0.15	0.03
	사회	293	127	166	0.30	0.23	0.37	0	0	0	0.00	0.00	0.00	293	127	166	0.30	0.24	0.38
	교육	92	13	79	0.50	1.26	0.45	1	0	1	0.18	0.00	0.21	91	13	78	0.51	1.34	0.46
	공학	269	198	71	0.22	0.18	0.95	2	1	1	0.03	0.02	0.32	267	197	70	0.23	0.18	0.98
	자연	37	13	24	0.11	0.06	0.23	0	0	0	0.00	0.00	0.00	37	13	24	0.12	0.06	0.24
	의약	125	47	78	0.13	0.13	0.13	0	0	0	0.00	0.00	0.00	125	47	78	0.13	0.13	0.13
	예·체능	66	38	28	0.12	0.13	0.12	2	1	1	0.16	0.17	0.16	64	37	27	0.12	0.13	0.12

주: 편입률=(편입생 수/전년도 재적 학생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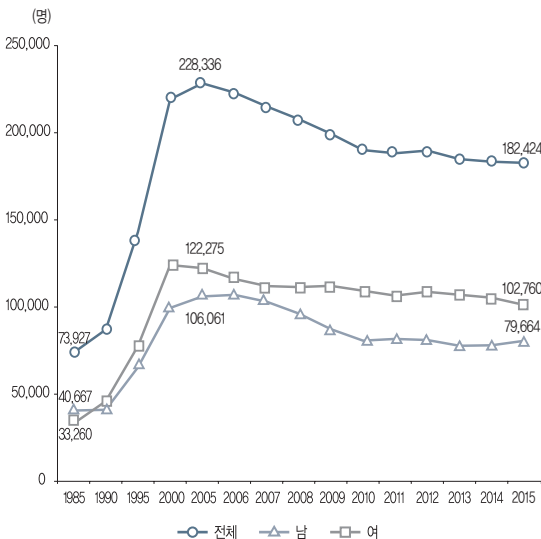
■ I. 전문대학 ■

4) 졸업²⁾

전문대학의 연도별 성별 졸업자 수는 [그림 I-2-11]을 통해 알 수 있다. 전문대학의 졸업자³⁾는 1985년 73,927명에서 2005년에 228,33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후로는 입학생과 마찬가지로 졸업자도 점차 감소하여 2015년에는 182,42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965명 감소한 것이다. 1985년 당시 졸업자 중 남학생의 비율은 55.0%로 여학생보다 많았지만, 1990년 이후로는 여학생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해 왔으며, 2015년에는 남학생 43.7%, 여학생 56.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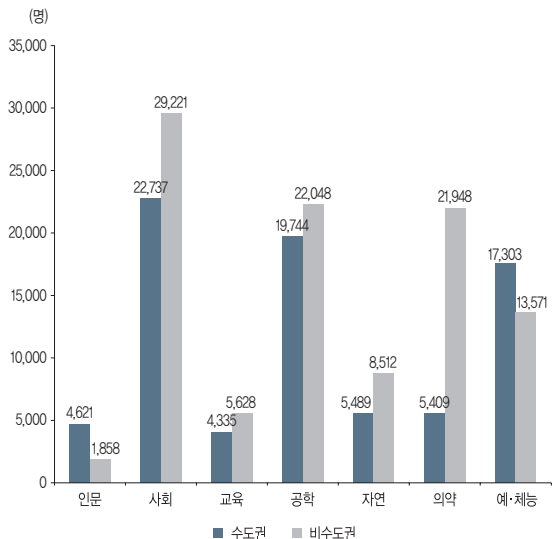
[표 I-2-12]에서 설립별로 졸업자 수를 살펴보면, 2015년 국·공립은 3,858명으로 1985년 7,540명에 비하여 절반 정도 줄어든 반면, 사립은 178,566명으로 1985년 대비 약 2.7배 늘어났다. 이는 지난 30여 년간 국·공립학교는 줄어 들고, 사립학교는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I-2-12]를 통해 전문대학의 계열별 졸업자 수를 살펴보면, 재학생 비율은 공학계열이 가장 높는데 반해(<표 I-2-2> 참조), 졸업자 비율은 사회계열이 28.5%(51,958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공학계열 졸업자는 22.9%(41,792명)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계열은 예·체능계열 16.9%(30,874명), 의약계열 15.0%(27,357명), 자연계열 7.7%(14,001명), 교육계열 5.5%(9,963명), 인문계열 3.6%(6,479명)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졸업자 수는 79,638명(43.7%), 비수도권의 졸업자 수는 102,786명(56.3%)으로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졸업자이었다. 한편, 예·체능계열과 인문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에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졸업자 수가 많았다(<표 I-2-13> 참조).



■ 그림 I-2-11 ■ 연도별 성별 졸업자 수(1985~2015)

주: <표 I-2-12> 참조.



■ 그림 I-2-12 ■ 지역별 계열별 졸업자 수(2015)

주: <표 I-2-13> 참조.

2) 2004년 이후 전문대학의 졸업에 관한 내용은 취업통계조사를 근거하여 작성함.

3) 졸업자는 전년도 8월 졸업자 및 당해 연도 2월 졸업자를 포함함.

■ 표 I-2-12 ■ 연도별 설립별 성별 졸업자 수(1985~2015)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5	73,927	40,667	33,260	7,540	6,052	1,488	66,387	34,615	31,772
1990	87,131	41,109	46,022	6,132	4,534	1,598	80,999	36,575	44,424
1995	143,075	65,435	77,640	5,692	3,263	2,429	137,383	62,172	75,211
2000	223,489	99,452	124,037	8,543	3,903	4,640	214,946	95,549	119,397
2005	228,336	106,061	122,275	9,800	5,385	4,415	218,536	100,676	117,860
2006	222,973	106,913	116,060	9,377	5,357	4,020	213,596	101,556	112,040
2007	215,040	103,047	111,993	8,676	5,009	3,667	206,364	98,038	108,326
2008	207,741	96,278	111,463	7,883	4,504	3,379	199,858	91,774	108,084
2009	199,421	87,321	112,100	6,879	3,967	2,912	192,542	83,354	109,188
2010	190,033	80,719	109,314	5,897	3,486	2,411	184,136	77,233	106,903
2011	188,216	81,709	106,507	5,097	3,081	2,016	183,119	78,628	104,491
2012	189,733	81,040	108,693	3,845	2,226	1,619	185,888	78,814	107,074
2013	184,817	77,793	107,024	3,638	2,143	1,495	181,179	75,650	105,529
2014	183,389	78,028	105,361	3,705	2,252	1,453	179,684	75,776	103,908
2015	182,424	79,664	102,760	3,858	2,441	1,417	178,566	77,223	101,343

주: 1) 2005년의 경우, 강원관광대학이 학내소요로 인해 취업통계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졸업자 수 총계(228,763명)와 다름.

2) 2012년의 경우, 성화대학이 폐교조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통계조사에는 응하였기 때문에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졸업자 수 총계(188,468명)와 다름.

3) 2014년의 경우, 벽성대학교가 취업통계조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졸업자 수 총계(183,557명)와 다름.

출처: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80~2015), 교육통계연보

2)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

■ 표 I-2-13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졸업자 수(2015)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82,424	79,664	102,760	3,858	2,441	1,417	178,566	77,223	101,343
수도권	소계	79,638	33,193	46,445	318	238	80	79,320	32,955	46,365
	인문	4,621	1,087	3,534	22	7	15	4,599	1,080	3,519
	사회	22,737	7,528	15,209	80	68	12	22,657	7,460	15,197
	교육	4,335	95	4,240	12	1	11	4,323	94	4,229
	공학	19,744	16,137	3,607	131	125	6	19,613	16,012	3,601
	자연	5,489	2,063	3,426	—	—	—	5,489	2,063	3,426
	의약	5,409	1,134	4,275	28	12	16	5,381	1,122	4,259
	예·체능	17,303	5,149	12,154	45	25	20	17,258	5,124	12,134
비수도권	소계	102,786	46,471	56,315	3,540	2,203	1,337	99,246	44,268	54,978
	인문	1,858	661	1,197	—	—	—	1,858	661	1,197
	사회	29,221	10,764	18,457	712	317	395	28,509	10,447	18,062
	교육	5,628	176	5,452	196	19	177	5,432	157	5,275
	공학	22,048	19,505	2,543	1,194	1,064	130	20,854	18,441	2,413
	자연	8,512	4,403	4,109	832	548	284	7,680	3,855	3,825
	의약	21,948	5,664	16,284	214	115	99	21,734	5,549	16,185
	예·체능	13,571	5,298	8,273	392	140	252	13,179	5,158	8,02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이하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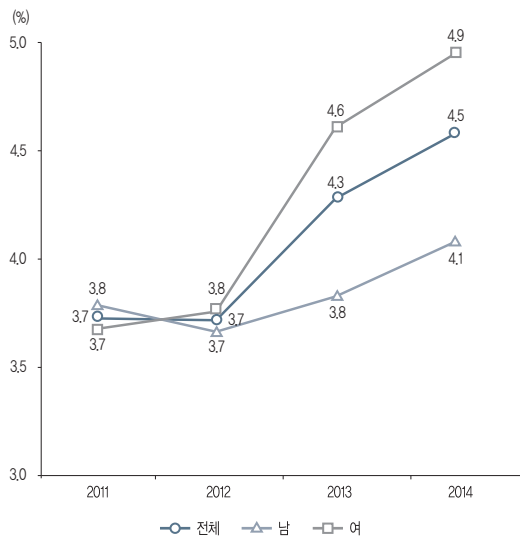
5) 진학률·취업률

① 진학률

전문대학의 진학률 및 취업률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및 국세DB와 연계해 조사된 취업통계 DB에서 산정되며,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되는 교육기본통계와는 달리 전년도 12월 31일을 조사 기준일로 한다. 이때 조사 대상이 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는 전년도 2월 및 전전년도 8월 졸업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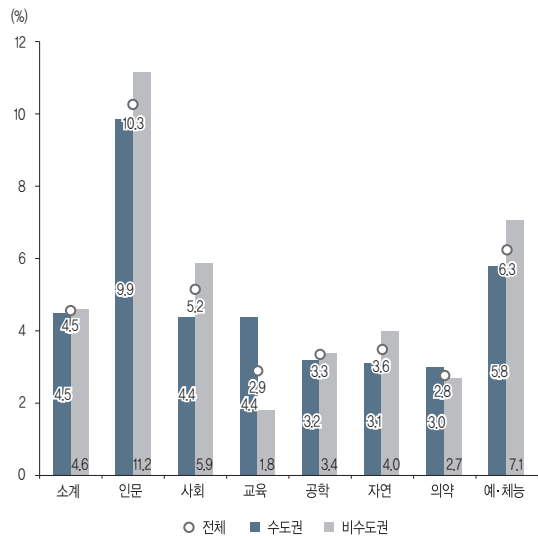
[그림 I-2-13]에 따르면, 전문대학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 3.7%에서 2014년에는 4.5%로 증가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자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 3.8%에서 2014년 4.1%로 약 0.3%p 증가한 반면, 여자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 3.7%에서 2014년 4.9%로 약 1.2%p 증가해 여자 졸업자의 진학률이 남자 졸업자의 진학률 보다 약 0.8%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공립(4.0%) 보다 사립(4.6%)의 진학률이 약 0.6%p 더 높았다(〈표 I-2-14〉 참조).

계열별로 2014년 전문대학 졸업자의 진학률을 살펴보면 [그림 I-2-14]와 같다. 전체 계열 중 인문계열 졸업자의 진학률이 10.3%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계열 졸업자의 진학률(6.3%)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사회계열 졸업자(5.2%)의 진학률도 5%를 넘었다. 그 외 계열의 진학률은 자연계열 3.6%, 공학계열이 3.3%, 교육계열이 2.9%, 의약계열이 2.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문대학 모두 인문계열 졸업자의 진학률이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의 경우 의약계열(3.0%), 비수도권은 교육계열(1.8%)의 진학률이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문대학의 진학률 순위는 인문계열(9.9%), 예·체능계열(5.8%), 사회계열·교육계열(4.4%), 공학계열(3.2%), 자연계열(3.1%), 의약계열(2.7%) 순이었으며, 비수도권은 인문계열(11.2%), 예·체능계열(7.1%), 사회계열(5.9%), 자연계열(4.0%), 공학계열(3.4%), 의약계열(2.9%) 순이었다. 한편, 교육, 의약계열을 제외 한 나머지 계열에서 비수도권 졸업자의 진학률이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 그림 I-2-13 ■ 연도별 성별 진학률(2011~2014)

주: 〈표 I-2-14〉 참조.



■ 그림 I-2-14 ■ 지역별 계열별 진학률(2014)

주: 〈표 I-2-15〉 참조.

② 취업률

전문대학 졸업자의 연도별 취업률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I-2-15]와 같다. 2011년 67.8%에서 2012년 68.1%로 약간 상승한 뒤 2014년 67.8%로 다시 하락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0.1%p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전문대학 졸업자의 남녀 취업률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2011년 68.3%에서 2014년 67.5%로 약 0.8%p 감소한 반면, 여자는 2011년 67.3%에서 2014년 68.0%로 약 0.7%p 증가하였다. 2011년 이래로 1%p 이내의 차이로 남자의 취업률이 더 높았으나, 2014년에는 여자의 취업률이 남자보다 약 0.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2-16]에서 2014년 전문대학 취업률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교육계열이 84.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의약계열 78.8%, 공학계열 69.4%, 사회계열 64.9%, 자연계열 61.2%, 예·체능계열 59.1%, 인문계열 56.0%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자 졸업자와 남자 졸업자 모두 교육계열이 각각 85.2%, 74.0%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취업률을 보면, 수도권에 위치한 전문대학이 66.7%, 비수도권 전문대학이 68.7%로 비수도권의 취업률이 수도권보다 약 2.0%p 더 높았다. 또한 지역별로 계열별 및 성별 취업률 차이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인문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에서 남자 졸업자의 취업률이 여자보다 높았으나, 비수도권에서는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이 높았다([그림 I-2-17, 18] 참조).

설립별로 보면, 2011년 이후 매년 국·공립보다 사립의 전문대학 취업률이 더 높았는데, 국·공립의 경우 2011년 67.5%에서 2014년 63.1%로 약 4.4%p 하락하였다. 반면 사립은 2011년 67.8%에서 2014년 67.9%로 약 0.1%p 증가하였다. 2011년 약 0.3%p였던 이들 간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추세를 보이며, 2014년 국·공립과 사립의 취업률 차이는 약 4.8%p로 나타났다(<표 I-2-16> 참조). 아울러 지역별 전문대학 취업률을 설립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사립이 국·공립보다 10.4%p 높은 66.8%의 취업률을 보였다. 비수도권에서도 사립의 취업률이 68.8%로 국·공립보다 약 4.3%p 높아,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설립별 취업률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공립 전문대학 졸업자가 없는 인문계열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수도권에서는 교육계열, 의약계열에서 국·공립의 취업률이 사립보다 높았고, 비수도권에서는 자연계열, 예·체능계열에서 국·공립이 사립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그림 I-2-19, 20] 참조).

I. 전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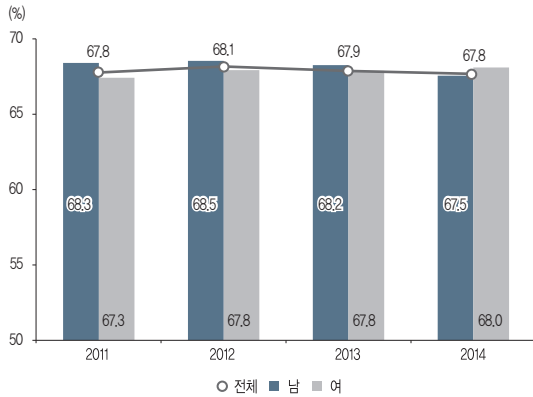


그림 I-2-15 연도별 성별 취업률(2011~2014)

주: <표 I-2-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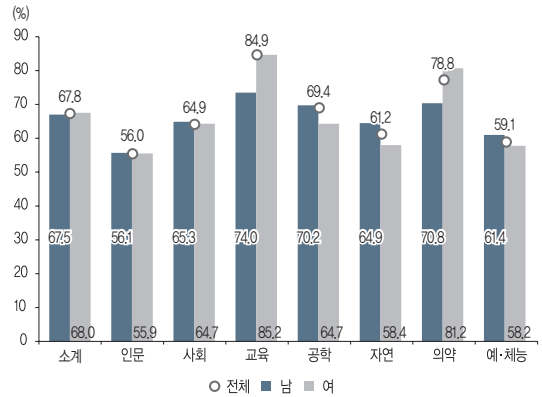


그림 I-2-16 계열별 성별 취업률(2014)

주: <표 I-2-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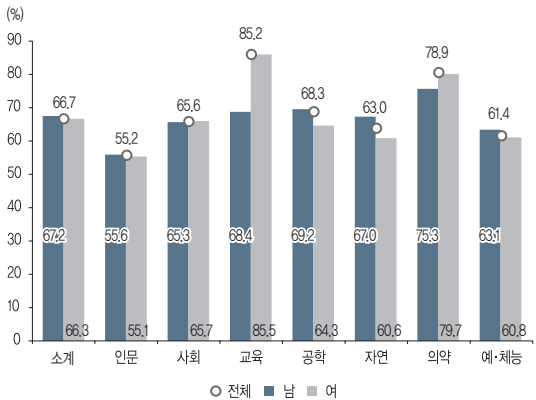


그림 I-2-17 수도권 계열별 성별 취업률(2014)

주: <표 I-2-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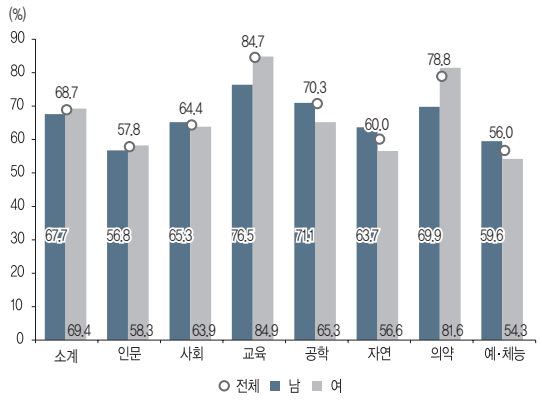


그림 I-2-18 비수도권 계열별 성별 취업률(2014)

주: <표 I-2-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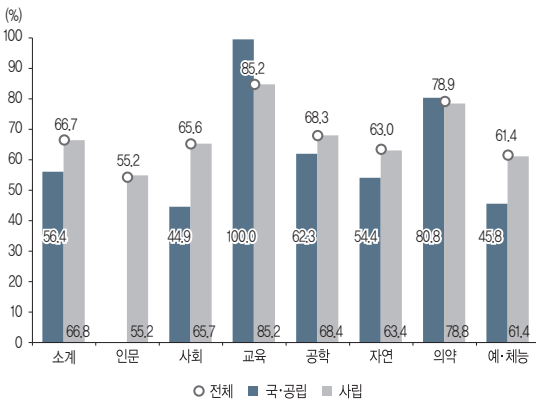


그림 I-2-19 수도권 계열별 설립별 취업률(2014)

주: <표 I-2-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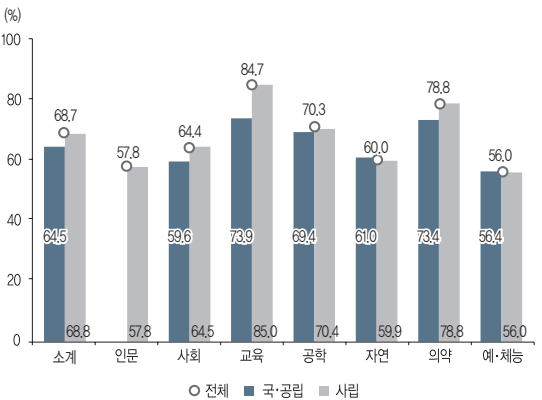


그림 I-2-20 비수도권 계열별 설립별 취업률(2014)

주: <표 I-2-17> 참조.

■ 표 I-2-14 ■ 연도별 설립별 성별 진학률(2011~2014)

(단위: %)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1	3.7	3.8	3.7	3.4	3.2	3.6	3.7	3.8	3.7
2012	3.7	3.7	3.8	3.8	3.8	3.7	3.7	3.7	3.8
2013	4.3	3.8	4.6	4.2	3.6	4.9	4.3	3.8	4.6
2014	4.5	4.1	4.9	4.0	3.4	5.0	4.6	4.1	4.9

주: 진학률=(진학자 수/당해 연도 졸업자 수) × 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이하 동일).

■ 표 I-2-15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진학률(2014)

(단위: %)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전체	4.5	4.1	4.9	4.0	3.4	5.0	4.6	4.1	4.9
	인문	10.3	10.1	10.4	—	—	—	10.3	10.1	10.4
	사회	5.2	4.9	5.4	4.4	3.4	5.2	5.3	4.9	5.4
	교육	2.9	3.6	2.9	2.8	0.0	3.1	2.9	3.7	2.9
	공학	3.3	2.9	5.5	4.9	4.6	7.0	3.2	2.8	5.5
	자연	3.6	2.1	4.9	2.2	1.1	4.1	3.7	2.2	4.9
	의약	2.8	3.4	2.6	3.6	1.9	5.6	2.8	3.4	2.6
	예·체능	6.3	7.3	5.9	5.0	4.5	5.2	6.4	7.4	5.9
수도권	소계	4.5	3.7	5.1	1.8	1.5	3.0	4.5	3.7	5.1
	인문	9.9	9.1	10.2	—	—	—	9.9	9.2	10.2
	사회	4.4	4.1	4.5	1.2	1.6	0.0	4.4	4.1	4.6
	교육	4.4	4.3	4.4	0.0	0.0	0.0	4.4	4.3	4.4
	공학	3.2	2.7	5.7	4.4	4.5	0.0	3.2	2.6	5.7
	자연	3.1	1.8	4.1	0.0	0.0	0.0	3.4	2.1	4.1
	의약	3.0	3.8	2.8	6.5	0.0	16.7	3.0	3.9	2.8
	예·체능	5.8	6.1	5.6	5.6	4.5	6.3	5.8	6.1	5.6
비수도권	소계	4.6	4.3	4.7	4.6	4.1	5.2	4.6	4.3	4.7
	인문	11.2	11.5	11.0	—	—	—	11.2	11.5	11.0
	사회	5.9	5.4	6.2	4.7	3.8	5.4	5.9	5.5	6.2
	교육	1.8	3.2	1.8	3.0	0.0	3.2	1.8	3.4	1.7
	공학	3.4	3.0	5.4	5.0	4.7	7.2	3.3	3.0	5.3
	자연	4.0	2.3	5.5	4.1	2.9	5.2	4.0	2.2	5.6
	의약	2.7	3.3	2.6	3.0	2.3	3.8	2.7	3.3	2.6
	예·체능	7.1	8.5	6.2	4.9	4.5	5.0	7.1	8.6	6.2

■ I. 전문대학 ■

■ 표 I-2-16 ■ 연도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1~2014)

(단위: %)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1	67.8	68.3	67.3	67.5	69.4	64.9	67.8	68.3	67.4
2012	68.1	68.5	67.8	67.0	69.1	64.4	68.1	68.4	67.9
2013	67.9	68.2	67.8	66.2	67.2	64.8	68.0	68.2	67.8
2014	67.8	67.5	68.0	63.1	65.1	60.5	67.9	67.5	68.1

- 주: 1) 취업자 정의 : 조사기준일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 교내취업자(2014년 기준):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학교법인 및 관련 기관(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에 1년 이상 계약한 자로서, 최저임금(2014년 : 1,088,890원, 2015년 : 1,166,220원) 이상의 월 급여를 받는 자.
 - 해외취업자: 조사 기준일 당시 해외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
 - 농림어업종사자: 조사 기준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
 - 개인창업활동종사자: 조사 기준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개인작품 창작활동을 하는 자.
 - 1인 창(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2014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인 자.
 - 프리랜서: 2014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액이 3,266,670원 이상인 자.
 2) 취업률을 구하는 방식은 연도에 따라 조금씩 변화여 왔음.

연도	취업률	취업자	취업대상자
2011~2013	$\frac{\text{취업자}}{\text{취업대상자}} \times 10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201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 취업불가능자: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를 포함함.
 - 제외인정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을 포함함.
 - 외국인유학생: 외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 및 순수외국인을 포함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이하 동일).

■ 표 I-2-17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4)

(단위: %)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전체	67.8	67.5	68.0	63.1	65.1	60.5	67.9	67.5	68.1
	인문	56.0	56.1	55.9	-	-	-	56.0	56.2	55.9
	사회	64.9	65.3	64.7	58.1	57.1	58.9	65.0	65.5	64.8
	교육	84.9	74.0	85.2	75.3	72.7	75.5	85.1	74.0	85.4
	공학	69.4	70.2	64.7	68.4	68.5	67.8	69.4	70.3	64.7
	자연	61.2	64.9	58.4	58.6	64.5	51.1	61.4	65.0	58.7
	의약	78.8	70.8	81.2	74.4	70.1	79.5	78.8	70.8	81.2
	예·체능	59.1	61.4	58.2	55.1	56.6	54.6	59.2	61.5	58.2
수도권	소계	66.7	67.2	66.3	56.4	58.7	48.8	66.8	67.3	66.4
	인문	55.2	55.6	55.1	-	-	-	55.2	55.7	55.1
	사회	65.6	65.3	65.7	44.9	45.0	44.4	65.7	65.5	65.7
	교육	85.2	68.4	85.5	100.0	0.0	100.0	85.2	68.4	85.5
	공학	68.3	69.2	64.3	62.3	61.3	100.0	68.4	69.3	64.3
	자연	63.0	67.0	60.6	54.4	60.1	37.9	63.4	67.6	61.0
	의약	78.9	75.3	79.7	80.8	82.4	77.8	78.8	75.1	79.7
	예·체능	61.4	63.1	60.8	45.8	52.6	41.4	61.4	63.1	60.8
비수도권	소계	68.7	67.7	69.4	64.5	66.9	61.7	68.8	67.7	69.6
	인문	57.8	56.8	58.3	-	-	-	57.8	56.8	58.3
	사회	64.4	65.3	63.9	59.6	59.7	59.6	64.5	65.5	64.0
	교육	84.7	76.5	84.9	73.9	72.7	74.0	85.0	76.8	85.3
	공학	70.3	71.1	65.3	69.4	69.8	66.9	70.4	71.2	65.2
	자연	60.0	63.7	56.6	61.0	68.5	54.6	59.9	63.5	56.7
	의약	78.8	69.9	81.6	73.4	67.5	79.7	78.8	69.9	81.6
	예·체능	56.0	59.6	54.3	56.4	57.5	56.0	56.0	59.6	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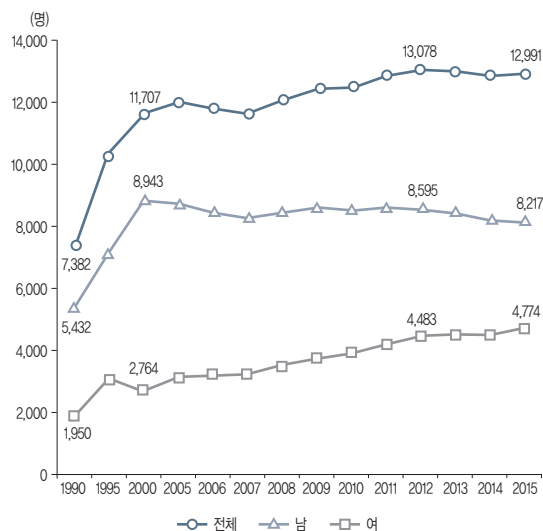
3 교원

1) 교원의 구성

전문대학의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2년까지 전임교원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전임강사제’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에는 전임강사를 제외한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된다. 한편 비전임교원에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명예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기타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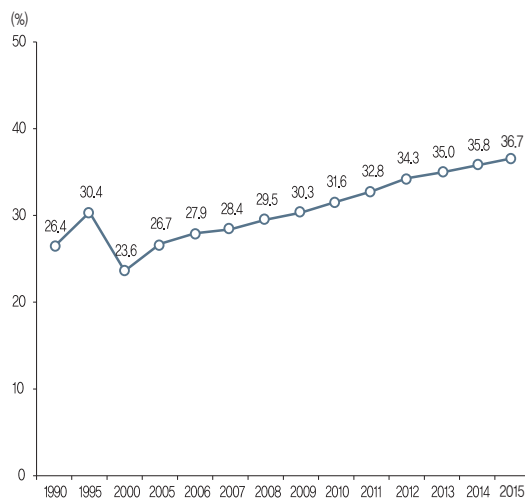
[그림 I-3-1]을 통해 전문대학 전임교원 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7,382명에서 2005년 12,027명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문대학 수 및 전문대 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전임교원 수는 완만한 증감을 보이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71명 증가한 12,991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3-2]에 따르면, 이 기간에 여성 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전임교원 중 26.4%를 차지하던 여성 전임교원 수는 1990년 중반에 30.4%까지 상승했다가 2000년에 23.6%로 감소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5년 전문대학 여성 전임교원 수는 4,774명으로 전체 전임교원 중 3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과 비교해 약 1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전임교원의 경우 1990년 5,432명으로 전임교원 중 73.6%를 차지하였으며, 2000년에는 8,943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07년에는 8,366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에는 8,217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전임교원 중 63.3%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 기간 동안 남성 전임교원은 약 1.5배 정도 증가에 그친 반면, 여성 전임교원은 약 2.4배가량 크게 증가하였다 (<표 I-3-1> 참조).



■ 그림 I-3-1 ■ 연도별 성별 전임교원 수(1990~2015)

주: <표 I-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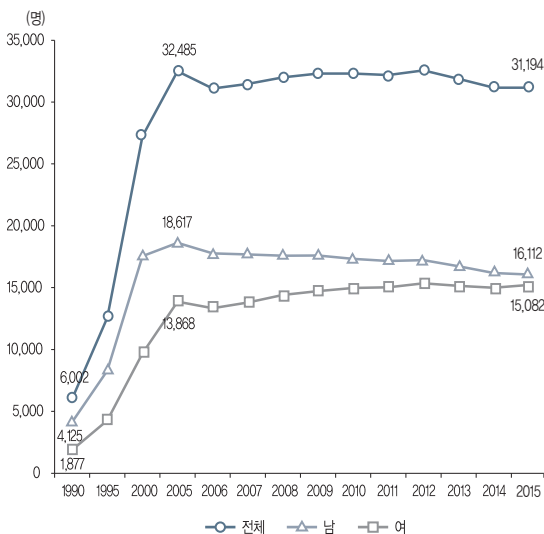
■ 그림 I-3-2 ■ 연도별 전임 여교원 비율(1990~2015)

주: <표 I-3-1> 참조.

■ I. 전문대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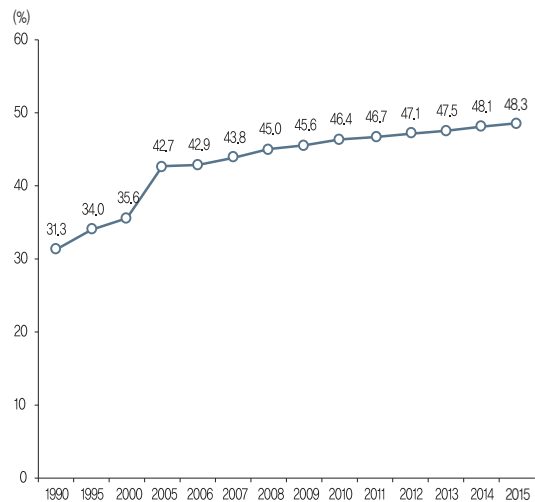
전문대학 전임교원의 증가 규모와 비교할 때, 같은 기간 비전임교원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I-3-3]을 통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비전임교원은 1990년 6,002명에서 2005년 32,485명까지 큰 폭으로 증가한 뒤 이후로는 완만한 증감을 보였으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31명 증가한 31,19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과 비교하였을 때 약 5.2배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성별로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여전히 비전임 남교원의 수가 여교원 수 보다 많지만, 그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이래로 비전임 남교원의 수는 약 3.9배 정도 증가한 반면, 비전임 여교원은 약 8.0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림 I-3-4]에 의하면, 1990년부터 비전임 교원 중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31.3%였던 비전임 여교원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48.3%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으며, 이는 1990년 대비 약 17%p 증가한 수치이다.



■ 그림 I-3-3 ■ 연도별 성별 비전임교원 수(1990~2015)

주: <표 I-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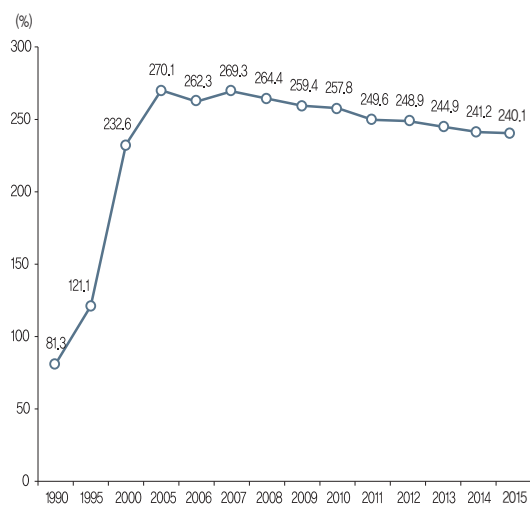
■ 그림 I-3-4 ■ 연도별 비전임 여교원 비율(1990~2015)

주: <표 I-3-1> 참조.

1990년 대비 2015년 전문대학의 전임교원은 1.8배, 비전임교원은 5.2배 증가하였으며,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도 높아졌다. [그림 I-3-5]에 의하면, 1990년 전임교원 대비 81.3%에 불과하던 비전임교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임교원 수를 추월하였다. 2005년에는 전임교원의 2.7배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그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2015년 비전임교원의 수가 전임교원보다 2.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문대학 전체 교원수의 증가가 비전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여교원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990년 비전임 여교원이 1,877명으로 전임 여교원 1,950명과 비슷한 규모였으나, 2007년에는 비전임 여교원이 전임 여교원의 4.2배로 나타났다.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15년에는 3.2배 정도에 그쳤지만,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교원의 경우에는 1990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이 75.9%였으나, 2005년 2.1배까지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약 2.0배 전후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전임 남교원 보다 비전임 남교원이 2.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교원(3.2배)보다는 작은 격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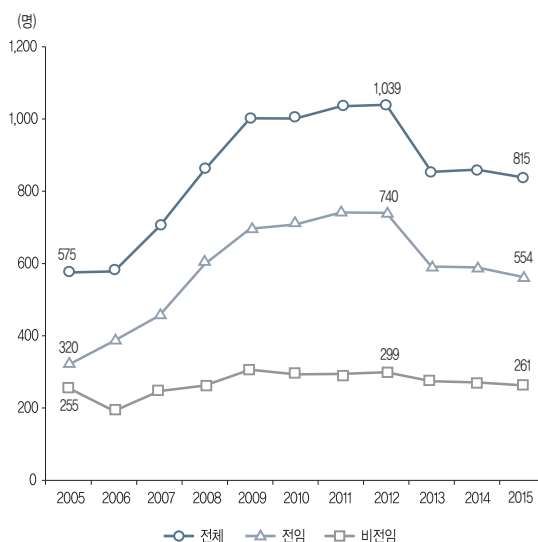
설립별로 살펴보면, 2010년까지는 국·공립 보다 사립의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2011년부터는 국·공립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 전문대학 여교원의 경우, 전임 여교원이 감소하여 2015년 54명에 불과한데 반하여, 비전임 여교원은 2010년 이후 거의 매년 증가해 전임 여교원의 5.9배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15년 현재 사립 전문대학의 비전임 여교원은 전임 여교원의 3.1배 정도이다(〈표 I-3-1〉 참조).

[그림 I-3-6]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외국인 교원은 2005년에 575명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1,039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45명이 줄어든 815명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교원 중 외국인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3%에서 2012년에는 2.3%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1.8%로 나타났다. 외국인 교원 중 전임과 비전임 교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 전체 외국인 교원 중 비전임 교원의 비율은 44.3%였으나 다음해에는 약 11.1%p 하락하였고,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1년에는 28.4%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32.0%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5년에 비해 약 12.3%p 감소한 수치이다(〈표 I-3-3〉 참조).



■ 그림 I-3-5 ■ 연도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1990~2015)

주: 〈표 I-3-1〉 참조.



■ 그림 I-3-6 ■ 연도별 외국인 교원 수(2005~2015)

주: 〈표 I-3-3〉 참조.

■ I. 전문대학 ■

■ 표 I-3-1 ■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교원 수(1990~2015)

(단위: 명)

	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90	7,382	5,432	1,950	958	863	95	6,424	4,569	1,855
1995	10,384	7,232	3,152	602	459	143	9,782	6,773	3,009
2000	11,707	8,943	2,764	740	601	139	10,967	8,342	2,625
2005	12,027	8,813	3,214	651	513	138	11,376	8,300	3,076
2006	11,857	8,543	3,314	598	487	111	11,259	8,056	3,203
2007	11,685	8,366	3,319	515	438	77	11,170	7,928	3,242
2008	12,100	8,531	3,569	457	377	80	11,643	8,154	3,489
2009	12,451	8,675	3,776	458	379	79	11,993	8,296	3,697
2010	12,530	8,575	3,955	305	251	54	12,225	8,324	3,901
2011	12,891	8,667	4,224	333	279	54	12,558	8,388	4,170
2012	13,078	8,595	4,483	308	258	50	12,770	8,337	4,433
2013	13,015	8,465	4,550	316	265	51	12,699	8,200	4,499
2014	12,920	8,299	4,621	315	264	51	12,605	8,035	4,570
2015	12,991	8,217	4,774	322	268	54	12,669	7,949	4,720

	비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90	6,002	4,125	1,877	171	126	45	5,831	3,999	1,832
1995	12,574	8,298	4,276	298	200	98	12,276	8,098	4,178
2000	27,235	17,541	9,694	1,432	1,054	378	25,803	16,487	9,316
2005	32,485	18,617	13,868	1,401	998	403	31,084	17,619	13,465
2006	31,097	17,770	13,327	1,259	866	393	29,838	16,904	12,934
2007	31,472	17,678	13,794	1,151	809	342	30,321	16,869	13,452
2008	31,990	17,586	14,404	1,094	755	339	30,896	16,831	14,065
2009	32,304	17,588	14,716	1,097	760	337	31,207	16,828	14,379
2010	32,297	17,325	14,972	732	470	262	31,565	16,855	14,710
2011	32,182	17,158	15,024	832	537	295	31,350	16,621	14,729
2012	32,553	17,212	15,341	869	555	314	31,684	16,657	15,027
2013	31,879	16,730	15,149	857	550	307	31,022	16,180	14,842
2014	31,163	16,173	14,990	882	566	316	30,281	15,607	14,674
2015	31,194	16,112	15,082	881	563	318	30,313	15,549	14,764

주: 1) 2012년까지는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됨.
 2) 2013년부터는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3) 비전임교원에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명예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기타 등이 포함됨.

■ 표 I-3-2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전임교원 수(2015)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2,991	8,217	4,774	322	268	54	12,669	7,949	4,720
수도권	소계	5,352	3,382	1,970	56	38	18	5,296	3,344	1,952
	인문	279	137	142	4	2	2	275	135	140
	사회	1,307	885	422	14	9	5	1,293	876	417
	교육	274	55	219	4	2	2	270	53	217
	공학	1,450	1,297	153	8	6	2	1,442	1,291	151
	자연	365	200	165	-	-	-	365	200	165
	의약	491	146	345	7	6	1	484	140	344
	예·체능	1,144	627	517	18	12	6	1,126	615	511
	소속학과없음	42	35	7	1	1	0	41	34	7
비수도권	소계	7,639	4,835	2,804	266	230	36	7,373	4,605	2,768
	인문	155	107	48	10	9	1	145	98	47
	사회	1,623	1,215	408	48	44	4	1,575	1,171	404
	교육	460	132	328	13	8	5	447	124	323
	공학	1,694	1,570	124	87	84	3	1,607	1,486	121
	자연	505	338	167	51	48	3	454	290	164
	의약	2,169	834	1,335	24	15	9	2,145	819	1,326
	예·체능	946	566	380	26	15	11	920	551	369
	소속학과없음	87	73	14	7	7	0	80	66	14

주: 전임교원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 표 I-3-3 ■ 연도별 설립별 외국인 교원 수(2005~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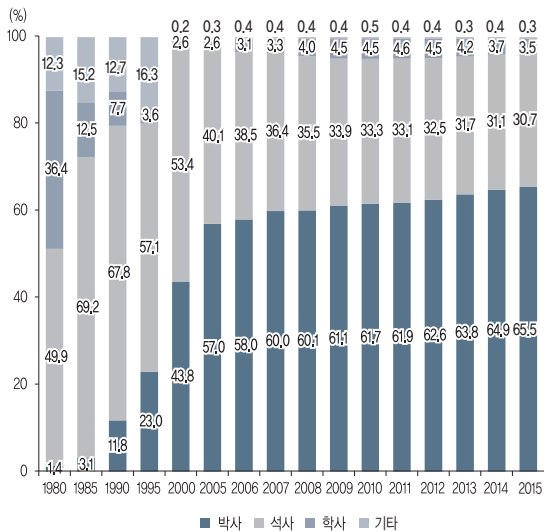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전임	비전임	소계	전임	비전임	소계	전임	비전임
2005	575	320	255	6	-	6	569	320	249
2006	578	386	192	17	1	16	561	385	176
2007	703	456	247	15	-	15	688	456	232
2008	860	598	262	20	-	20	840	598	242
2009	1,002	696	306	28	-	28	974	696	278
2010	1,001	708	293	7	-	7	994	708	286
2011	1,035	741	294	7	-	7	1,028	741	287
2012	1,039	740	299	5	-	5	1,034	740	294
2013	984	675	309	7	-	7	977	675	302
2014	860	589	271	8	-	8	852	589	263
2015	815	554	261	8	-	8	807	554	25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I. 전문대학

2) 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

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은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기타로 구분된다. 기타에는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 사유로 정식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교원, 곧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가 없는 교원이 포함된다.



■ 그림 I-3-7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198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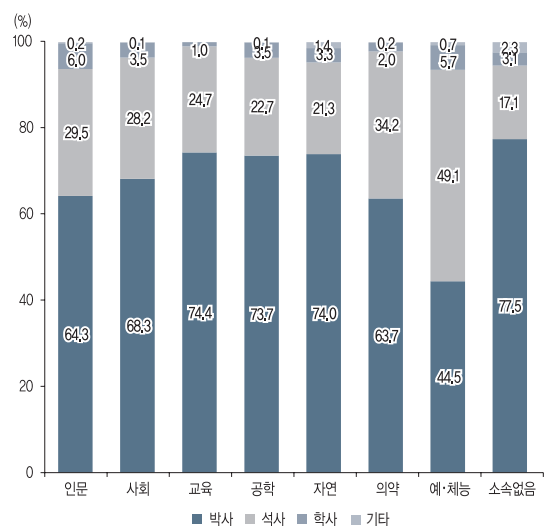
주: <표 I-3-4> 참조.

년대 후반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전문대학에서는 산업체 현장 경력을 중시해 현장 경력이 많은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경향 때문으로 볼 수 있다(한강희 외, 2010).

2015년 계열별 전임교원의 학위소지 현황은 [그림 I-3-8]에서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박사학위 소지 교원의 비중은 교육계열(74.4%)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자연계열(74.0%)이었으며, 예·체능계열(44.5%)이 가장 낮았다. 석사학위 소지 교원의 비중은 예·체능계열(49.1%)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의약계열(34.2%)이었으며, 자연계열(21.3%)이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학사학위 소지 교원의 비중은 인문계열이 6.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예·체능계열(5.7%)이었으며, 가장 낮은 계열은 교육계열(1.0%)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문대학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65.9%, 석사학위 소지자가 29.9%, 학사학위 소지자가 4.1%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전문대학에서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65.2%, 석사학위 소지자가 31.3%, 학사학위 소지자가 3.0%로 수도권보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중은 약간 낮고, 석사학위 소지자의 비중은 약간 높았다(<표 I-3-5> 참조).

[그림 I-3-7]에서 연도별로 전문대학 전임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을 살펴보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80년에는 석사 또는 학사학위, 기타 전임교원이 전체교원의 9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985년에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4,430명으로 1980년의 2,738명에 비하여 약 1.6배 정도 증가하여 전체 전임교원의 69.2%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후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석사학위 소지 전임교원은 매년 감소하여 2015년에는 30.7%를 차지하였으며, 학사학위 소지 전임교원은 3.5%에 그쳤다. 반면 1980년 77명에 불과하던 박사학위 소지 교원은 2015년 8,509명으로 늘어나 35년 전과 비교하여 110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학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의 경우, 1980년에는 1,998명으로 36.4%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3.5%로 크게 줄었다(<표 I-3-4> 참조). 한편 학사나 석사 학위 소지자의 수가 2000



■ 그림 I-3-8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15)

주: <표 I-3-5> 참조.

■ 표 I-3-4 ■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1980~2015)

(단위: 명)

	전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전체	국내	국외			
1980	5,488	77	55	22	2,738	1,998	675
1985	6,406	201	161	40	4,430	802	973
1990	7,382	872	780	92	5,003	572	935
1995	10,384	2,388	2,188	200	5,925	374	1,697
2000	11,707	5,124	4,767	357	6,257	307	19
2005	12,027	6,858	6,402	456	4,824	311	34
2006	11,857	6,882	6,430	452	4,564	369	42
2007	11,685	7,008	6,534	474	4,251	381	45
2008	12,100	7,271	6,797	474	4,293	487	49
2009	12,451	7,610	7,098	512	4,224	562	55
2010	12,530	7,728	7,223	505	4,174	570	58
2011	12,891	7,978	7,461	517	4,272	591	50
2012	13,078	8,187	7,661	526	4,252	588	51
2013	13,015	8,307	7,802	505	4,123	547	38
2014	12,920	8,382	7,863	519	4,013	479	46
2015	12,991	8,509	7,971	538	3,991	451	40

주: '기타'에는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의 사유로 정식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교원(즉,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가 없는 교원)이 포함됨.

■ 표 I-3-5 ■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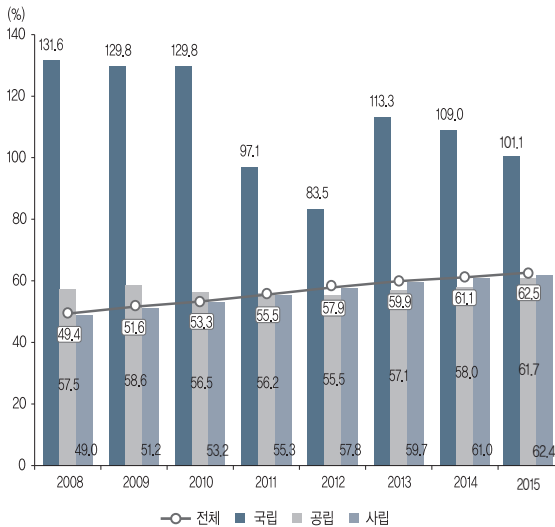
		전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전체	국내	국외			
전체		12,991	8,509	7,971	538	3,991	451	40
수도권	소계	5,352	3,526	3,220	306	1,598	220	8
	인문	279	182	131	51	79	17	1
	사회	1,307	891	841	50	351	64	1
	교육	274	225	196	29	47	2	0
	공학	1,450	1,113	1,030	83	297	40	0
	자연	365	261	244	17	85	16	3
	의약	491	340	327	13	133	18	0
	예·체능	1,144	481	427	54	597	63	3
	소속학과없음	42	33	24	9	9	0	0
비수도권	소계	7,639	4,983	4,751	232	2,393	231	32
	인문	155	97	76	21	49	9	0
	사회	1,623	1,109	1,059	50	474	39	1
	교육	460	321	307	14	134	5	0
	공학	1,694	1,203	1,150	53	418	70	3
	자연	505	383	359	24	100	13	9
	의약	2,169	1,354	1,318	36	776	34	5
	예·체능	946	449	431	18	429	57	11
	소속학과없음	87	67	51	16	13	4	3

주: '기타'에는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의 사유로 정식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교원(즉,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가 없는 교원)이 포함됨.

4 학습 환경 및 여건

1) 전임교원 현황

① 전임교원 확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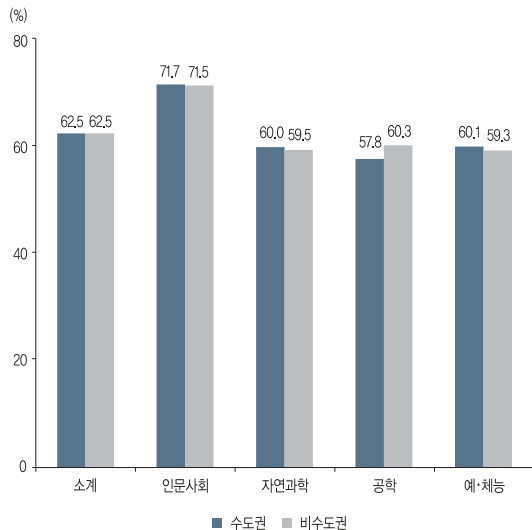
■ 그림 I-4-1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5)

주: <표 I-4-1> 참조.

기 때문에 국·공립 전문대학에서의 전임교원 확보율 변화 추이가 전체 변화 양상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립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5년 62.4%로 전체 전임교원 확보율 추이와 비슷한 변동률을 보였으며, 2008년 대비 약 13.4%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국립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그림 I-4-2]를 통해 전임교원 확보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62.5%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인문사회계열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의 경우, 인문사회계열(71.7%), 예·체능계열(60.1%), 자연과학계열(60.0%), 공학계열(57.8%) 순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았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인문사회계열(71.5%), 공학계열(60.3%), 자연과학계열(59.5%), 예·체능계열(59.3%) 순으로 높았다.

[그림 I-4-1]은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전문대학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평가지표로서 뿐만 아니라, 3~4년제 학과 운영이나 산업체 위탁, 전공심화과정 운영의 조건 지표로도 활용되어 왔다(한강희 외, 2010). 따라서 전문대학들은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결과 2008년 49.4%에 머물렀던 전임교원 확보율이 2015년 62.5%까지 높아져, 2008년 대비 약 13.1%p 증가하였다. 그러나 설립별로 살펴보면, 같은 시기 국립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2008년에 131.6%였던 것에 반해 2015년 101.1%로 오히려 약 30.5%p 낮아졌으며, 공립 전문대학은 2008년 57.5%에서 2015년 61.7%로 약 4.2%p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공립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추이는 전반적인 추세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문대학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현재 6.5%에 불과할 만큼 작



■ 그림 I-4-2 ■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율(2015)

주: <표 I-4-2> 참조.

■ 표 I-4-1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5)

(단위: %)

	전체	국립	공립	사립
2008	49.4	131.6	57.5	49.0
2009	51.6	129.8	58.6	51.2
2010	53.3	129.8	56.5	53.1
2011	55.5	97.1	56.2	55.3
2012	57.9	83.5	55.5	57.8
2013	59.9	113.3	57.1	59.7
2014	61.1	109.0	58.0	61.0
2015	62.5	101.1	61.7	62.4

주: 1) 2012년까지는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되며, 2013년부터는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단, 소속학과가 없는 전임교원의 수는 제외됨.

2) 전임교원 확보율(편제정원 기준)=[전임교원수/교원법정정원(편제정원 기준)]×100

3) 교원법정정원: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의 별표5와 제2항에 근거하여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편제정원별)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산출함.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의 별표5

대계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약
교원 1인당 학생 수	25	20	20	20	8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 수를 말한다.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대학의 학생 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 3) 대학원 대학: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 수

4)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잔여학생이 남아있는 폐교가 포함됨. 2011년에는 김천대학, 서울보건대학, 우송공업대학, 인천전문대학 등이 포함되고, 2012년에는 적십자간호대학과 한국철도대학이 포함됨.

■ 표 I-4-2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15)

(단위: %)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전체	62.5	101.1	61.7	62.4
수도권	소계	62.5	-	62.1
	인문사회	71.7	-	71.0
	자연과학	60.0	-	59.6
	공학	57.8	-	57.6
	예·체능	60.1	-	59.3
비수도권	소계	62.5	55.9	61.7
	인문사회	71.5	-	69.2
	자연과학	59.5	55.9	57.8
	공학	60.3	-	60.9
	예·체능	59.3	-	58.3

주: 1) <표 I-4-1>의 주 1)~4) 참조

2)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약 등의 5대 계열 구분(‘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1>에 의함)을 따름.

- 인문사회계열: 어학, 문학, 사회 및 신학 등
- 자연과학계열: 이학, 해양, 농학, 수산, 간호, 보건, 약학 및 한약학 등(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됨)
- 공학계열: 공학 등
- 예·체능계열: 음악, 미술, 체육 및 무용 등
- 의학계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및 수의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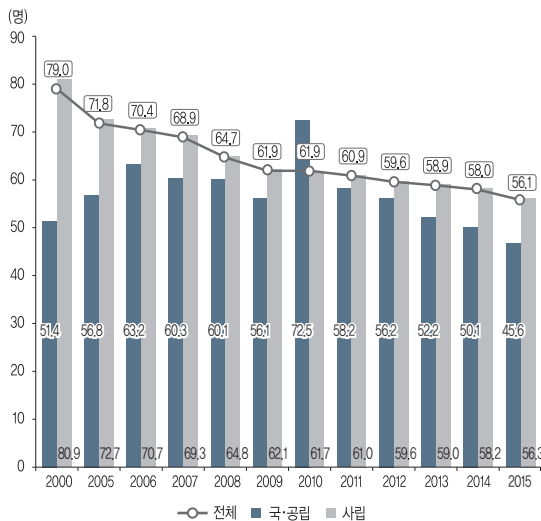
3) 단, 전문대학에는 의학계열 없음.

■ I. 전문대학 ■

②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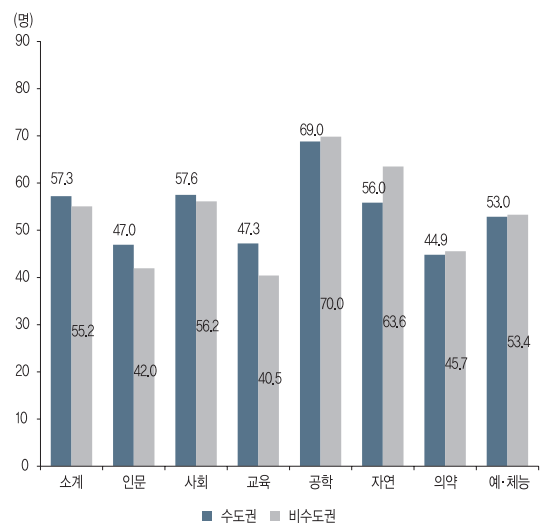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재적 학생수를 전임교원 수로 나눈 값으로 학급당 학생수와 더불어 교육여건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그림 I-4-3]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보여준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2000년 79.0명에서 2015년에는 56.1명까지 감소하였다. 특히 국·공립보다는 사립 전문대학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국·공립의 경우 2000년 51.4명이었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006년 63.2명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2007년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72.5명까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사립보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더 많았다. 그러나 다시 감소하면서 2015년에는 45.6명까지 줄었다. 반면, 사립의 경우 2000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80.9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56.3명으로, 15년 동안 약 24.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립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공립 전문대학의 여건이 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57.3명, 비수도권은 55.2명으로 약 2.1명의 차이로 수도권이 더 많았다. 이를 설립별로 보면, 수도권에 위치한 국·공립 전문대학은 16.6명, 사립은 57.8명,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국·공립은 51.8명, 사립은 55.3명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국·공립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다른 곳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4-4> 참조). 그러나 수도권의 국·공립 전문대학이 1개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평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표 I-1-2> 참조). [그림 I-4-4]에서 계열별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의약계열 44.9명, 인문계열 47.0명, 교육계열 47.3명, 예·체능계열 53.0명, 자연계열 56.0명, 사회계열 57.6명 순이었으며, 공학계열은 69.0명으로 다른 계열에 비해 가장 많았다. 비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공학계열이 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연계열이 63.6명으로 많았다.



■ 그림 I-4-3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00~2015)

주: <표 I-4-3> 참조.



■ 그림 I-4-4 ■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15)

주: <표 I-4-4> 참조.

■ 표 I-4-3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00~2015)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2000	79.0	51.4	80.9
2005	71.8	56.8	72.7
2006	70.4	63.2	70.7
2007	68.9	60.3	69.3
2008	64.7	60.1	64.8
2009	61.9	56.1	62.1
2010	61.9	72.5	61.7
2011	60.9	58.2	61.0
2012	59.6	56.2	59.6
2013	58.9	52.2	59.0
2014	58.0	50.1	58.2
2015	56.1	45.6	56.3

주: 1) 총장 및 소속학과가 없는 전임교원 수는 제외됨.
2)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재적 학생 수/전임교원 수

■ 표 I-4-4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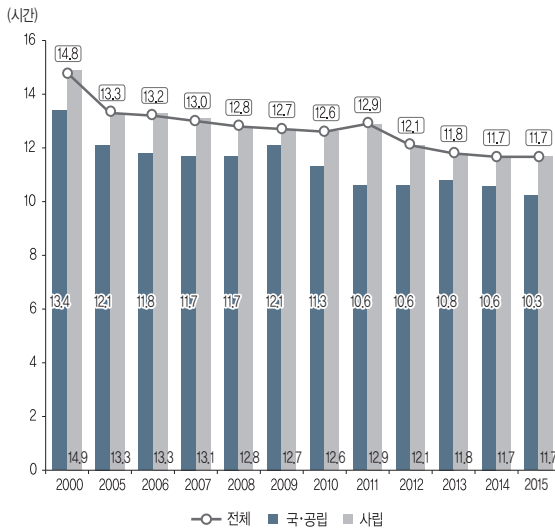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56.1	45.6	56.3
수도권	소계	57.3	57.8
	인문	47.0	47.5
	사회	57.6	58.1
	교육	47.3	47.8
	공학	69.0	69.1
	자연	56.0	56.0
	의약	44.9	45.3
	예·체능	53.0	53.6
비수도권	소계	55.2	55.3
	인문	42.0	44.4
	사회	56.2	56.4
	교육	40.5	40.4
	공학	70.0	70.3
	자연	63.6	64.6
	의약	45.7	45.8
	예·체능	53.4	53.7

주: 1) 총장 및 소속학과가 없는 전임교원 수는 제외됨.
2)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재적 학생 수/전임교원 수

■ I. 전문대학 ■

③ 전임교원의 강의 현황



■ 그림 I-4-5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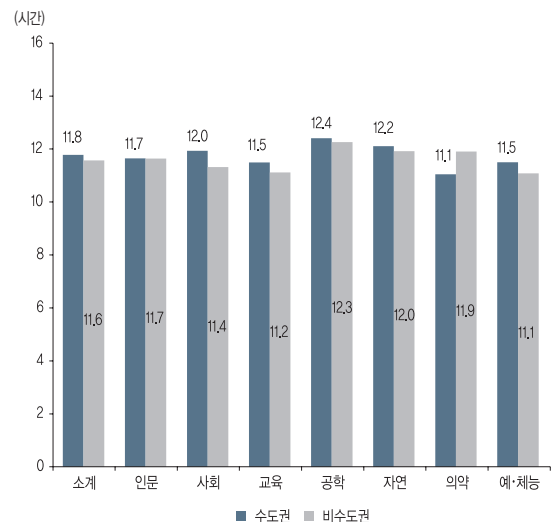
주: <표 I-4-5> 참조.

사립 전문대학도 2000년 14.9시간에서 2015년 11.7시간으로 3.2시간 정도 줄어, 지난 10여 년 동안 국·공립과 사립 전문대학 모두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국·공립과 사립간 격차는 2000년 1.5시간에서 2009년 0.6시간까지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그 격차가 다시 2.3시간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2000년과 비슷한 1.4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전히 사립 전문대학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국·공립보다 약 1시간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4-6]에 따라 2015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주당 11.8시간, 비수도권에서는 11.6시간으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공학계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각각 12.4시간, 12.3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수업시간이 가장 적은 계열은 수도권에서는 의약계열(11.1시간)이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예·체능계열(11.1시간)이었다.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는 전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의 합을 전체 전임교원 수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교원의 근무여건을 파악하는 주요지표 중 하나이다. [그림 I-4-5]를 보면, 전문대학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2000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은 14.8시간이었으나 2005년 13.3시간으로 줄어들었고, 2008년에는 12시간대로 줄어들었다. 2012년까지 12시간대가 계속 유지되다가 2013년부터 11시간대로 줄어들어 2015년에는 11.7시간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임교원 수는 같은 기간동안 2000년 11,707명에서 2015년 12,991명으로 10% 정도 증가하였는데 반해(<표 I-3-1> 참조), 주당 수업시간은 21% 정도 감소하였다.

[그림 I-4-5]를 통해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전문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2000년 13.4시간에서 2015년 10.3시간으로 약 3.1시간 줄었다.



■ 그림 I-4-6 ■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15)

주: <표 I-4-6> 참조.

■ 표 I-4-5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00~2015)

(단위: 시간)

	전체	국·공립	사립
2000	14.8	13.4	14.9
2005	13.3	12.1	13.3
2006	13.2	11.8	13.3
2007	13.0	11.7	13.1
2008	12.8	11.7	12.8
2009	12.7	12.1	12.7
2010	12.6	11.3	12.6
2011	12.9	10.6	12.9
2012	12.1	10.6	12.1
2013	11.8	10.8	11.8
2014	11.7	10.6	11.7
2015	11.7	10.3	11.7

주: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전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의 합/전체 전임교원 수

■ 표 I-4-6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15)

(단위: 시간)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11.7	10.3	11.7
수도권	소계	11.8	11.8
	인문	11.7	11.7
	사회	12.0	12.0
	교육	11.5	11.6
	공학	12.4	12.5
	자연	12.2	12.2
	의약	11.1	11.1
	예·체능	11.5	11.6
	소속학과없음	1.1	1.1
비수도권	소계	11.6	11.7
	인문	11.7	11.7
	사회	11.4	11.4
	교육	11.2	11.2
	공학	12.3	12.4
	자연	12.0	12.0
	의약	11.9	12.0
	예·체능	11.1	11.1
	소속학과없음	0.2	0.2

주: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전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의 합/전체 전임교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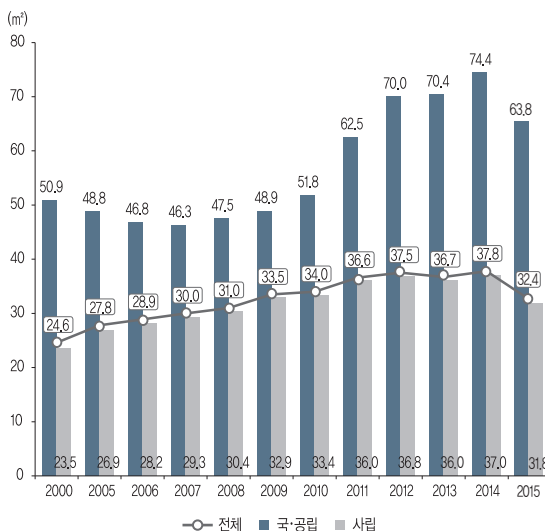
■ I. 전문대학 ■

2) 시설 현황

전문대학의 시설여건을 알아보기 위해 교지면적 및 교사면적과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았다. 교지면적은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값으로 이를 재적 학생 수로 나누면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먼저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 24.6㎡에서 2014년 37.8㎡로 약 1.5배 증가했으나 2015년에는 전년 대비 5.4㎡ 감소한 32.4㎡로 나타났다. 설립별로 보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공립의 교지면적이 사립 보다 약 1.5~2.2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4-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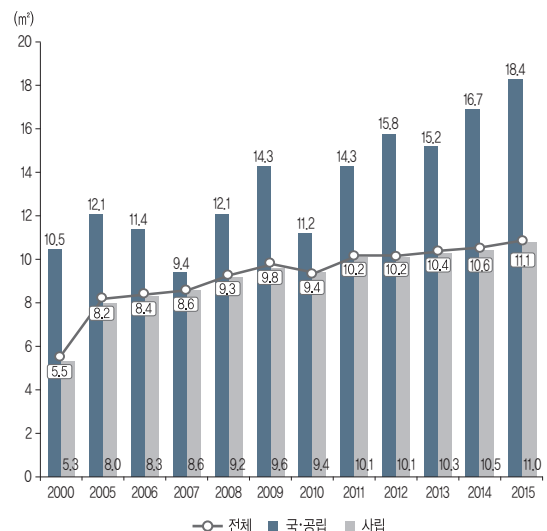
교사면적은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특수시설, 기숙시설, 계열별 부속시설, 기타시설 등을 합한 면적이다. [그림 I-4-8]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교사면적은 2000년 5.5㎡에서 2015년 11.1㎡로 약 2.0배 증가하였다. 설립별로 보면, 같은 기간 동안 국·공립이 사립보다 더 넓었으며 2015년에는 약 7.4㎡ 차이가 났다.

도서관 현황은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 좌석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장서 수를 통하여 볼 수 있다. 2015년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은 19,976.7원이었다.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이 32,350.1원으로 사립(19,725.6원)의 예산보다 1.6배 정도 더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21,594.3원, 비수도권은 18,794.1원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1.1배 정도 더 많았다. 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는 10.6명이었고, 그 중 국·공립이 6.9명, 사립이 10.7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2.2명, 비수도권이 9.6명이었다. 한편, 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 수는 18.2권이었으며, 그 중 국·공립이 31.7권, 사립이 18.0권으로 10권 이상의 큰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6.3권, 비수도권이 19.6권으로 비수도권 전문대학에서 좀 더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의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았으나, 좌석당 학생 수 및 장서 수에서는 수도권 전문대학보다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환경이 좀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다(표 I-4-8 참조).



■ 그림 I-4-7 ■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2000~2015)

주: <표 I-4-7> 참조.



■ 그림 I-4-8 ■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사면적(2000~2015)

주: <표 I-4-7> 참조.

■ 표 I-4-7 ■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 및 교사면적(2000~2015)

(단위: m²)

	학생 1인당 교지면적			학생 1인당 교사면적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2000	24.6	50.9	23.5	5.5	10.5	5.3
2005	27.8	48.8	26.9	8.2	12.1	8.0
2006	28.9	46.8	28.2	8.4	11.4	8.3
2007	30.0	46.3	29.3	8.6	9.4	8.6
2008	31.0	47.5	30.4	9.3	12.1	9.2
2009	33.5	48.9	32.9	9.8	14.3	9.6
2010	34.0	51.8	33.4	9.4	11.2	9.4
2011	36.6	62.5	36.0	10.2	14.3	10.1
2012	37.5	70.0	36.8	10.2	15.8	10.1
2013	36.7	70.4	36.0	10.4	15.2	10.3
2014	37.8	74.4	37.0	10.6	16.7	10.5
2015	32.4	63.8	31.8	11.1	18.4	11.0

주: 1) 교지면적: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값으로, 차용면적은 제외하고 학교소유면적만을 나타냄.
 2) 교사면적: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특수시설, 기숙시설, 계열별 부속시설, 기타시설 등을 합한 수치임.
 3) 학생 1인당 교지면적=전체 교지면적/재적 학생 수
 4) 학생 1인당 교사면적=전체 교사면적/재적 학생 수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 표 I-4-8 ■ 지역별 설립별 학생 1인당 도서관 현황(2015)

(단위: 원, 명, 권)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			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19,976.7	32,350.1	19,725.6	10.6	6.9	10.7	18.2	31.7	18.0
수도권	21,594.3	81,760.7	21,412.8	12.2	5.1	12.2	16.3	37.0	16.2
비수도권	18,794.1	28,979.5	18,454.9	9.6	7.0	9.7	19.6	31.3	19.3

주: 1)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전체 도서관 예산/재적 학생 수
 2) 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재적 학생 수/좌석 수
 3) 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 수=장서 수/재적 학생 수
 4) 폐교의 재적 학생 수는 제외함.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Ⅱ. 대학

1. 학교
2. 학생
3. 교원
4. 학습 환경 및 여건

이 장에서의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만을 대상으로하고,
그 외 4년제 대학의 정보는 개황에서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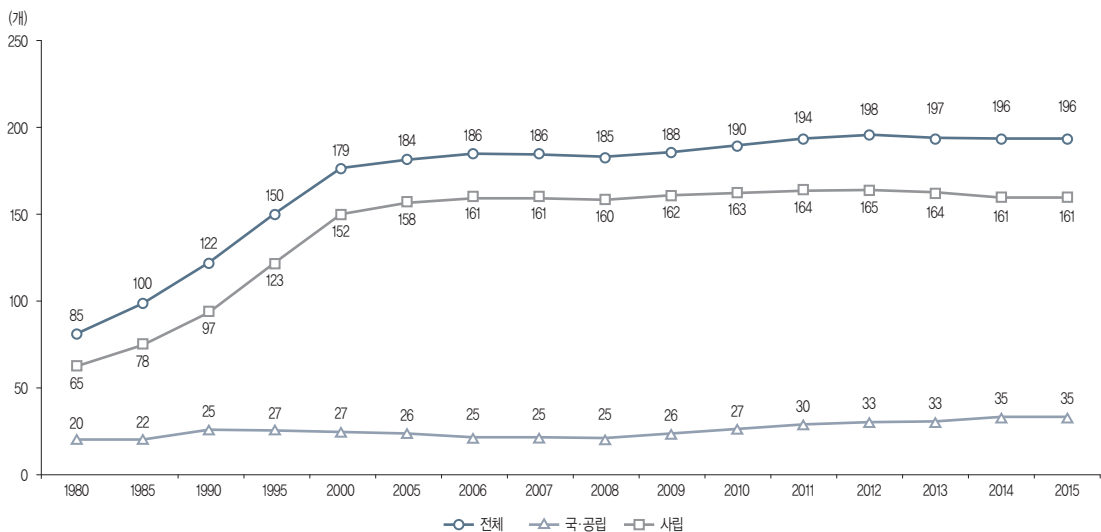
■ II. 대학 ■

1 학교

[그림 II-1-1]을 통해 대학 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 85개교에 불과하던 대학은 2000년 179개교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대학 설립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체 대학 수가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이후 2004년 노무현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및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경영부실대학퇴출,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으로 대학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2015년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분교 7개교를 포함하여 196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국·공립대학은 35개교, 사립은 7개 분교를 포함하여 총 161개교로, 사립대학의 비중이 전체의 82.1%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1-2〉를 통해 지역별 대학 수를 비교해 보면, 2015년 현재 전체 196개교 가운데 수도권에 71개교(36.2%), 비수도권에 125개교(63.8%)가 각각 소재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전체 35개교 가운데 수도권에 6개교(17.1%), 비수도권에 29개교(82.9%)가 소재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전체 161개교 가운데 수도권에 65개교(40.4%), 비수도권에 96개교(59.6%)가 소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더 많이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규모별로는 대규모 대학의 경우, 수도권에 33개교, 비수도권에 60개교로 전체 대학의 47.4%를 차지하였으며, 소규모 대학은 수도권에 22개교, 비수도권에 43개교로 전체 대학의 33.2%를 차지하였다(〈표 II-1-2〉 참조).



■ 그림 II-1-1 ■ 연도별 설립별 학교 수(1980~2015)

주: 학교 수에 분교 수가 포함됨. 〈표 II-1-1〉 참조.

■ 표 II-1-1 ■ 연도별 설립별 학교 수(1980~2015)

(단위: 개)

	전체	국·공립	사립
1980	85	20	65
1985	100	22	78
1990	107(15)	24(1)	83(14)
1995	131(19)	26(1)	105(18)
2000	161(18)	26(1)	135(17)
2005	173(11)	26	147(11)
2006	175(11)	25	150(11)
2007	175(11)	25	150(11)
2008	174(11)	25	149(11)
2009	177(11)	26	151(11)
2010	179(11)	27	152(11)
2011	183(11)	30	153(11)
2012	189(9)	33	156(9)
2013	188(9)	33	155(9)
2014	189(7)	35	154(7)
2015	189(7)	35	154(7)

주: ()는 분교 수이며, 전체 학교 수에는 분교 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표 II-1-2 ■ 지역별 규모별 설립별 학교 수(2015)

(단위: 개)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196	35	161
수도권	소계	71	6	65
	대규모	33	3	30
	중규모	16	2	14
	소규모	22	1	21
비수도권	소계	125	29	96
	대규모	60	18	42
	중규모	22	4	18
	소규모	43	7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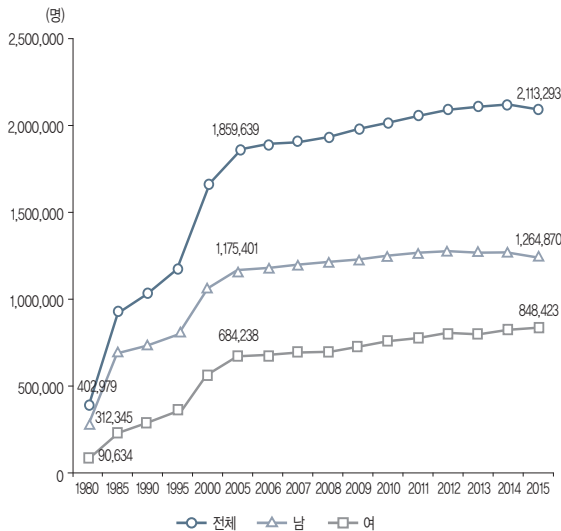
주: 1) 학교규모는 ① 대규모: 10,000명 이상, ② 중규모: 5,000명 이상~10,000명 미만, ③ 소규모: 5,000명 미만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함.
 2) 캠퍼스는 본교로 포함하였으며, 분교 7개를 별도로 보아 총 196개임.
 3) 지역은 본교 기준임.

2 학생

1)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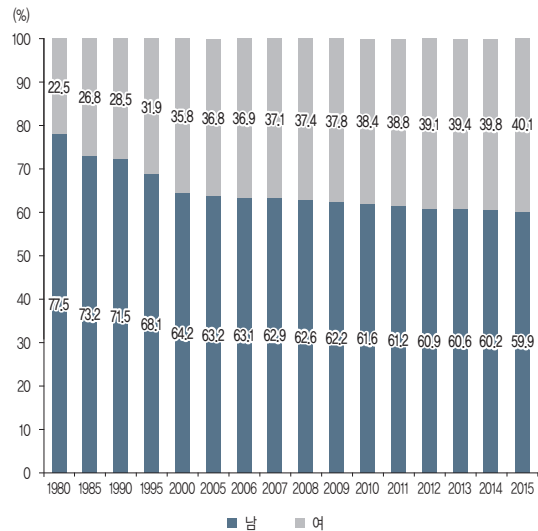
[그림 II-2-1]을 통해 학생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 402,979명에 불과했던 학생 수는 1990년에는 1백만을, 2010년에는 2백만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1980년 학생 수의 5배가 넘는 규모로 늘어났다. 특히 1980년에서 2005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는 대학설립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로 학생 수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 진다. 이후 정부의 대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며, 2015년 현재 대학의 전체 학생 수는 2,113,293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학생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1980년 312,345명에서 2015년 1,264,870명으로 약 4.0배 증가했고, 여학생은 1980년 90,634명에서 2015년 848,423명으로 약 9.4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여학생 수의 증가는 전체 학생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여학생 비율의 증가로 이어졌다(<표 II-2-1> 참조). [그림 II-2-2]에 따르면, 1980년 당시 여학생 비율은 전체의 22.5%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30%를 넘어섰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15년에는 여학생이 전체 학생의 40.1%를 차지하였다.



■ 그림 II-2-1 ■ 연도별 성별 학생 수(1980~2015)

주: <표 II-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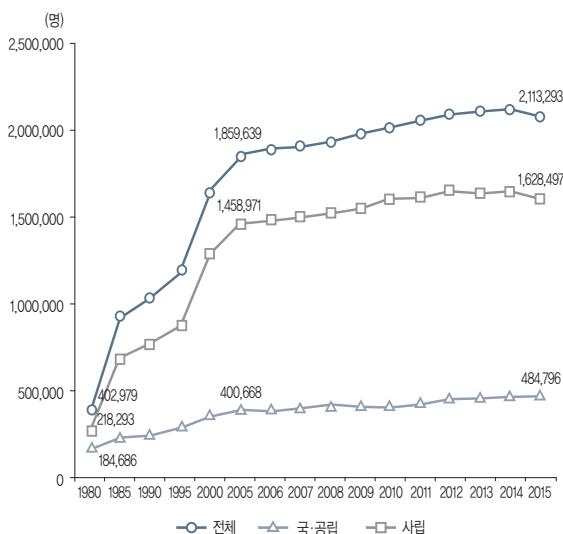
■ 그림 II-2-2 ■ 연도별 성별 학생 비율(1980~2015)

주: <표 II-2-1> 참조.

[그림 II-2-3]을 통해 설립별로 학생 수 변화를 살펴보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에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국·공립의 경우, 1980년 184,686명에서 2015년 484,796명으로 학생 수가 약 2.6배 증가하였으나, 사립의 경우에는 1980년 218,293명에서 2015년 1,628,497명으로 7.5배 정도 크게 증가하였다. 설립별 구성비를 보면, 1980년 전체 대학생 중에서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은 54.2%였으나, 1985년에는 73.9%로 약 19.7%p 증가하였다. 그 이후로도 사립대학의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전체 학생의 77.1%에 해당하는 1,628,497명이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학교의 학생 수는 1980년 전체 학생 수의 45.8%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22.9%에 그쳤다(〈표 II-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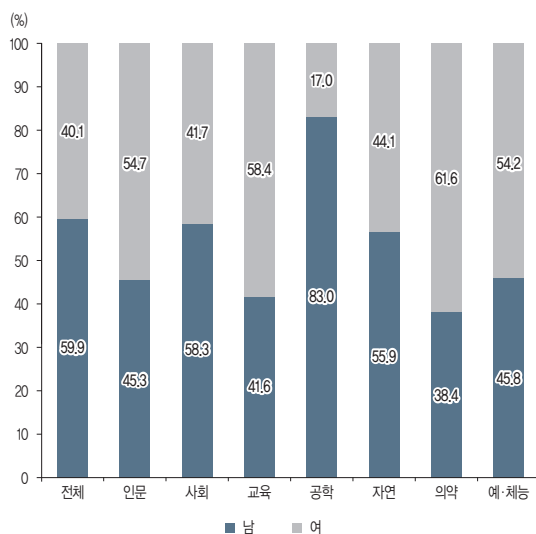
2015년 계열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사회계열이 전체 학생의 28.6%(603,377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이 26.6%(562,506명), 인문계열 12.5%(264,619명), 자연계열 12.1%(255,151명), 예·체능계열 10.6%(223,262명), 의약계열 5.6%(118,137명)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교육계열 학생의 비중이 4.1%(86,241명)로 가장 낮았다. [그림 II-2-4]에서 계열별 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의약계열(61.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교육계열(58.4%), 인문계열(54.7%), 예·체능계열(54.2%), 자연계열(44.1%), 사회계열(41.7%)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학계열은 17.0%로 다른 계열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표 II-2-2〉 참조).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788,983명, 비수도권은 1,324,310명으로 전체 학생의 62.7%가 비수도권 대학에 재학하고 있었다. 계열별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사회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교육계열, 의약계열 순으로 많았다. 비수도권에서도 사회계열과 공학계열순으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는 자연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의약계열, 교육계열 순으로 수도권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표 II-2-2〉 참조).



■ 그림 II-2-3 ■ 연도별 설립별 학생 수(1980~2015)

주: 〈표 II-2-1〉 참조.



■ 그림 II-2-4 ■ 계열별 성별 학생 비율(2015)

주: 〈표 II-2-2〉 참조.

■ II. 대학 ■

■ 표 II-2-1 ■ 연도별 설립별 성별 학생 수(1980~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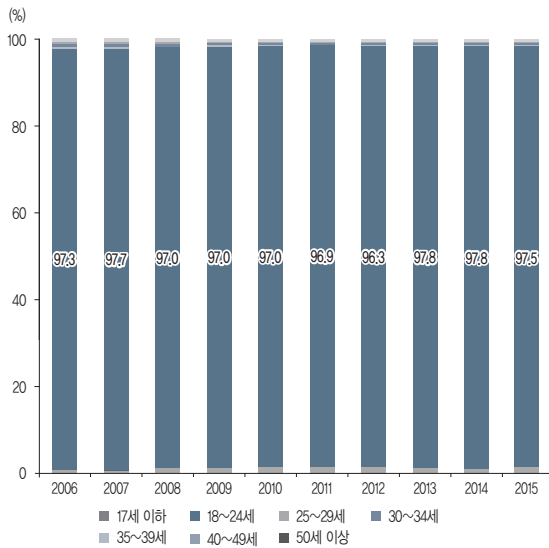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402,979	312,345	90,634	184,686	165,098	19,588	218,293	147,247	71,046
1985	931,884	681,796	250,088	243,378	179,092	64,286	688,506	502,704	185,802
1990	1,040,166	744,037	296,129	254,748	184,846	69,902	785,418	559,191	226,227
1995	1,187,735	809,317	378,418	295,941	208,089	87,852	891,794	601,228	290,566
2000	1,665,398	1,069,009	596,389	372,078	247,470	124,608	1,293,320	821,539	471,781
2005	1,859,639	1,175,401	684,238	400,668	266,317	134,351	1,458,971	909,084	549,887
2006	1,888,436	1,192,002	696,434	405,256	270,623	134,633	1,483,180	921,379	561,801
2007	1,919,504	1,206,769	712,735	408,461	273,341	135,120	1,511,043	933,428	577,615
2008	1,943,437	1,216,259	727,178	411,675	275,934	135,741	1,531,762	940,325	591,437
2009	1,984,043	1,234,714	749,329	420,944	283,360	137,584	1,563,099	951,354	611,745
2010	2,028,841	1,250,655	778,186	428,173	286,426	141,747	1,600,668	964,229	636,439
2011	2,065,451	1,263,376	802,075	441,946	294,645	147,301	1,623,505	968,731	654,774
2012	2,103,958	1,282,083	821,875	459,171	305,455	153,716	1,644,787	976,628	668,159
2013	2,120,296	1,284,593	835,703	471,368	311,867	159,501	1,648,928	972,726	676,202
2014	2,130,046	1,283,204	846,842	480,870	316,659	164,211	1,649,176	966,545	682,631
2015	2,113,293	1,264,870	848,423	484,796	317,362	167,434	1,628,497	947,508	680,989

■ 표 II-2-2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학생 수(2015)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2,113,293	1,264,870	848,423	484,796	317,362	167,434	1,628,497	947,508	680,989
수도권	소계	788,983	439,232	349,751	71,134	46,746	24,388	717,849	392,486	325,363
	인문	119,766	49,099	70,667	6,661	3,296	3,365	113,105	45,803	67,302
	사회	234,170	127,363	106,807	16,078	10,148	5,930	218,092	117,215	100,877
	교육	25,715	10,193	15,522	2,777	1,554	1,223	22,938	8,639	14,299
	공학	205,834	163,565	42,269	25,450	20,434	5,016	180,384	143,131	37,253
	자연	88,114	45,362	42,752	10,711	6,401	4,310	77,403	38,961	38,442
	의약	24,151	8,623	15,528	1,234	586	648	22,917	8,037	14,880
	예·체능	91,233	35,027	56,206	8,223	4,327	3,896	83,010	30,700	52,310
비수도권	소계	1,324,310	825,638	498,672	413,662	270,616	143,046	910,648	555,022	355,626
	인문	144,853	70,847	74,006	39,966	18,541	21,425	104,887	52,306	52,581
	사회	369,207	224,509	144,698	79,497	47,449	32,048	289,710	177,060	112,650
	교육	60,526	25,697	34,829	22,448	11,006	11,442	38,078	14,691	23,387
	공학	356,672	303,463	53,209	156,785	130,777	26,008	199,887	172,686	27,201
	자연	167,037	97,224	69,813	84,191	50,526	33,665	82,846	46,698	36,148
	의약	93,986	36,780	57,206	11,523	4,246	7,277	82,463	32,534	49,929
	예·체능	132,029	67,118	64,911	19,252	8,071	11,181	112,777	59,047	53,730

2) 입학



■ 그림 II-2-5 ■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비율(2006~2015)

주: <표 II-2-3> 참조.

(25.6%), 인문계열(12.7%), 자연계열(12.4%), 예·체능계열(11.5%), 의약계열(6.8%)로 나타났으며, 교육계열의 입학생 수가 4.8%로 가장 적었다.

계열별 여자 입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교육계열이 6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약계열(67.2%), 예·체능계열(61.4%), 인문계열(61.3%), 자연계열(51.6%), 사회계열(50.8%) 순이었고, 공학계열이 23.8%로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해 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의 경우 다른 계열들에 비해 성비가균형적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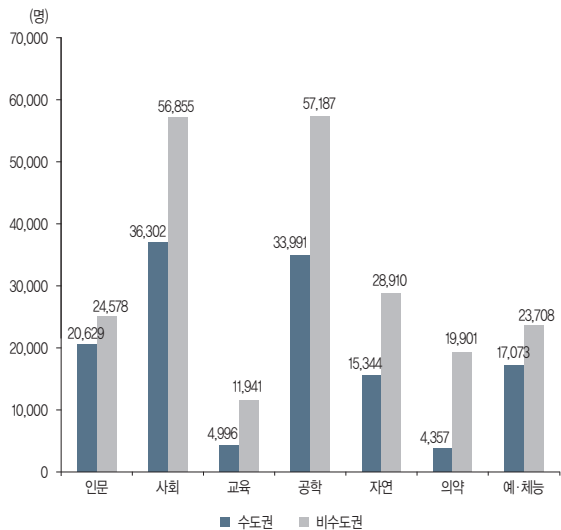
지역별로 계열별 입학생 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의 경우 사회계열이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교육계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약계열이 가장 적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학계열의 입학생 수가 가장 많았고, 사회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의약계열 순이었으며, 교육계열이 가장 적었다(<표 II-2-4> 참조).

학생유형별 입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5년 전체 입학생 중 당해연도에 고교를 졸업하고 진학한 학생의 비중이 77.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재수자(19.9%), 검정고시 합격자(1.2%)이었으며, 재진학자의 비중(0.02%)이 가장 적었다. 이를 통해 2015년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대략 5명당 1명은 대학입시를 2번 이상 치른 학생임을 알 수 있다(<표 II-2-5> 참조).

2015년 대학 입학생 수는 총 355,772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남학생은 183,483명, 여학생은 172,289명으로 전체 입학생 수 중 여학생의 비율은 48.4%였다. 설립별로는 사립대학의 입학생 수가 274,961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77.3%를 차지하여, 사립대 재적 학생의 구성비(77.1%)와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II-2-1, 4> 참조).

[그림 II-2-5]를 통해 연도에 따른 연령별 입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 이래로 18~24세의 학생들이 전체 입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 2015년의 경우, 해당 연령대의 학생들이 입학생 중 차지하는 비율은 97.5%로, 전년 대비 약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6]에서 지역별 입학생 수를 살펴보면, 모든 계열에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입학생 수가 많았다. 이는 학교수에 따른 학생정원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사회계열이 전체 입학생의 2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



■ 그림 II-2-6 ■ 지역별 계열별 입학생 수(2015)

주: <표 II-2-4> 참조.

■ II. 대학 ■

■ 표 II-2-3 ■ 연도별 연령별 입학생 수(2006~2015)

(단위: 명)

	전체	17세 이하	18 ~ 24세	25 ~ 29세	30 ~ 34세	35 ~ 39세	40 ~ 49세	50세 이상
2006	335,581	1,986	326,686	2,631	1,282	1,128	1,868	-
2007	342,250	1,648	334,423	2,469	995	1,027	1,688	-
2008	342,916	4,298	332,684	2,329	962	969	1,674	-
2009	347,750	4,719	337,439	1,970	887	957	1,279	499
2010	358,511	5,879	347,838	1,685	755	756	1,065	533
2011	361,686	6,483	350,435	2,026	833	566	859	484
2012	372,941	8,097	359,096	2,641	1,023	551	987	546
2013	365,515	4,556	357,438	1,227	521	384	879	510
2014	363,655	3,913	355,796	1,254	522	421	1,096	653
2015	355,772	5,013	346,805	1,302	517	424	1,083	628

주: 2006~2008년의 40~49세 범주에는 '40세 이상'의 값을 제시함. 당시에는 50세 이상의 범주를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고, 해당 대상을 40세 이상에 포함시켜 함께 집계함.

■ 표 II-2-4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 수(2015)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355,772	183,483	172,289	80,811	46,610	34,201	274,961	136,873	138,088
수도권	소계	132,692	62,716	69,976	12,449	7,555	4,894	120,243	55,161	65,082
	인문	20,629	7,079	13,550	1,077	458	619	19,552	6,621	12,931
	사회	36,302	16,111	20,191	2,448	1,371	1,077	33,854	14,740	19,114
	교육	4,996	1,481	3,515	492	248	244	4,504	1,233	3,271
	공학	33,991	24,407	9,584	4,642	3,505	1,137	29,349	20,902	8,447
	자연	15,344	6,752	8,592	2,056	1,168	888	13,288	5,584	7,704
	의약	4,357	1,363	2,994	169	77	92	4,188	1,286	2,902
	예·체능	17,073	5,523	11,550	1,565	728	837	15,508	4,795	10,713
비수도권	소계	223,080	120,767	102,313	68,362	39,055	29,307	154,718	81,712	73,006
	인문	24,578	10,430	14,148	7,173	2,912	4,261	17,405	7,518	9,887
	사회	56,855	29,753	27,102	11,575	5,864	5,711	45,280	23,889	21,391
	교육	11,941	4,029	7,912	4,384	1,715	2,669	7,557	2,314	5,243
	공학	57,187	45,048	12,139	24,795	19,018	5,777	32,392	26,030	6,362
	자연	28,910	14,673	14,237	14,414	7,499	6,915	14,496	7,174	7,322
	의약	19,901	6,602	13,299	2,473	867	1,606	17,428	5,735	11,693
	예·체능	23,708	10,232	13,476	3,548	1,180	2,368	20,160	9,052	11,108

■ 표 II-2-5 ■ 학생유형별 설립별 성별 입학생 수(2015)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355,772	183,483	172,289	80,811	46,610	34,201	274,961	136,873	138,088
당해년도 고교졸업자	275,516	138,943	136,573	64,254	35,728	28,526	211,262	103,215	108,047
재수자	70,901	39,764	31,137	14,722	9,732	4,990	56,179	30,032	26,147
재진학자	68	47	21	-	-	-	68	47	21
검정고시합격	4,149	2,184	1,965	626	385	241	3,523	1,799	1,724
기타	5,138	2,545	2,593	1,209	765	444	3,929	1,780	2,149

주: 재수자는 대학입시를 2번 이상 치른 학생을 일컫는 말로 3번이나 4번 그 이상의 대학입시를 치른 학생도 포함함.

3) 학생 변동 상황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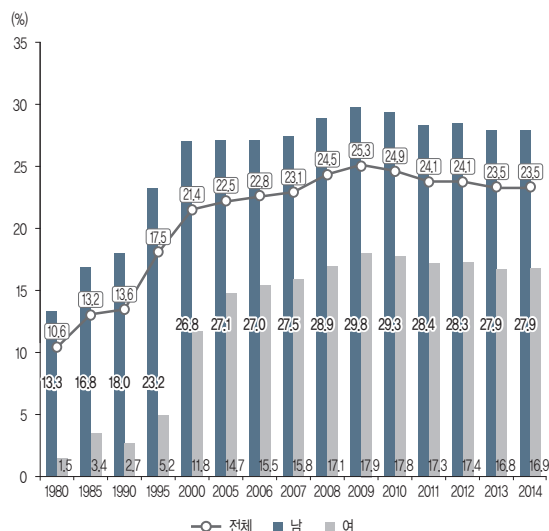
① 휴학

[그림 II-2-7]을 통해 연도에 따른 휴학률을 살펴보면 1980학년도에 10.6%였던 대학 휴학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인 2000학년도에 21.4%로 증가했다.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9학년도에 25.3%까지 증가했다가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4학년도에는 전년과 동일한 23.5%로 나타났다.

성별 휴학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80학년도에 남학생은 13.3%, 여학생은 1.5%였으나, 2014학년도 현재 남학생은 27.9%, 여학생은 16.9%로 각각 약 14.6%p, 약 15.4%p가 증가하였다. 또한 1980학년도 이래로 남학생의 휴학률이 여학생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의 군복무로 인한 휴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표 II-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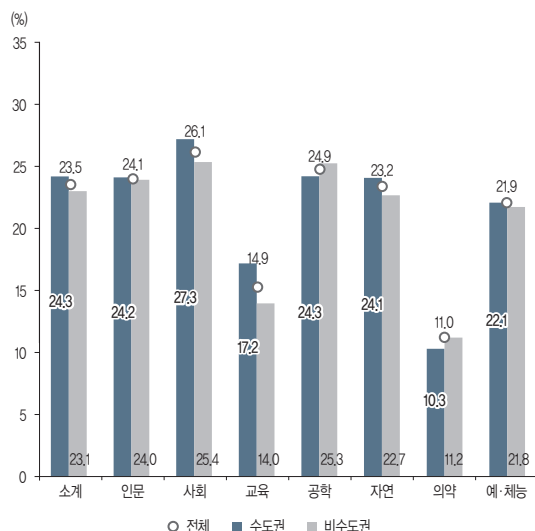
설립별 휴학률을 보면, 1980학년도에 국·공립대학은 7.1%, 사립대학은 13.6%였으나 2014학년도에는 국·공립대학 23.4%, 사립대학 23.5%로 각각 약 16.3%p, 약 9.9%p 증가하여, 지난 30여년간 국·공립대학의 휴학률이 사립대학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5학년도 이래로 국·공립대학의 휴학률이 사립대학보다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II-2-6〉 참조).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체 대학의 휴학률은 24.3%, 비수도권 대학은 23.1%로 지역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계열별로는 인문, 사회, 교육, 자연, 예·체능의 경우 수도권 대학의 휴학률이 더 높았고, 반면 공학 및 의학 계열에서는 비수도권 대학의 휴학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II-2-7〉 참조).



■ 그림 II-2-7 ■ 연도별 성별 휴학률(1980~2014, 학년도 기준)

주: 〈표 II-2-6〉 참조.



■ 그림 II-2-8 ■ 지역별 계열별 휴학률(2014, 학년도 기준)

주: 〈표 II-2-7〉 참조.

5) 대학의 학생 변동 상황과 관련된 자료들의 기준일은 조사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임.

■ II. 대학 ■

■ 표 II-2-6 ■ 연도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 수 및 휴학률(1980~2014,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휴학생 수			휴학률			휴학생 수			휴학률			휴학생 수			휴학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42,804	41,480	1,324	10.6	13.3	1.5	13,055	12,869	186	7.1	7.8	0.9	29,749	28,611	1,138	13.6	19.4	1.6
1985	123,162	114,783	8,379	13.2	16.8	3.4	33,390	31,527	1,863	13.7	17.6	2.9	89,772	83,256	6,516	13.0	16.6	3.5
1990	141,626	133,725	7,901	13.6	18.0	2.7	39,203	37,450	1,753	15.4	20.3	2.5	102,423	96,275	6,148	13.0	17.2	2.7
1995	207,842	188,054	19,788	17.5	23.2	5.2	48,170	44,270	3,900	16.3	21.3	4.4	159,672	143,784	15,888	17.9	23.9	5.5
2000	357,128	287,011	70,117	21.4	26.8	11.8	77,952	63,241	14,711	21.0	25.6	11.8	279,176	223,770	55,406	21.6	27.2	11.7
2005	418,952	318,376	100,576	22.5	27.1	14.7	96,629	76,472	20,157	24.1	28.7	15.0	322,323	241,904	80,419	22.1	26.6	14.6
2006	430,540	322,409	108,131	22.8	27.0	15.5	95,335	74,570	20,765	23.5	27.6	15.4	335,205	247,839	87,366	22.6	26.9	15.6
2007	443,694	331,371	112,323	23.1	27.5	15.8	96,280	74,928	21,352	23.6	27.4	15.8	347,414	256,443	90,971	23.0	27.5	15.7
2008	475,568	350,961	124,607	24.5	28.9	17.1	101,324	77,829	23,495	24.6	28.2	17.3	374,244	273,132	101,112	24.4	29.0	17.1
2009	502,607	368,121	134,486	25.3	29.8	17.9	108,428	84,128	24,300	25.8	29.7	17.7	394,179	283,993	110,186	25.2	29.9	18.0
2010	504,599	366,250	138,349	24.9	29.3	17.8	114,402	88,069	26,333	26.7	30.7	18.6	390,197	278,181	112,016	24.4	28.9	17.6
2011	497,725	359,071	138,654	24.1	28.4	17.3	110,604	84,479	26,125	25.0	28.7	17.7	387,121	274,592	112,529	23.8	28.3	17.2
2012	506,133	363,355	142,778	24.1	28.3	17.4	114,434	87,130	27,304	24.9	28.5	17.8	391,699	276,225	115,474	23.8	28.3	17.3
2013	498,863	358,409	140,454	23.5	27.9	16.8	113,091	85,259	27,832	24.0	27.3	17.4	385,772	273,150	112,622	23.4	28.1	16.7
2014	500,753	357,528	143,225	23.5	27.9	16.9	112,499	84,699	27,800	23.4	26.7	16.9	388,254	272,829	115,425	23.5	28.2	16.9

주: 휴학률=(휴학생 수/전년도 재적 학생 수) × 100

■ 표 II-2-7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휴학생 수 및 휴학률(2014,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휴학생 수			휴학률			휴학생 수			휴학률			휴학생 수			휴학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500,753	357,528	143,225	23.5	27.9	16.9	112,499	84,699	27,800	23.4	26.7	16.9	388,254	272,829	115,425	23.5	28.2	16.9
수도권	소계	192,595	123,911	68,684	24.3	27.8	19.7	15,448	11,669	3,779	22.6	25.9	16.3	177,147	112,242	64,905	24.4	28.1	19.9
	인문	29,359	14,220	15,139	24.2	28.7	21.0	1,353	802	551	21.3	26.2	16.7	28,006	13,418	14,588	24.3	28.9	21.3
	사회	64,996	40,600	24,396	27.3	30.8	22.9	4,359	3,109	1,250	27.3	30.5	21.8	60,637	37,491	23,146	27.3	30.9	22.9
	교육	4,477	2,485	1,992	17.2	23.7	12.9	460	320	140	17.0	21.2	11.7	4,017	2,165	1,852	17.2	24.1	12.9
	공학	49,637	42,593	7,044	24.3	25.9	17.5	5,500	4,860	640	23.3	25.3	14.4	44,137	37,733	6,404	24.4	26.0	17.9
	자연	21,513	12,607	8,906	24.1	27.4	20.6	2,115	1,512	603	20.2	24.0	14.5	19,398	11,095	8,303	24.7	28.0	21.3
	의약	2,377	1,314	1,063	10.3	16.1	7.1	51	23	28	4.1	4.0	4.1	2,326	1,291	1,035	10.7	17.0	7.3
	예·체능	20,236	10,092	10,144	22.1	28.7	18.1	1,610	1,043	567	20.4	24.2	15.7	18,626	9,049	9,577	22.3	29.3	18.2
비수도권	소계	308,158	233,617	74,541	23.1	27.9	15.0	97,051	73,030	24,021	23.5	26.9	17.0	211,107	160,587	50,520	22.9	28.4	14.1
	인문	35,846	21,388	14,458	24.0	29.4	18.8	9,865	5,452	4,413	24.7	29.6	20.5	25,981	15,936	10,045	23.7	29.3	18.2
	사회	96,091	69,871	26,220	25.4	30.1	18.0	22,127	15,113	7,014	27.6	31.2	22.0	73,964	54,758	19,206	24.8	29.8	16.9
	교육	8,507	5,844	2,663	14.0	22.3	7.7	3,226	2,279	947	14.3	20.3	8.4	5,281	3,565	1,716	13.8	23.8	7.4
	공학	89,936	82,663	7,273	25.3	27.1	14.5	37,445	33,735	3,710	24.2	25.9	15.4	52,491	48,928	3,563	26.2	28.0	13.7
	자연	38,490	27,019	11,471	22.7	27.5	16.1	19,549	13,623	5,926	23.0	26.7	17.5	18,941	13,396	5,545	22.5	28.4	14.9
	의약	9,947	7,180	2,767	11.2	20.8	5.1	1,007	615	392	9.3	17.0	5.5	8,940	6,565	2,375	11.5	21.2	5.1
	예·체능	29,341	19,652	9,689	21.8	28.6	14.7	3,832	2,213	1,619	19.7	27.0	14.5	25,509	17,439	8,070	22.1	28.8	14.7

주: 휴학률=(휴학생 수/전년도 재적 학생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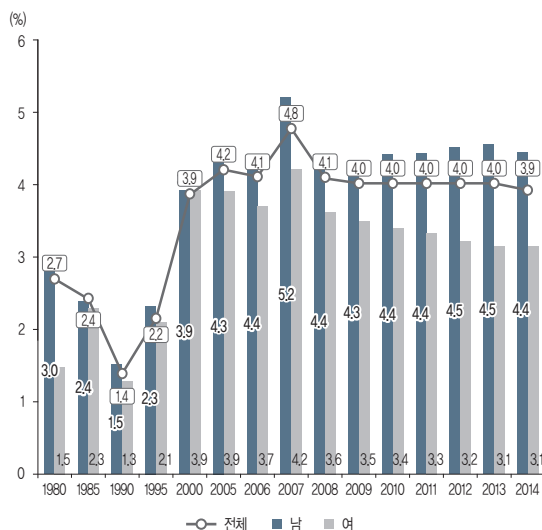
② 중도탈락

[그림 II-2-9]에서 대학의 중도탈락률 추이를 보면, 1980학년도 중도탈락률은 2.7%이었으나 1990학년도에는 1.4%로 절반 정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다시 증가하면서 2007학년도에는 4.8%로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증감 없이 직전 학년도까지 매년 4%대를 유지하였다. 2014학년도 중도탈락자 수는 전 학년도 대비 1,460명이 감소한 82,875명이며, 이들 중 남학생은 56,889명, 여학생은 25,986명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 수가 2배 이상 많았다. 2014학년도의 중도탈락률을 보면, 전체 3.9%, 남학생 4.4%, 여학생 3.1%로 남학생의 중도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표 II-2-8〉 참조).

2014학년도의 중도탈락률을 설립별로 살펴보면, 사립대학의 전체 중도탈락률이 국·공립대학보다 약 1.0%p 높았다. 사립대학의 중도탈락자는 67,834명으로 전체 학생 중 4.1%가 중도에 탈락했으며, 국·공립대학은 15,041명으로 전체 학생 중에서 3.1%의 학생이 중도탈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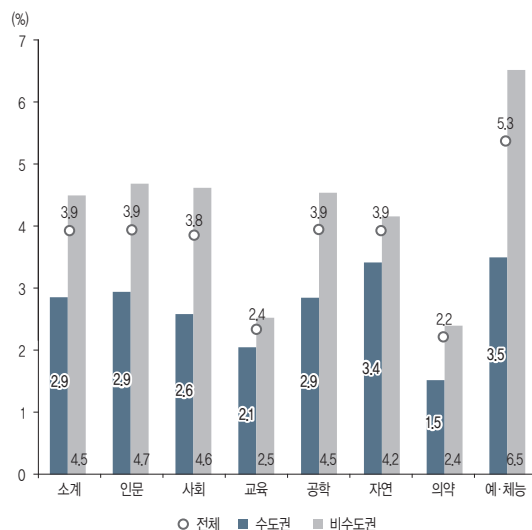
계열별로 보면, 예·체능계열 학생의 중도탈락률이 5.3%로 다른 계열의 학생보다 높았고, 인문·공학·자연계열(3.9%), 사회계열(3.8%) 학생의 중도탈락률도 3% 후반대로 나타났다. 반면 의학계열(2.2%)과 교육계열(2.4%) 학생의 중도탈락률은 2%대로 다른 계열 학생에 비해 낮았다(〈표 II-2-9〉 참조).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은 22,716명으로 수도권 전체 대학생의 2.9%가 중도탈락했으며, 비수도권 대학은 60,159명으로 전체 비수도권 대학생의 4.5%가 중도에 탈락하여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의 중도탈락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계열에서 비수도권 대학의 중도탈락률이 수도권보다 더 높았다. 특히 예·체능계열에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중도탈락률 차이가 약 3.0%p로 가장 컸다(〈표 II-2-9〉 참조).



■ 그림 II-2-9 ■ 연도별 성별 중도탈락률(1980~2014, 학년도 기준)

주: 〈표 II-2-8〉 참조.



■ 그림 II-2-10 ■ 지역별 계열별 중도탈락률(2014, 학년도 기준)

주: 〈표 II-2-9〉 참조.

■ II. 대학 ■

■ 표 II-2-8 ■ 연도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 수 및 중도탈락률(1980~2014,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10,816	9,415	1,401	2.7	3.0	1.5	1,967	1,841	126	1.1	1.1	0.6	8,849	7,574	1,275	4.1	5.1	1.8
1985	21,942	16,195	5,747	2.4	2.4	2.3	4,916	3,802	1,114	2.0	2.1	1.7	17,026	12,393	4,633	2.5	2.5	2.5
1990	14,765	11,029	3,736	1.4	1.5	1.3	2,772	2,107	665	1.1	1.1	1.0	11,993	8,922	3,071	1.5	1.6	1.4
1995	26,203	18,262	7,941	2.2	2.3	2.1	4,412	3,234	1,178	1.5	1.6	1.3	21,791	15,028	6,763	2.4	2.5	2.3
2000	64,410	41,348	23,062	3.9	3.9	3.9	10,909	7,193	3,716	2.9	2.9	3.0	53,501	34,155	19,346	4.1	4.2	4.1
2005	77,407	50,808	26,599	4.2	4.3	3.9	12,326	8,339	3,987	3.1	3.1	3.0	65,081	42,469	22,612	4.5	4.7	4.1
2006	78,083	52,325	25,758	4.1	4.4	3.7	12,647	8,795	3,852	3.1	3.2	2.9	65,436	43,530	21,906	4.4	4.7	3.9
2007	92,349	62,341	30,008	4.8	5.2	4.2	12,296	8,764	3,532	3.0	3.2	2.6	80,053	53,577	26,476	5.3	5.7	4.6
2008	80,355	53,902	26,453	4.1	4.4	3.6	13,669	9,877	3,792	3.3	3.6	2.8	66,686	44,025	22,661	4.4	4.7	3.8
2009	78,804	52,628	26,176	4.0	4.3	3.5	14,140	10,404	3,736	3.4	3.7	2.7	64,664	42,224	22,440	4.1	4.4	3.7
2010	81,641	55,151	26,490	4.0	4.4	3.4	14,510	10,744	3,766	3.4	3.8	2.7	67,131	44,407	22,724	4.2	4.6	3.6
2011	81,614	55,218	26,396	4.0	4.4	3.3	13,666	10,257	3,409	3.1	3.5	2.3	67,948	44,961	22,987	4.2	4.6	3.5
2012	84,114	57,527	26,587	4.0	4.5	3.2	14,429	10,879	3,550	3.1	3.6	2.3	69,685	46,648	23,037	4.2	4.8	3.4
2013	84,335	58,035	26,300	4.0	4.5	3.1	14,422	10,617	3,805	3.1	3.4	2.4	69,913	47,418	22,495	4.2	4.9	3.3
2014	82,875	56,889	25,986	3.9	4.4	3.1	15,041	11,083	3,958	3.1	3.5	2.4	67,834	45,806	22,028	4.1	4.7	3.2

주: 중도탈락률=(중도탈락자 수/전년도 재적 학생 수) × 100

■ 표 II-2-9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중도탈락자 수 및 중도탈락률(2014,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중도탈락자 수			중도탈락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82,875	56,889	25,986	3.9	4.4	3.1	15,041	11,083	3,958	3.1	3.5	2.4	67,834	45,806	22,028	4.1	4.7	3.2
수도권	소계	22,716	13,462	9,254	2.9	3.0	2.7	1,667	1,195	472	2.4	2.6	2.0	21,049	12,267	8,782	2.9	3.1	2.7
	인문	3,580	1,699	1,881	2.9	3.4	2.6	140	87	53	2.2	2.8	1.6	3,440	1,612	1,828	3.0	3.5	2.7
	사회	6,168	3,752	2,416	2.6	2.8	2.3	333	237	96	2.1	2.3	1.7	5,835	3,515	2,320	2.6	2.9	2.3
	교육	534	211	323	2.1	2.0	2.1	43	22	21	1.6	1.5	1.8	491	189	302	2.1	2.1	2.1
	공학	5,832	4,661	1,171	2.9	2.8	2.9	662	547	115	2.8	2.9	2.6	5,170	4,114	1,056	2.9	2.8	2.9
	자연	3,048	1,520	1,528	3.4	3.3	3.5	274	154	120	2.6	2.4	2.9	2,774	1,366	1,408	3.5	3.4	3.6
	의약	351	143	208	1.5	1.8	1.4	13	4	9	1.0	0.7	1.3	338	139	199	1.6	1.8	1.4
	예·체능	3,203	1,476	1,727	3.5	4.2	3.1	202	144	58	2.6	3.3	1.6	3,001	1,332	1,669	3.6	4.3	3.2
비수도권	소계	60,159	43,427	16,732	4.5	5.2	3.4	13,374	9,888	3,486	3.2	3.6	2.5	46,785	33,539	13,246	5.1	5.9	3.7
	인문	7,013	4,213	2,800	4.7	5.8	3.6	1,311	770	541	3.3	4.2	2.5	5,702	3,443	2,259	5.2	6.3	4.1
	사회	17,486	12,784	4,702	4.6	5.5	3.2	2,321	1,644	677	2.9	3.4	2.1	15,165	11,140	4,025	5.1	6.1	3.5
	교육	1,540	772	768	2.5	2.9	2.2	398	203	195	1.8	1.8	1.7	1,142	569	573	3.0	3.8	2.5
	공학	16,147	14,470	1,677	4.5	4.7	3.4	5,442	4,820	622	3.5	3.7	2.6	10,705	9,650	1,055	5.3	5.5	4.1
	자연	7,050	4,640	2,410	4.2	4.7	3.4	2,908	1,972	936	3.4	3.9	2.8	4,142	2,668	1,474	4.9	5.7	4.0
	의약	2,132	1,067	1,065	2.4	3.1	2.0	146	54	92	1.4	1.5	1.3	1,986	1,013	973	2.5	3.3	2.1
	예·체능	8,791	5,481	3,310	6.5	8.0	5.0	848	425	423	4.4	5.2	3.8	7,943	5,056	2,887	6.9	8.4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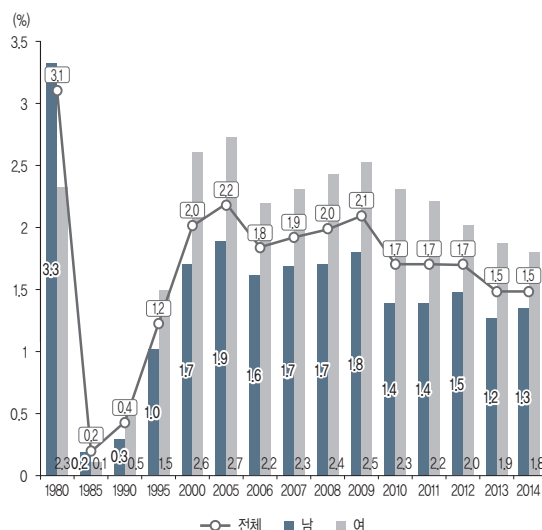
주: 중도탈락률=(중도탈락자 수/전년도 재적 학생 수) × 100

③ 편입

대학의 편입생 수는 <표 II-2-10>에 나타나듯이 1980학년도에 12,391명이었으나, 1985학년도에는 1,755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5학년도에는 13,928명으로 증가하였고, 2000학년도에는 33,326명으로 5년 사이에 무려 2만 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 이후로도 매년 약 3~4만 명 사이의 학생들이 편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학년도에는 31,996명의 학생이 편입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급격하게 편입생이 늘어난 이유는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의해서 대학의 설립이 자유로워져 고등교육기관의 재적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이와 함께 편입생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대학의 편입률은 1995학년도 이후로 1~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집단위별로 입학 정원의 범위에서 재적생의 결원에 따라 편입생 정원이 정해지기 때문이다(<그림 II-2-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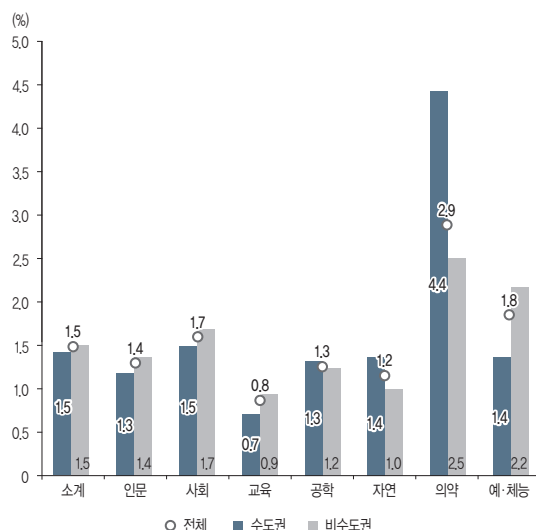
<그림 II-2-12>를 통해 2014학년도 계열별 편입률을 보면, 의약계열이 2.9%로 가장 높았고, 교육계열이 0.8%로 가장 낮았다. 예·체능계열(1.8%)은 의약계열 다음으로 편입률이 높았고, 사회계열(1.7%)도 다른 계열에 비해 편입률이 높은 편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편입률이 각각 1.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편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소재 대학의 의약계열 편입률은 4.4%로 전체 수도권 대학의 평균 편입률(1.5%)을 크게 웃돌았다. 비수도권 대학 의약계열의 편입률도 2.5%로 수도권 대학의 의약계열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비수도권 대학 전체 편입률(1.5%)보다는 약 1.0%p 정도 높은 편이었다. 이처럼 의약계열의 편입률이 높은 이유는 의약계열의 특성상 정원이 적고,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이 다른 계열에 비해 수요가 높은 데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표 II-2-11> 참조).



■ 그림 II-2-11 ■ 연도별 성별 편입률(1980~2014, 학년도 기준)

주: <표 II-2-10> 참조.



■ 그림 II-2-12 ■ 지역별 계열별 편입률(2014, 학년도 기준)

주: <표 II-2-11> 참조.

■ II. 대학 ■

■ 표 II-2-10 ■ 연도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 수 및 편입률(1980~2014,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편입생 수			편입률			편입생 수			편입률			편입생 수			편입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12,391	10,284	2,107	3.1	3.3	2.3	746	404	342	0.4	0.2	1.7	11,645	9,880	1,765	5.3	6.7	2.5
1985	1,755	1,427	328	0.2	0.2	0.1	82	66	16	0.0	0.0	0.0	1,673	1,361	312	0.2	0.3	0.2
1990	3,686	2,282	1,404	0.4	0.3	0.5	179	100	79	0.1	0.1	0.1	3,507	2,182	1,325	0.4	0.4	0.6
1995	13,928	8,213	5,715	1.2	1.0	1.5	1,265	1,029	236	0.4	0.5	0.3	12,663	7,184	5,479	1.4	1.2	1.9
2000	33,326	17,922	15,404	2.0	1.7	2.6	2,757	1,711	1,046	0.7	0.7	0.8	30,569	16,211	14,358	2.4	2.0	3.0
2005	40,517	21,973	18,544	2.2	1.9	2.7	5,956	3,698	2,258	1.5	1.4	1.7	34,561	18,275	16,286	2.4	2.0	3.0
2006	34,451	19,471	14,980	1.8	1.6	2.2	5,995	4,069	1,926	1.5	1.5	1.4	28,456	15,402	13,054	1.9	1.7	2.3
2007	37,388	20,816	16,572	1.9	1.7	2.3	6,252	4,186	2,066	1.5	1.5	1.5	31,136	16,630	14,506	2.1	1.8	2.5
2008	38,387	20,584	17,803	2.0	1.7	2.4	6,162	3,755	2,407	1.5	1.4	1.8	32,225	16,829	15,396	2.1	1.8	2.6
2009	40,802	22,348	18,454	2.1	1.8	2.5	9,423	6,722	2,701	2.2	2.4	2.0	31,379	15,626	15,753	2.0	1.6	2.6
2010	35,495	17,321	18,174	1.7	1.4	2.3	6,034	3,586	2,448	1.4	1.3	1.7	29,461	13,735	15,726	1.8	1.4	2.5
2011	35,773	18,246	17,527	1.7	1.4	2.2	8,440	5,249	3,191	1.9	1.8	2.2	27,333	12,997	14,336	1.7	1.3	2.2
2012	36,252	19,534	16,718	1.7	1.5	2.0	8,295	5,818	2,477	1.8	1.9	1.6	27,957	13,716	14,241	1.7	1.4	2.1
2013	31,413	15,861	15,552	1.5	1.2	1.9	6,185	3,831	2,354	1.3	1.2	1.5	25,228	12,030	13,198	1.5	1.2	2.0
2014	31,996	16,442	15,554	1.5	1.3	1.8	6,373	3,938	2,435	1.3	1.2	1.5	25,623	12,504	13,119	1.6	1.3	1.9

주: 편입률=(편입생 수/전년도 재적 학생 수) × 100

■ 표 II-2-11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편입생 수 및 편입률(2014, 학년도 기준)

(단위: 명, %)

		전체						국·공립						사립					
		편입생 수			편입률			편입생 수			편입률			편입생 수			편입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31,996	16,442	15,554	1.5	1.3	1.8	6,373	3,938	2,435	1.3	1.2	1.5	25,623	12,504	13,119	1.6	1.3	1.7
수도권	소계	11,526	5,709	5,817	1.5	1.3	1.7	881	549	332	1.3	1.2	1.4	10,645	5,160	5,485	1.5	1.3	1.7
	인문	1,553	466	1,087	1.3	0.9	1.5	74	25	49	1.2	0.8	1.5	1,479	441	1,038	1.3	0.9	1.5
	사회	3,612	1,755	1,857	1.5	1.3	1.7	155	77	78	1.0	0.8	1.4	3,457	1,678	1,779	1.6	1.4	1.8
	교육	177	34	143	0.7	0.3	0.9	1	0	1	0.0	0.0	0.1	176	34	142	0.8	0.4	1.0
	공학	2,694	2,159	535	1.3	1.3	1.3	419	346	73	1.8	1.8	1.6	2,275	1,813	462	1.3	1.2	1.3
	자연	1,204	545	659	1.4	1.2	1.5	84	32	52	0.8	0.5	1.3	1,120	513	607	1.4	1.3	1.6
	의약	1,025	258	767	4.4	3.2	5.2	11	3	8	0.9	0.5	1.2	1,014	255	759	4.7	3.4	5.3
	예·체능	1,261	492	769	1.4	1.4	1.4	137	66	71	1.7	1.5	2.0	1,124	426	698	1.3	1.4	1.3
비수도권	소계	20,470	10,733	9,737	1.5	1.3	2.0	5,492	3,389	2,103	1.3	1.2	1.5	14,978	7,344	7,634	1.6	1.3	2.1
	인문	2,120	739	1,381	1.4	1.0	1.8	626	227	399	1.6	1.2	1.8	1,494	512	982	1.4	0.9	1.8
	사회	6,597	3,401	3,196	1.7	1.5	2.2	1,334	740	594	1.7	1.5	1.9	5,263	2,661	2,602	1.8	1.4	2.3
	교육	542	148	394	0.9	0.6	1.1	99	29	70	0.4	0.3	0.6	443	119	324	1.2	0.8	1.4
	공학	4,306	3,571	735	1.2	1.2	1.5	2,064	1,727	337	1.3	1.3	1.4	2,242	1,844	398	1.1	1.1	1.5
	자연	1,769	842	927	1.0	0.9	1.3	859	439	420	1.0	0.9	1.2	910	403	507	1.1	0.9	1.4
	의약	2,227	653	1,574	2.5	1.9	2.9	222	94	128	2.1	2.6	1.8	2,005	559	1,446	2.6	1.8	3.1
	예·체능	2,909	1,379	1,530	2.2	2.0	2.3	288	133	155	1.5	1.6	1.4	2,621	1,246	1,375	2.3	2.1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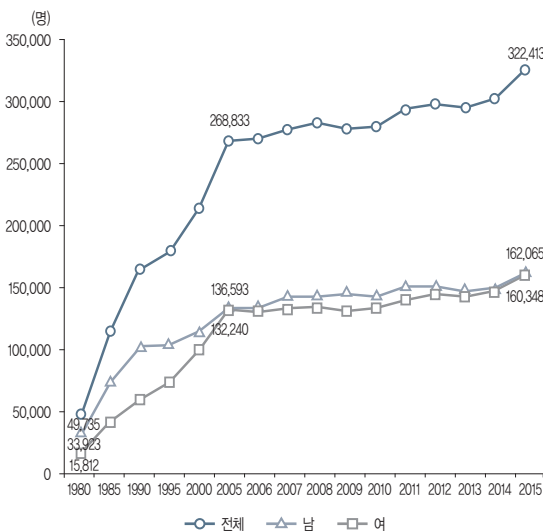
주: 편입률=(편입생 수/전년도 재적 학생 수) × 100

4) 졸업

2015년 대학 졸업자 수⁶⁾는 322,413명으로 남학생은 162,065명, 여학생은 160,348명이었다. 대학의 전체 졸업자 수는 1980년(49,735명)부터 2005년(268,833명)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2009년과 2013년에 소폭 감소하였지만, 이외에는 해마다 졸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년에 비해 2만명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졸업자 중 여학생의 비율은 1980년 31.8%였으나 1995년에는 40%를 넘어섰고 2005년에는 49.2%에 이르렀다. 이후로는 조금 감소하였지만 40% 후반대를 유지하였으며 2015년에는 49.7%까지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1980년 이래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 중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재적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도 일치한다(그림 II-2-13, <표 II-2-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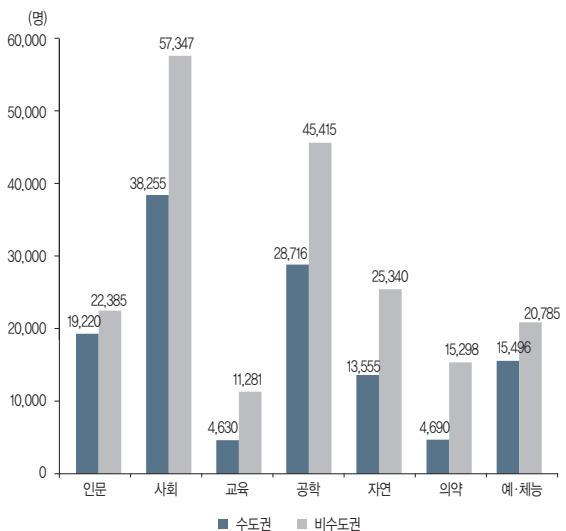
설립별로 졸업자 수를 살펴보면, 1980년 국·공립대학 졸업자는 12,936명이며 사립대학 졸업자는 36,799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국·공립대학 졸업자가 68,831명, 사립대학 졸업자가 253,582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국·공립대학은 약 5.3배가 늘어났으며 사립대학은 약 6.9배가 늘어났다(<표 II-2-12> 참조). 이처럼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 졸업자가 더 많이 증가한 이유는 사립대학 진학자가 국·공립보다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II-2-13>을 통해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의 졸업자는 124,562명, 비수도권 대학의 졸업자는 197,851명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졸업자(61.4%)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계열별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사회계열 졸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이 높았다(그림 II-2-14 참조). 이러한 순위는 각 계열별 학생의 비율과 일치한다(<표 II-2-2> 참조).



■ 그림 II-2-13 ■ 연도별 성별 졸업자 수(1980~2015)

주: <표 II-2-12> 참조.



■ 그림 II-2-14 ■ 지역별 계열별 졸업자 수(2015)

주: <표 II-2-13> 참조.

6) 졸업자는 전년도 8월 졸업자 및 당해 연도 2월 졸업자를 포함함.

■ II. 대학 ■

■ 표 II-2-12 ■ 연도별 설립별 성별 졸업자 수(1980~2015)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49,735	33,923	15,812	12,936	10,118	2,818	36,799	23,805	12,994
1985	118,584	75,813	42,771	31,395	21,267	10,128	87,189	54,546	32,643
1990	165,916	104,627	61,289	43,086	28,393	14,693	122,830	76,234	46,596
1995	180,664	105,853	74,811	45,603	27,536	18,067	135,061	78,317	56,744
2000	214,498	113,573	100,925	50,868	28,361	22,507	163,630	85,212	78,418
2005	268,833	136,593	132,240	58,957	31,904	27,053	209,876	104,689	105,187
2006	270,546	137,827	132,719	58,155	31,886	26,269	212,391	105,941	106,450
2007	277,858	145,116	132,742	60,055	33,855	26,200	217,803	111,261	106,542
2008	282,670	147,606	135,064	60,832	34,090	26,742	221,838	113,516	108,322
2009	279,059	147,128	131,931	61,730	35,292	26,438	217,329	111,836	105,493
2010	280,341	146,180	134,161	61,757	35,789	25,968	218,584	110,391	108,193
2011	293,967	152,638	141,329	63,499	36,894	26,605	230,468	115,744	114,724
2012	298,883	153,804	145,079	64,027	37,569	26,458	234,856	116,235	118,621
2013	294,952	150,949	144,003	62,673	36,602	26,071	232,279	114,347	117,932
2014	301,606	152,481	149,125	65,392	37,344	28,048	236,214	115,137	121,077
2015	322,413	162,065	160,348	68,831	39,239	29,592	253,582	122,826	130,756

주: 1) 2010년의 경우, 시범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한 한국과학기술원의 학부 졸업자 738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전체 졸업자 수 총계(279,603명)와 다름.

2) 2012년의 경우, 폐교된 명신대학교 졸업자 156명이 취업통계조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전체 졸업자 수 총계(298,727명)와 다름.

■ 표 II-2-13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졸업자 수(2015)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322,413	162,065	160,348	68,831	39,239	29,592	253,582	122,826	130,756
수도권	소계	124,562	60,037	64,525	8,744	5,250	3,494	115,818	54,787	61,031
	인문	19,220	6,093	13,127	866	315	551	18,354	5,778	12,576
	사회	38,255	18,612	19,643	2,214	1,274	940	36,041	17,338	18,703
	교육	4,630	1,483	3,147	388	187	201	4,242	1,296	2,946
	공학	28,716	22,133	6,583	2,552	2,083	469	26,164	20,050	6,114
	자연	13,555	5,713	7,842	1,320	707	613	12,235	5,006	7,229
	의약	4,690	1,258	3,432	237	87	150	4,453	1,171	3,282
	예·체능	15,496	4,745	10,751	1,167	597	570	14,329	4,148	10,181
비수도권	소계	197,851	102,028	95,823	60,087	33,989	26,098	137,764	68,039	69,725
	인문	22,385	7,837	14,548	5,854	1,874	3,980	16,531	5,963	10,568
	사회	57,347	29,517	27,830	12,148	6,479	5,669	45,199	23,038	22,161
	교육	11,281	3,895	7,386	4,186	1,759	2,427	7,095	2,136	4,959
	공학	45,415	37,133	8,282	20,051	16,246	3,805	25,364	20,887	4,477
	자연	25,340	11,589	13,751	12,494	6,136	6,358	12,846	5,453	7,393
	의약	15,298	4,244	11,054	2,173	458	1,715	13,125	3,786	9,339
	예·체능	20,785	7,813	12,972	3,181	1,037	2,144	17,604	6,776	10,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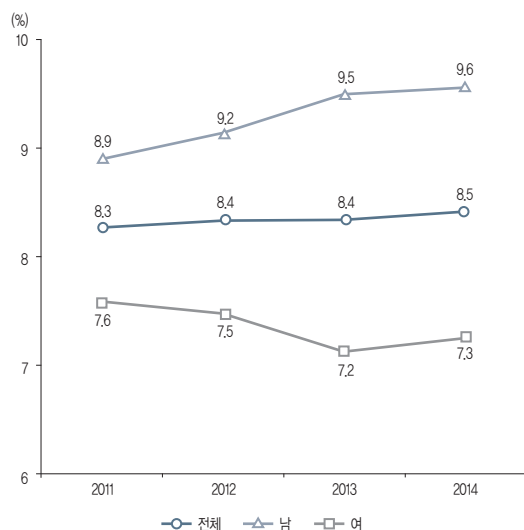
5) 진학률·취업률

① 진학률

대학의 진학률 및 취업률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및 국세DB와 연계해 조사된 취업통계 DB에서 산정되며,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되는 교육기본통계와는 달리 전년도 12월 31일을 조사 기준일로 한다. 이때 조사 대상이 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는 전년도 2월 및 전전년도 8월 졸업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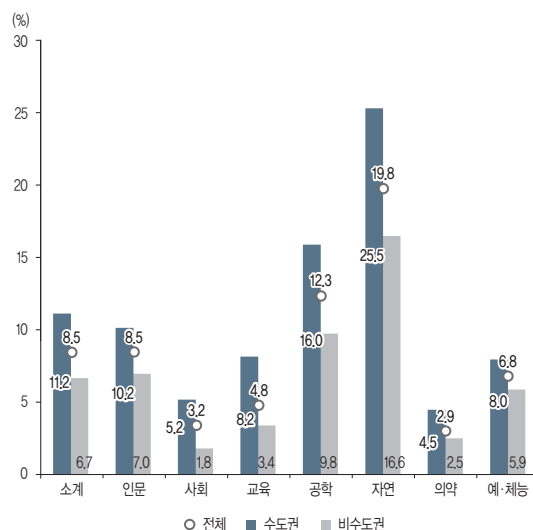
[그림 II-2-15]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 8.3%에서 2014년 8.5%로 약 0.2%p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 8.9%에서 2014년 9.6%로 약 0.7%p 증가한 반면, 여자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 7.6%에서 2014년 7.3%로 약 0.3%p 감소하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남자 졸업자의 진학률이 여자 졸업자의 진학률보다 약 2.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16]에서 대학 졸업자의 진학률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자연계열 졸업자의 진학률이 19.8%로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 졸업자의 진학률도 10%를 넘었다. 인문계열의 진학률은 8.5%, 예·체능계열은 6.8%로 나타났고, 교육계열의 진학률은 4.8%, 사회계열의 진학률은 3.2%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자의 진학률이 가장 낮은 계열은 의약계열(2.5%)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의 진학률은 11.2%이었고, 비수도권 대학은 6.7%로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진학률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약 4.5%p 높게 나타났다. 계열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은 자연계열(25.5%)의 진학률이 월등히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공학계열(16.0%), 인문계열(10.2%), 교육계열(8.2%), 예·체능계열(8.0%), 사회계열(5.2%), 의약계열(4.5%) 순으로 높았다. 비수도권 대학도 자연계열(16.6%) 졸업자의 진학률이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9.8%), 인문계열(7.0%), 예·체능계열(5.9%), 교육계열(3.4%), 의약계열(2.5%), 사회계열(1.8%) 순으로 높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자연계열, 공학계열의 진학률이 높은 편이었고, 사회계열과 의약계열의 진학률이 낮게 나타났다.



■ 그림 II-2-15 ■ 연도별 성별 진학률(2011~2014)

주: <표 II-2-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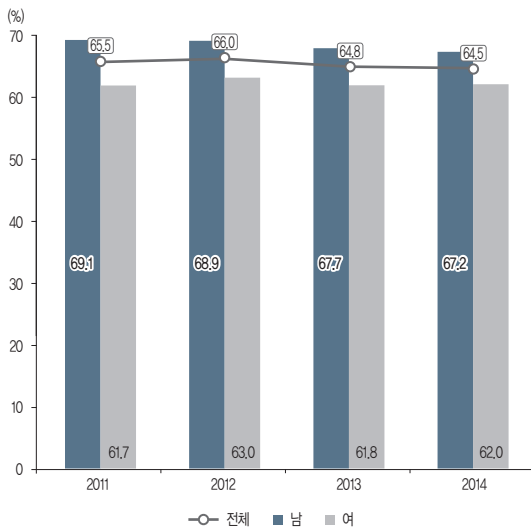


■ 그림 II-2-16 ■ 지역별 계열별 진학률(2014)

주: <표 II-2-15> 참조.

■ II. 대학 ■

② 취업률



■ 그림 II-2-17 ■ 연도별 성별 취업률(2011~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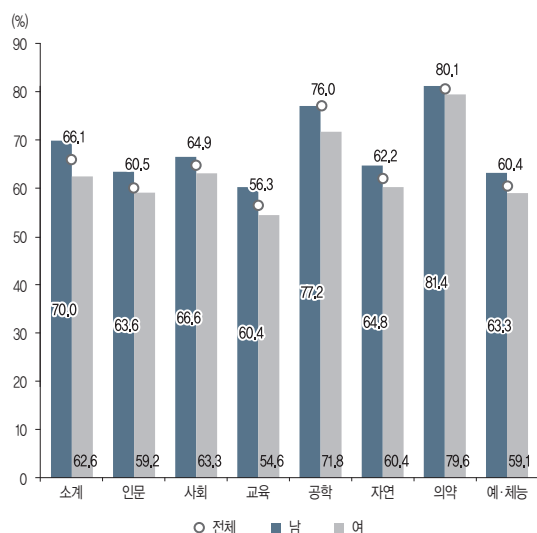
주: <표 II-2-16> 참조.

보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남자 졸업자의 취업률은 65.5%, 여자 졸업자는 61.5%였다. 이처럼 성별 취업률 격차가 수도권에서는 약 7.4%p, 비수도권에서는 약 4.0%p로 나타나, 비수도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에서 남녀 취업률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I-2-17> 참조).

계열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은 의약계열(80.1%)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공학계열(76.0%), 사회계열(64.9%) 순으로 높았다. 비수도권 대학 역시 의약계열(81.8%)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공학계열(71.7%), 자연계열(61.8%) 순으로 높았다. 아울러 수도권 대학에서 취업률이 가장 낮은 계열은 교육계열로 56.3% 이었고,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교육계열의 취업률이 51.6%로 가장 낮았다. 의약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높았으며, 이 가운데 인문계열 취업률의 지역별 차이가 약 5.5%p로 가장 컸다. 남녀 간 취업률 차이가 가장 큰 계열은 수도권 대학의 경우 교육계열로 남자 졸업자의 취업률이 약 5.8%p 더 높았으며,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예·체능계열로 남자 졸업자의 취업률이 약 7.8%p 더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모든 계열에서 남자 졸업자의 취업률이 여자 졸업자보다 높았던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사회계열과 교육계열에서 여자 졸업자의 취업률이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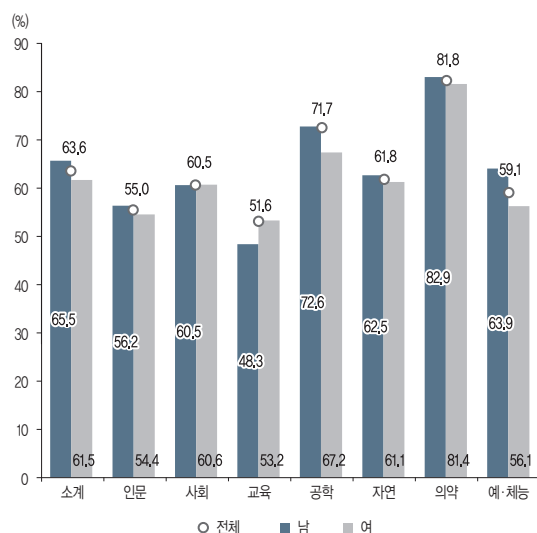
연도별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II-2-17]과 같다. 2011년 65.5%에서 2012년 66.0%로 약 0.5%p 상승했으나, 이후로는 계속 감소하여 2014년에는 64.5%로 나타났다. 성별 취업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남자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여자 졸업자들에 비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녀 취업률 차이의 정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1년에는 그 격차가 약 7.4%p였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약 5.9%p 차이를 보였으며, 2014년은 약 5.2%p로 나타났다.

[그림 II-2-18, 19]에서 2014년 지역별 성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66.1%, 비수도권 대학 63.6%로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이 약 2.5%p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에서 남자 졸업자의 전체 취업률이 여자 졸업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수도권에서는 남자가 70.0%, 여자가 62.6%의 취업률을



■ 그림 II-2-18 ■ 수도권 계열별 성별 취업률(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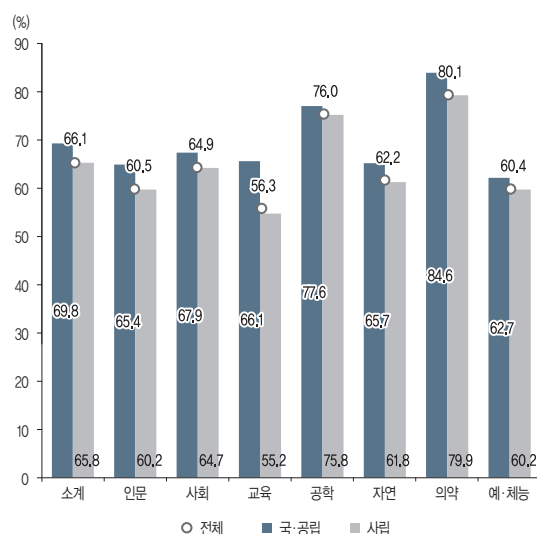
주: <표 II-2-17> 참조.



■ 그림 II-2-19 ■ 비수도권 계열별 성별 취업률(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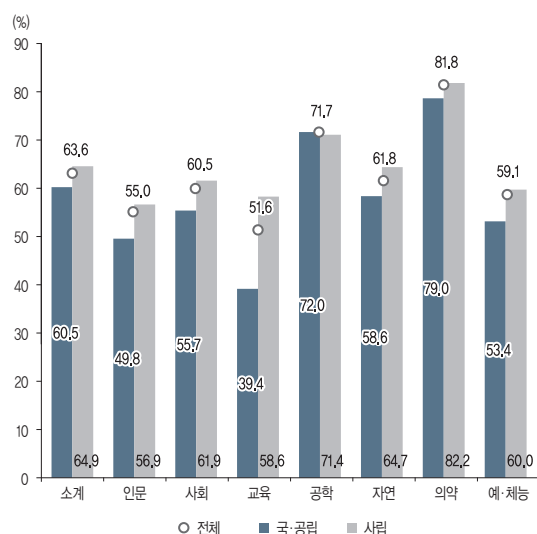
주: <표 II-2-17> 참조.

[그림 II-2-20, 21]에서 설립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국·공립대학이 69.8%, 사립대학이 65.8%이며, 비수도권에서는 국·공립대학이 60.5%, 사립대학이 64.9%로, 수도권에서는 국·공립대학의 취업률이 높았고, 비수도권에서는 사립대학의 취업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취업률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계열은 교육계열로, 수도권에서는 국·공립대학이 약 10.9%p 높았고, 비수도권에서는 사립대학이 약 19.2%p 높았다.



■ 그림 II-2-20 ■ 수도권 계열별 설립별 취업률(2014)

주: <표 II-2-17> 참조.



■ 그림 II-2-21 ■ 비수도권 계열별 설립별 취업률(2014)

주: <표 II-2-17> 참조.

■ II. 대학 ■

■ 표 II-2-14 ■ 연도별 설립별 성별 진학률(2011~2014)

(단위: %)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1	8.3	8.9	7.6	10.8	11.5	9.9	7.6	8.1	7.1
2012	8.4	9.2	7.5	10.9	11.8	9.7	7.7	8.3	7.0
2013	8.4	9.5	7.2	11.5	12.6	9.9	7.5	8.5	6.6
2014	8.5	9.6	7.3	11.4	12.6	10.0	7.6	8.6	6.7

주: 진학률=(진학자 수/당해 연도 졸업자 수) × 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이하 동일).

■ 표 II-2-15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진학률(2014)

(단위: %)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전체	8.5	9.6	7.3	11.4	12.6	10.0	7.6	8.6	6.7
	인문	8.5	11.0	7.3	8.0	8.5	7.8	8.6	11.5	7.2
	사회	3.2	3.1	3.4	3.8	4.0	3.5	3.1	2.9	3.3
	교육	4.8	5.7	4.4	4.2	5.4	3.5	5.1	5.9	4.8
	공학	12.3	12.3	12.0	14.1	13.8	15.3	11.4	11.6	10.5
	자연	19.8	22.7	17.3	21.2	23.6	18.8	18.9	22.1	16.6
	의약	2.9	5.4	2.0	1.5	2.3	1.3	3.1	5.7	2.1
	예·체능	6.8	5.1	7.7	9.2	6.8	10.7	6.5	4.8	7.3
수도권	소계	11.2	12.9	9.5	17.1	18.5	14.9	10.7	12.4	9.2
	인문	10.2	14.0	8.5	13.1	12.5	13.3	10.1	14.1	8.3
	사회	5.2	4.9	5.5	12.0	11.7	12.5	4.8	4.4	5.2
	교육	8.2	9.2	7.8	17.5	19.3	16.4	7.2	7.8	6.9
	공학	16.0	16.7	13.6	19.7	20.5	15.8	15.6	16.3	13.3
	자연	25.5	30.5	21.7	34.7	39.5	28.4	24.4	29.0	21.2
	의약	4.5	7.1	3.5	4.7	0.0	7.8	4.5	7.5	3.3
	예·체능	8.0	5.9	9.0	6.1	5.2	7.1	8.2	6.0	9.1
비수도권	소계	6.7	7.6	5.8	10.5	11.5	9.2	5.0	5.6	4.4
	인문	7.0	8.6	6.2	7.2	7.8	7.0	7.0	8.9	5.9
	사회	1.8	1.9	1.8	2.2	2.4	2.0	1.7	1.7	1.7
	교육	3.4	4.3	2.9	2.6	3.8	1.8	3.8	4.7	3.5
	공학	9.8	9.6	10.7	13.3	12.8	15.2	6.9	7.0	6.6
	자연	16.6	18.7	14.7	19.7	21.6	17.8	13.4	15.4	11.8
	의약	2.5	4.9	1.6	1.1	2.9	0.8	2.7	5.1	1.7
	예·체능	5.9	4.6	6.7	10.6	7.9	11.8	5.0	4.2	5.6

■ 표 II-2-16 ■ 연도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1~2014)

(단위: %)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1	65.5	69.1	61.7	63.8	68.9	56.9	66.0	69.1	62.8
2012	66.0	68.9	63.0	62.8	67.8	55.8	66.9	69.3	64.6
2013	64.8	67.7	61.8	61.4	66.2	54.9	65.7	68.2	63.2
2014	64.5	67.2	62.0	61.8	66.1	56.1	65.3	67.5	63.3

- 주: 1) 취업자 정의 : 조사기준일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 교내취업자(2014년 기준):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학교법인 및 관련 기관(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에 1년 이상 계약한 자로서, 최저임금(2014년 : 1,088,890원, 2015년 : 1,166,220원) 이상의 월 급여를 받는 자.
 - 해외취업자: 조사 기준일 당시 해외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
 - 농림어업종사자: 조사 기준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 조사 기준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개인작품 창작활동을 하는 자.
 - 1인 창(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2014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인 자.
 - 프리랜서 : 2014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액이 3,266,670원 이상인 자.
 2) 취업률을 구하는 방식은 연도에 따라 조금씩 변하여 왔음.

연도	취업률	취업자	취업대상자
2011~2013	$\frac{\text{취업자}}{\text{취업대상자}} \times 10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201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 취업불가능자: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를 포함함.
 - 제외인정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여자군인 중 입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을 포함함.
 - 외국인유학생: 외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 및 순수외국인을 포함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이하 동일).

■ 표 II-2-17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취업률(2014)

(단위: %)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전체	64.5	67.2	62.0	61.8	66.1	56.1	65.3	67.5	63.3
	인문	57.5	59.3	56.7	51.8	54.8	50.4	58.6	60.2	57.9
	사회	62.3	62.9	61.7	57.6	59.4	55.6	63.1	63.5	62.7
	교육	52.9	51.4	53.6	41.9	45.2	39.7	57.4	54.9	58.3
	공학	73.3	74.3	69.2	72.7	74.1	66.7	73.6	74.4	70.3
	자연	61.9	63.2	60.9	59.3	61.4	57.2	63.3	64.4	62.6
	의약	81.4	82.5	81.0	79.5	81.2	79.2	81.7	82.6	81.3
	예·체능	59.6	63.7	57.5	56.2	64.5	51.6	60.1	63.6	58.3
수도권	소계	66.1	70.0	62.6	69.8	73.5	64.6	65.8	69.7	62.5
	인문	60.5	63.6	59.2	65.4	69.5	63.3	60.2	63.2	59.0
	사회	64.9	66.6	63.3	67.9	71.1	63.6	64.7	66.3	63.2
	교육	56.3	60.4	54.6	66.1	70.1	63.9	55.2	59.0	53.7
	공학	76.0	77.2	71.8	77.6	78.3	75.1	75.8	77.1	71.5
	자연	62.2	64.8	60.4	65.7	68.2	63.0	61.8	64.4	60.2
	의약	80.1	81.4	79.6	84.6	86.4	83.3	79.9	81.0	79.5
	예·체능	60.4	63.3	59.1	62.7	68.3	57.7	60.2	62.6	59.2
비수도권	소계	63.6	65.5	61.5	60.5	64.9	54.9	64.9	65.8	63.9
	인문	55.0	56.2	54.4	49.8	52.4	48.6	56.9	57.5	56.6
	사회	60.5	60.5	60.6	55.7	57.0	54.2	61.9	61.5	62.3
	교육	51.6	48.3	53.2	39.4	42.9	37.1	58.6	52.6	60.9
	공학	71.7	72.6	67.2	72.0	73.5	65.4	71.4	72.0	68.7
	자연	61.8	62.5	61.1	58.6	60.7	56.7	64.7	64.4	64.8
	의약	81.8	82.9	81.4	79.0	79.8	78.9	82.2	83.1	81.9
	예·체능	59.1	63.9	56.1	53.4	62.0	49.5	60.0	64.2	57.4

■ II. 대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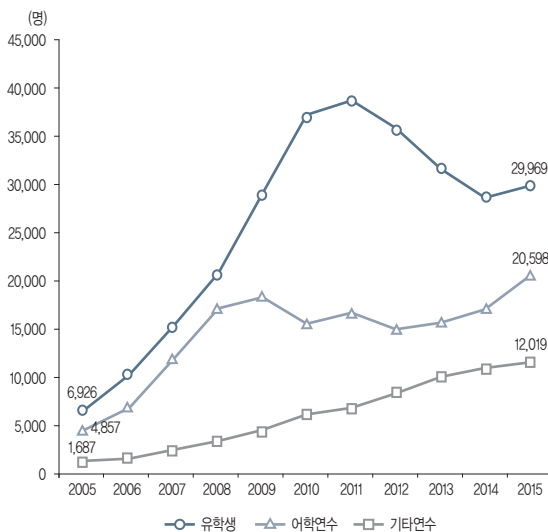
6)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 현황

[그림 II-2-22]에 의하면 국내 대학의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005년 6,926명에서 2011년 39,02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15년에는 전년보다 조금 증가한 29,969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2005년 이래로 2007년을 제외하고는 여학생 수가 남학생보다 더 많았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대략 1대 1의 성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II-2-18〉 참조).

지역별로 계열별 외국인 유학생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사회계열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9,117명으로, 수도권 대학 전체 유학생의 54.8%가 사회계열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은 각각 51명, 97명으로 이 둘을 합해도 수도권 대학 전체 유학생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사회계열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전체의 4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은 각각 159명, 223명으로 이 둘을 합하여도 비수도권 대학 유학생 전체의 2.9%에 불과했다(〈표 II-2-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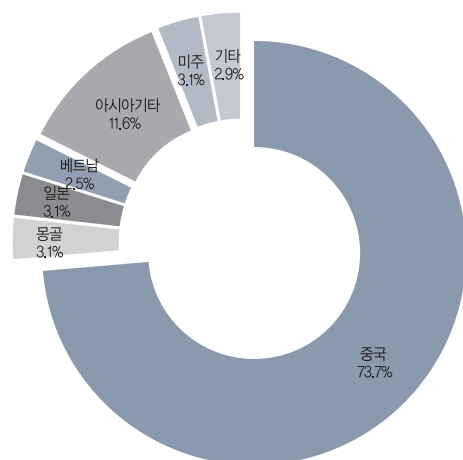
[그림 II-2-23]에서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73.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은 아시아 기타 국가가 11.6%, 몽골, 일본, 미주 지역이 각각 3.1%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가 특정 국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 그 국가의 유학생 상황과 선호도 변화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들을 고르게 유치하여 유학생 교육여건을 균형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외국인 연수생은 2005년에는 6,544명에 불과하였지만 2015년에는 32,617명으로 2005년 대비 약 5배 정도 증가했다. 외국인 연수생은 어학연수와 기타연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5년에는 어학연수생 4,857명, 기타연수생 1,687명으로 어학연수생이 전체의 74.2%정도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어학연수생 20,598명, 기타연수생 12,019명으로 어학연수생이 전체 연수생의 63.2%정도를 차지했다. 결론적으로 어학연수생의 비중이 기타연수 보다 지속적으로 높았으나, 2005년 대비 약 11.1%p 감소하여 어학연수생과 기타연수생간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22〉 참조).



■ 그림 II-2-22 ■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 수(2005~2015)

주: 〈표 II-2-18, 22〉 참조



■ 그림 II-2-23 ■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2015)

주: 〈표 II-2-20〉 참조

■ 표 II-2-18 ■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2005~2015)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5	6,926	3,317	3,609	1,036	486	550	5,890	2,831	3,059
2006	10,670	5,279	5,391	1,420	731	689	9,250	4,548	4,702
2007	15,696	7,933	7,763	2,036	1,063	973	13,660	6,870	6,790
2008	21,114	10,503	10,611	3,022	1,569	1,453	18,092	8,934	9,158
2009	29,422	14,444	14,978	4,433	2,231	2,202	24,989	12,213	12,776
2010	37,491	18,093	19,398	6,299	3,196	3,103	31,192	14,897	16,295
2011	39,029	18,770	20,259	7,109	3,634	3,475	31,920	15,136	16,784
2012	36,116	17,132	18,984	6,963	3,512	3,451	29,153	13,620	15,533
2013	31,950	15,217	16,733	6,263	3,189	3,074	25,687	12,028	13,659
2014	28,919	13,572	15,347	5,624	2,805	2,819	23,295	10,767	12,528
2015	29,969	13,592	16,377	5,086	2,538	2,548	24,883	11,054	13,829

주: 본 자료는 4년제 일반대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대학과정(산업대, 교육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포함)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와는 차이가 있음.

■ 표 II-2-19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2015)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29,969	13,592	16,377	5,086	2,538	2,548	24,883	11,054	13,829
수도권	소계	16,643	7,006	9,637	646	300	346	15,997	6,706	9,291
	인문	2,601	709	1,892	75	11	64	2,526	698	1,828
	사회	9,117	3,723	5,394	240	90	150	8,877	3,633	5,244
	교육	51	9	42	8	1	7	43	8	35
	공학	2,222	1,696	526	215	159	56	2,007	1,537	470
	자연	1,135	382	753	62	23	39	1,073	359	714
	의약	97	24	73	12	7	5	85	17	68
	예·체능	1,420	463	957	34	9	25	1,386	454	932
비수도권	소계	13,326	6,586	6,740	4,440	2,238	2,202	8,886	4,348	4,538
	인문	2,057	703	1,354	579	168	411	1,478	535	943
	사회	6,594	3,139	3,455	1,997	871	1,126	4,597	2,268	2,329
	교육	159	53	106	42	9	33	117	44	73
	공학	1,955	1,627	328	1,025	864	161	930	763	167
	자연	870	377	493	609	265	344	261	112	149
	의약	223	101	122	15	1	14	208	100	108
	예·체능	1,468	586	882	173	60	113	1,295	526	769

■ 표 II-2-20 ■ 지역별 출신국가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2015)

(단위: 명)

	전체	아시아					미주			기타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기타	미국	캐나다	기타	
전체	29,969	22,073	932	761	926	3,465	432	272	233	875
수도권	16,643	11,996	551	296	421	2,134	322	225	164	534
비수도권	13,326	10,077	381	465	505	1,331	110	47	69	341

주: 1) '기타'는 아시아와 미주 지역에 속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나타냄.
 2) 아시아의 '기타'는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지역 국가를 나타냄.
 3) 미주의 '기타'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미주 지역 국가를 나타냄.

■ II. 대학 ■

■ 표 II-2-21 ■ 연도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현황(2007~2015)

(단위: 명)

	전체	본국귀국	국내취업	국내진학	미상
2007	1,462	890	99	473	-
2008	2,280	1,318	82	880	-
2009	3,563	2,128	134	1,301	-
2010	4,798	2,004	167	1,551	1,076
2011	6,383	3,269	294	1,589	1,231
2012	9,492	4,684	612	1,634	2,562
2013	10,238	3,957	454	1,572	4,255
2014	18,793	6,917	1,407	2,077	8,392
2015	15,675	4,962	1,045	1,694	7,974

주: 2009년까지는 본국귀국, 국내취업, 국내진학 세 범주로만 구분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현황을 조사하였으나, 2010년에 '미상' 범주를 추가함.

■ 표 II-2-22 ■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연수생 수(2005~2015)

(단위: 명)

	전체			어학연수			기타연수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5	6,544	2,881	3,663	4,857	2,244	2,613	1,687	637	1,050
2006	9,167	3,895	5,272	7,249	3,228	4,021	1,918	667	1,251
2007	15,146	6,525	8,621	12,272	5,624	6,648	2,874	901	1,973
2008	21,229	9,331	11,898	17,467	8,117	9,350	3,762	1,214	2,548
2009	23,576	9,699	13,877	18,690	8,183	10,507	4,886	1,516	3,370
2010	22,462	8,550	13,912	15,893	6,691	9,202	6,569	1,859	4,710
2011	24,253	8,948	15,305	17,065	6,909	10,156	7,188	2,039	5,149
2012	23,971	8,893	15,078	15,275	6,306	8,969	8,696	2,587	6,109
2013	26,498	9,636	16,862	16,056	6,494	9,562	10,442	3,142	7,300
2014	28,805	9,951	18,854	17,434	6,712	10,722	11,371	3,239	8,132
2015	32,617	10,992	21,625	20,598	7,708	12,890	12,019	3,284	8,735

주: 본 자료는 4년제 일반대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대학과정(산업대, 교육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포함)의 국내 외국인 연수생 수와는 차이가 있음.

■ 표 II-2-23 ■ 연도별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연수생 수(2005~2015)

(단위: 명)

	전체	아시아					미주			기타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기타	미국	캐나다	기타	
2005	6,544	2,616	203	135	1,665	670	479	83	61	632
2006	9,167	4,074	251	179	2,435	734	694	86	48	666
2007	15,146	8,874	374	420	2,595	1,069	768	103	68	875
2008	21,229	13,837	684	260	2,383	1,612	1,010	127	122	1,194
2009	23,576	14,237	945	258	2,936	2,029	1,178	163	197	1,633
2010	22,462	12,438	979	238	2,723	2,327	1,298	184	202	2,073
2011	24,253	11,938	970	366	3,193	3,149	1,604	250	279	2,504
2012	23,971	11,986	986	486	2,773	3,246	1,500	194	302	2,498
2013	26,498	12,545	1,018	764	2,997	4,131	1,285	209	533	3,016
2014	28,805	14,747	670	835	2,434	4,528	1,252	201	613	3,525
2015	32,617	18,263	628	1,477	1,933	4,622	1,238	182	576	3,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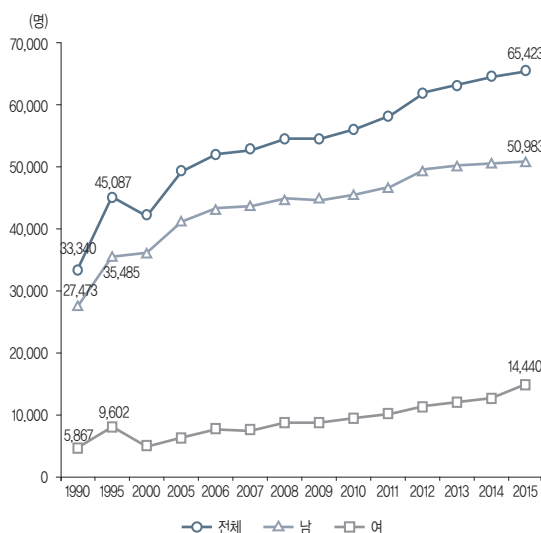
- 주: 1) 외국인 연수생은 어학연수와 기타연수 학생의 수를 합산한 것임.
 2) 출신국가별 외국인 연수생에는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가 포함됨.
 3) '기타'는 아시아와 미주 지역에 속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나타냄.
 4) 아시아의 '기타'는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지역 국가를 나타냄.
 5) 미주의 '기타'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미주 지역 국가를 나타냄.

3 교원

1) 교원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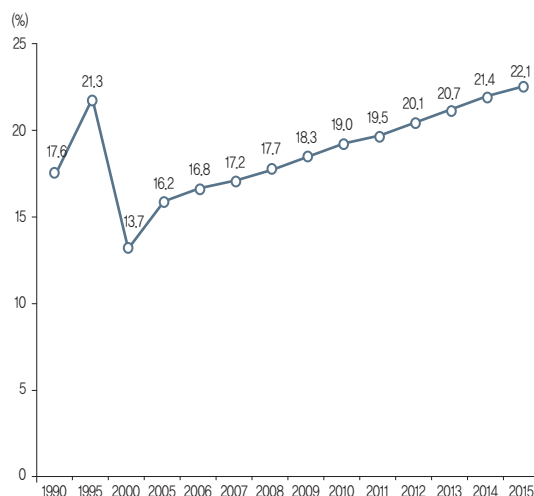
대학의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2년 이전에는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되었으나, 2013년 '전임강사제'를 폐지하면서 전임교원에는 전임강사를 제외한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된다. 한편 비전임교원에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명예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기타 등이 포함된다.

먼저 [그림 II-3-1]에서 전임교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33,340명에서 1995년 45,087명으로 1만명 이상 증가했던 전임교원 수는 2000년 41,943명으로 감소한 뒤 이후 서서히 증가해 2015년에는 65,423명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약 2배 증가했다. 한편 [그림 II-3-2]를 통해 전임 여교원 비율의 연도별 변동을 살펴보면, 1990년 17.6%에서 1995년 21.3%로 증가했다가 2000년에 13.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22.1%로 나타났지만, 전임교원의 남녀 비율은 약 4.5:1로 여전히 남교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 그림 II-3-1 ■ 연도별 성별 전임교원 수(1990~2015)

주: <표 II-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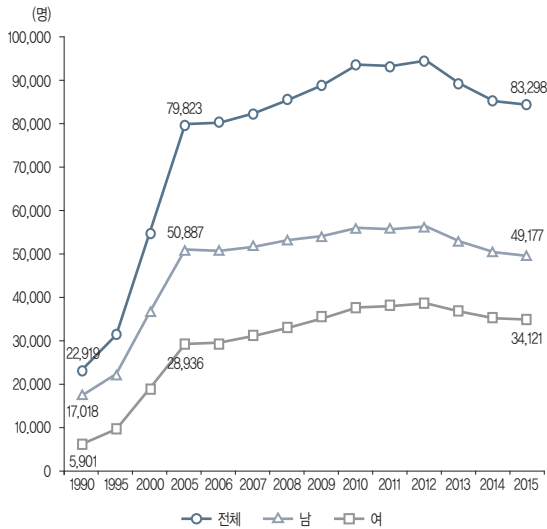
■ 그림 II-3-2 ■ 연도별 전임 여교원 비율(1990~2015)

주: <표 II-3-1> 참조.

다음으로 [그림 II-3-3]의 비전임교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22,919명에서 2005년 79,82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던 비전임교원 수는 이후 2012년 94,423명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에는 83,298명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약 4배 증가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등교육의 양적팽창 시기인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전임교원은 45,087명에서 41,943명으로 3,144명이 감소한 반면에 비전임교원은 24,228명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에 따른 교원 수요의 상당 부분을 비전임교원에 의존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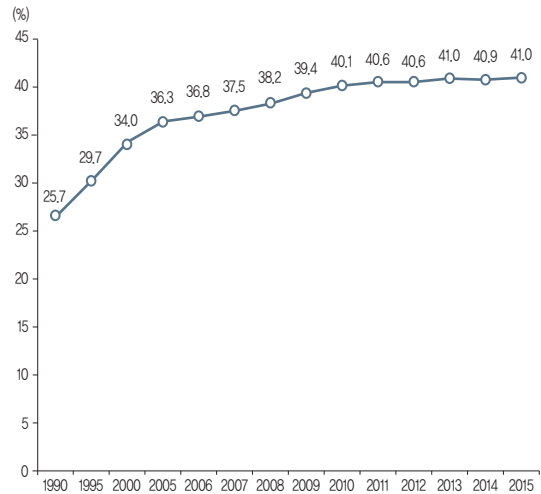
한편 비전임 여교원 비율의 경우, 1990년 25.7%에서 2005년 36.3%로 큰 폭으로 증가한 뒤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기 시작해 2015년에는 41.0%로 나타났다. 비전임교원의 남녀 비율은 약 3:2 정도로 전임교원보다 비전임교원에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3-4] 참조).

■ II. 대학 ■



■ 그림 II-3-3 ■ 연도별 성별 비전임교원 수(1990~2015)

주: <표 II-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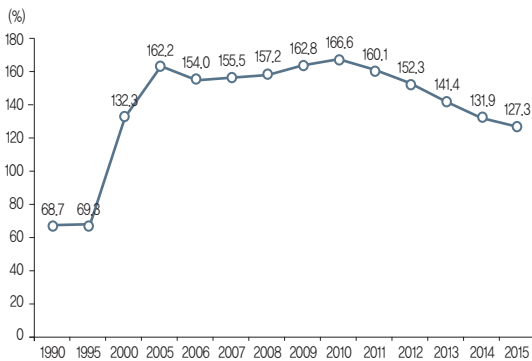


■ 그림 II-3-4 ■ 연도별 비전임 여교원 비율(1990~2015)

주: <표 II-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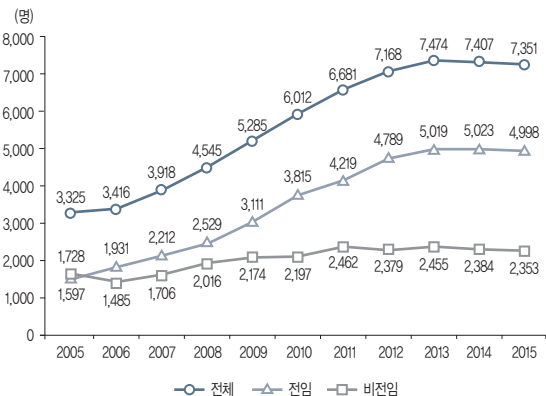
연도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0년에는 68.7%로 전임교원이 비전임교원보다 많았다. 그러나 1995년 이후로 비전임교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결과 2005년에는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162.2%까지 상승하였고, 2010년 166.6%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5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의 비율은 127.3%로 낮아졌다. 이와 같은 추세를 통해 고등교육 양적 확대에 따른 교원의 확대가 주로 비전임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그림 II-3-5 참조).

대학의 외국인 교원 수를 살펴보면, 2005년 3,325명 이후 외국인 교원 수는 거의 매년 증가하면서, 2015년에는 2005년 대비 약 2.2배 증가한 7,35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전임교원이 비전임교원 보다 많았으며, 그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15년 전체 외국인 교원 중에서 전임교원의 비중은 68.0%로 외국인 교원 10명 중에 약 7명이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3-3> 참조).



■ 그림 II-3-5 ■ 연도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1990~2015)

주: <표 II-3-1> 참조.



■ 그림 II-3-6 ■ 연도별 외국인 교원 수(2005~2015)

주: <표 II-3-3> 참조.

■ 표 II-3-1 ■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교원 수(1990~2015)

(단위: 명)

	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90	33,340	27,473	5,867	10,373	9,234	1,139	22,967	18,239	4,728
1995	45,087	35,485	9,602	12,697	10,971	1,726	32,390	24,514	7,876
2000	41,943	36,185	5,758	11,359	10,393	966	30,584	25,792	4,792
2005	49,200	41,227	7,973	13,008	11,618	1,390	36,192	29,609	6,583
2006	51,859	43,151	8,708	13,385	11,919	1,466	38,474	31,232	7,242
2007	52,763	43,671	9,092	13,510	11,973	1,537	39,253	31,698	7,555
2008	54,331	44,728	9,603	13,703	12,119	1,584	40,628	32,609	8,019
2009	54,518	44,528	9,990	13,301	11,682	1,619	41,217	32,846	8,371
2010	55,972	45,335	10,637	13,746	12,014	1,732	42,226	33,321	8,905
2011	58,104	46,797	11,307	14,489	12,665	1,824	43,615	34,132	9,483
2012	61,993	49,528	12,465	15,341	13,373	1,968	46,652	36,155	10,497
2013	63,042	49,974	13,068	15,418	13,386	2,032	47,624	36,588	11,036
2014	64,378	50,583	13,795	15,579	13,468	2,111	48,799	37,115	11,684
2015	65,423	50,983	14,440	15,653	13,479	2,174	49,770	37,504	12,266
	비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90	22,919	17,018	5,901	5,194	4,154	1,040	17,725	12,864	4,861
1995	31,265	21,976	9,289	7,595	5,651	1,944	23,670	16,325	7,345
2000	55,493	36,624	18,869	12,626	8,856	3,770	42,867	27,768	15,099
2005	79,823	50,887	28,936	15,907	10,735	5,172	63,916	40,152	23,764
2006	79,848	50,458	29,390	16,174	10,816	5,358	63,674	39,642	24,032
2007	82,040	51,301	30,739	16,402	10,917	5,485	65,638	40,384	25,254
2008	85,410	52,768	32,642	17,515	11,562	5,953	67,895	41,206	26,689
2009	88,769	53,826	34,943	17,711	11,523	6,188	71,058	42,303	28,755
2010	93,249	55,813	37,436	19,218	12,333	6,885	74,031	43,480	30,551
2011	93,033	55,296	37,737	19,873	12,720	7,153	73,160	42,576	30,584
2012	94,423	56,052	38,371	21,993	14,105	7,888	72,430	41,947	30,483
2013	89,139	52,617	36,522	22,003	14,049	7,954	67,136	38,568	28,568
2014	84,886	50,153	34,733	21,275	13,556	7,719	63,611	36,597	27,014
2015	83,298	49,177	34,121	21,508	13,549	7,959	61,790	35,628	26,162

주: 1) 2012년까지는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됨.
 2) 2013년부터는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3) 비전임교원에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명예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기타 등이 포함됨.

■ II. 대학 ■

■ 표 II-3-2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전임교원 수(2015)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65,423	50,983	14,440	15,653	13,479	2,174	49,770	37,504	12,266
수도권	소계	25,594	19,800	5,794	3,185	2,710	475	22,409	17,090	5,319
	인문	4,876	3,303	1,573	349	254	95	4,527	3,049	1,478
	사회	4,717	3,807	910	395	336	59	4,322	3,471	851
	교육	1,004	568	436	153	116	37	851	452	399
	공학	5,309	5,027	282	853	815	38	4,456	4,212	244
	자연	3,085	2,470	615	617	535	82	2,468	1,935	533
	의약	4,331	3,209	1,122	536	441	95	3,795	2,768	1,027
	예·체능	2,231	1,380	851	277	208	69	1,954	1,172	782
	소속학과없음	41	36	5	5	5	0	36	31	5
비수도권	소계	39,829	31,183	8,646	12,468	10,769	1,699	27,361	20,414	6,947
	인문	5,648	3,978	1,670	1,270	1,006	264	4,378	2,972	1,406
	사회	6,918	5,617	1,301	1,642	1,403	239	5,276	4,214	1,062
	교육	2,529	1,614	915	1,218	957	261	1,311	657	654
	공학	8,626	8,256	370	4,121	4,009	112	4,505	4,247	258
	자연	5,044	4,197	847	2,856	2,522	334	2,188	1,675	513
	의약	7,846	5,315	2,531	790	484	306	7,056	4,831	2,225
	예·체능	3,125	2,118	1,007	550	367	183	2,575	1,751	824
	소속학과없음	93	88	5	21	21	0	72	67	5

주: 전임교원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 표 II-3-3 ■ 연도별 설립별 외국인 교원 수(2005~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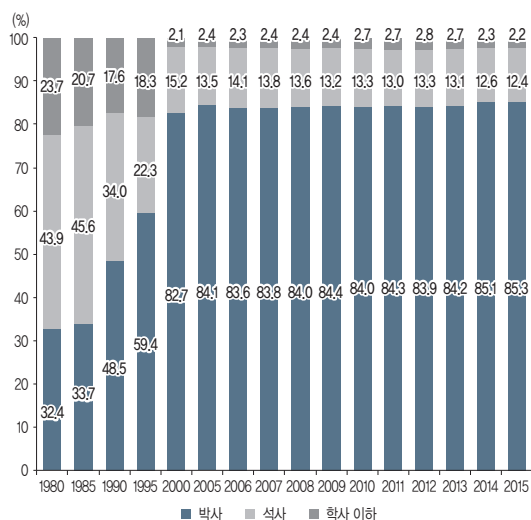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전임	비전임	소계	전임	비전임	소계	전임	비전임
2005	3,325	1,597	1,728	401	19	382	2,924	1,578	1,346
2006	3,416	1,931	1,485	335	20	315	3,081	1,911	1,170
2007	3,918	2,212	1,706	408	26	382	3,510	2,186	1,324
2008	4,545	2,529	2,016	501	30	471	4,044	2,499	1,545
2009	5,285	3,111	2,174	600	85	515	4,685	3,026	1,659
2010	6,012	3,815	2,197	765	164	601	5,247	3,651	1,596
2011	6,681	4,219	2,462	928	226	702	5,753	3,993	1,760
2012	7,168	4,789	2,379	1,027	237	790	6,141	4,552	1,589
2013	7,474	5,019	2,455	1,108	251	857	6,366	4,768	1,598
2014	7,407	5,023	2,384	1,094	262	832	6,313	4,761	1,552
2015	7,351	4,998	2,353	1,100	288	812	6,251	4,710	1,541

2) 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

연도별로 전임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을 살펴보면, 1985년에서 2005년 사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의 비중은 크게 늘었고, 석사 및 학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 이후로는 모든 학위에서 매년 소폭의 증감만을 보이며 유지되어 왔다. 1980년 4,683명이었던 박사학위 소지 교원 수는 2015년에 55,834명으로 1980년 대비 약 11.9배 늘어났으며, 전체 교원 대비 박사학위 소지 교원의 비율은 1980년 32.4%에서 2015년에는 85.3%로 약 52.9%p 증가하였다. 반면, 석사학위 소지 교원의 경우 그 수는 증가하였지만, 전체 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43.9%에서 2015년 12.4%로 약 31.5%p 감소하였다. 학사학위 소지 교원의 경우는 전체 인원도 감소하였고, 전체 교원 중 차지하는 비율 역시 약 21.5%p 감소하였다(〈표 II-3-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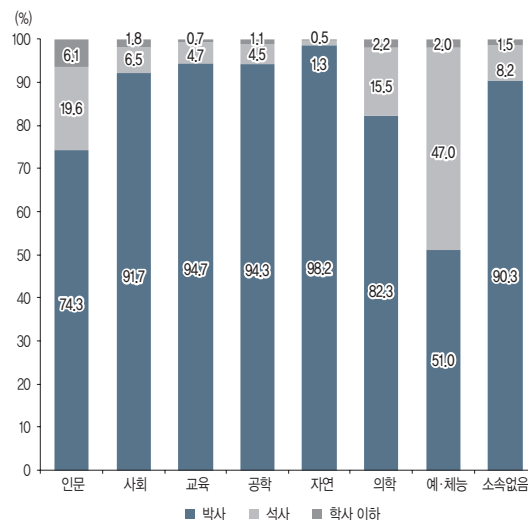
2015년 계열별 전임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을 살펴보면,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중은 자연계열이 98.2%로 가장 높았고, 교육계열, 공학계열, 사회계열에서도 90%가 넘게 나타났다. 반면, 예·체능계열의 경우에는 51.0%로 가장 낮았다. 모든 계열에서 박사, 석사, 학사학위 순으로 교원의 학위 소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체능계열의 경우 다른 계열들과 달리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중(51.0%)과 석사학위 소지자의 비중(47.0%)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I-3-5〉 참조).

지역별 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은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87.5%(22,390명), 석사학위 소지자가 10.7%(2,749명), 학사학위 소지자가 1.7%(447명)로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수도권 대학 역시 전체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84.0%(33,444명), 석사학위 소지자가 13.5%(5,395명), 학사학위 소지자가 2.4%(975명)로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더불어 수도권 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다(〈표 II-3-5〉 참조).



■ 그림 II-3-7 ■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1980~2015)

주: 〈표 II-3-4〉 참조.



■ 그림 II-3-8 ■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15)

주: 〈표 II-3-5〉 참조.

■ II. 대학 ■

■ 표 II-3-4 ■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1980~2015)

(단위: 명)

	전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소계	국내	국외			
1980	14,458	4,683	3,012	1,671	6,353	3,193	229
1985	26,047	8,789	5,434	3,355	11,873	5,260	125
1990	33,340	16,155	10,238	5,917	11,328	5,808	49
1995	45,087	26,771	16,357	10,414	10,057	8,207	52
2000	41,943	34,666	21,293	13,373	6,394	863	20
2005	49,200	41,379	25,636	15,743	6,660	932	229
2006	51,859	43,362	26,840	16,522	7,298	1,103	96
2007	52,763	44,217	27,000	17,217	7,293	1,219	34
2008	54,331	45,631	27,817	17,814	7,372	1,299	29
2009	54,518	46,011	27,896	18,115	7,198	1,297	12
2010	55,972	47,004	28,569	18,435	7,458	1,470	40
2011	58,104	48,968	29,571	19,397	7,553	1,561	22
2012	61,993	52,040	31,815	20,225	8,240	1,672	41
2013	63,042	53,095	32,338	20,757	8,253	1,656	38
2014	64,378	54,756	33,479	21,277	8,123	1,479	20
2015	65,423	55,834	34,443	21,391	8,144	1,422	23

주: '기타'에는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의 사유로 정식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교원(즉,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가 없는 교원)이 포함됨.

■ 표 II-3-5 ■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15)

(단위: 명)

		전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소계	국내	국외			
전체		65,423	55,834	34,443	21,391	8,144	1,422	23
수도권	소계	25,594	22,390	11,091	11,299	2,749	447	8
	인문	4,876	3,669	1,554	2,115	929	278	0
	사회	4,717	4,431	1,538	2,893	230	56	0
	교육	1,004	953	381	572	40	11	0
	공학	5,309	5,098	2,172	2,926	193	18	0
	자연	3,085	3,067	1,128	1,939	16	2	0
	의약	4,331	4,030	3,663	367	262	39	0
	예·체능	2,231	1,105	639	466	1,077	41	8
	소속학과없음	41	37	16	21	2	2	0
비수도권	소계	39,829	33,444	23,352	10,092	5,395	975	15
	인문	5,648	4,153	2,454	1,699	1,131	363	1
	사회	6,918	6,241	4,218	2,023	528	149	0
	교육	2,529	2,391	1,782	609	126	11	1
	공학	8,626	8,044	5,236	2,808	440	139	3
	자연	5,044	4,918	2,821	2,097	90	28	8
	의약	7,846	5,986	5,542	444	1,630	230	0
	예·체능	3,125	1,627	1,253	374	1,441	55	2
	소속학과없음	93	84	46	38	9	0	0

주: '기타'에는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의 사유로 정식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교원(즉,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가 없는 교원)이 포함됨.

4 학습 환경 및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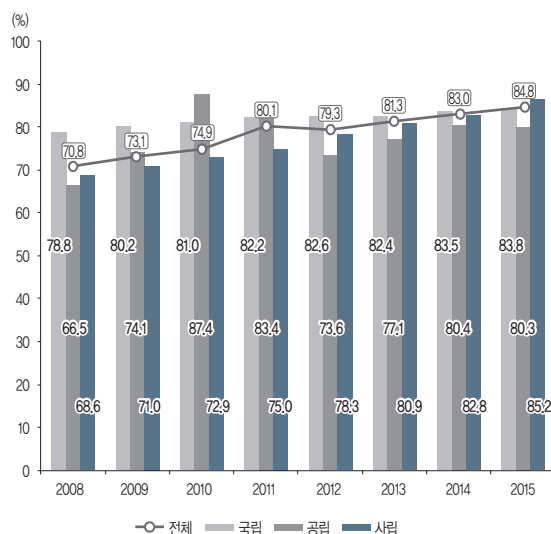
1) 전임교원 현황

① 전임교원 확보 현황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의 여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의 선정지표 가운데 하나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들은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결과 2008년 70.8%에 머물렀던 전임교원 확보율이 2015년 84.8%까지 높아져 2008년 대비 무려 14.0%p나 증가하였다. 2015년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립대학은 83.8%였으며, 공립대학 80.3%, 사립대학 85.2%로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4-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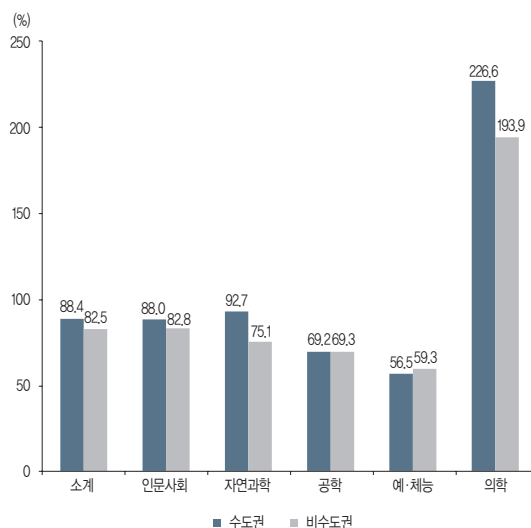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은 88.4%, 비수도권 대학은 82.5%로 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약 5.9%p 높았다. 수도권 대학 중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101.1%, 공립이 80.3%, 사립대학이 87.1%이었고, 비수도권에서는 국립대학 80.6%, 사립대학 83.4%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던 반면, 국립대학의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약 20.5%p 높았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국립대학의 여건이 수도권 공립 및 사립대학이나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나음을 알 수 있다(〈표 II-4-2〉 참조).

계열별로 살펴보면 의학계열은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에서 가장 높았는데, 전임교원 확보율이 각각 226.6%, 193.9%로 나타났다. 의학계열을 제외한 다른 계열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수도권에서는 자연과학계열 92.7%, 인문사회계열 88.0%, 공학계열 69.2%, 예·체능계열 56.5% 순으로 높았고, 비수도권에서는 인문사회계열 82.8%, 자연과학계열 75.1%, 공학계열 69.3%, 예·체능계열 59.3% 순으로 높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에서 예·체능계열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가장 낮았고, 예·체능계열과 공학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에서 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더 높았다(〈표 II-4-2〉 참조).



■ 그림 II-4-1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5)

주: 〈표 II-4-1〉 참조.



■ 그림 II-4-2 ■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확보율(2015)

주: 〈표 II-4-2〉 참조.

■ II. 대학 ■

■ 표 II-4-1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08~2015)

(단위: %)

	전체	국립	공립	사립
2008	70.8	78.8	66.5	68.6
2009	73.1	80.2	74.1	71.0
2010	74.9	81.0	87.4	72.9
2011	80.1	82.2	83.4	75.0
2012	79.3	82.6	73.6	78.3
2013	81.3	82.4	77.1	80.9
2014	83.0	83.5	80.4	82.8
2015	84.8	83.8	80.3	85.2

주: 1) 2012년까지는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되며, 2013년부터는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단, 소속학과가 없는 전임교원의 수는 제외됨.

2) 전임교원 확보율(편제정원 기준)=[전임교원수/교원법정정원(편제정원 기준)] × 100

3) 교원법정정원: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의 별표5와 제2항에 근거하여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편제정원별)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산출함.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의 별표5

대계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25	20	20	20	8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 수를 말한다.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대학의 학생 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 3) 대학원 대학: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 수

■ 표 II-4-2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확보율(2015)

(단위: %)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전체	84.8	83.8	80.3	85.2
수도권	소계	88.4	101.1	80.3
	인문사회	88.0	121.2	87.9
	자연과학	92.7	106.4	86.8
	공학	69.2	72.3	71.0
	예·체능	56.5	76.1	80.6
	의학	226.6	159.5	—
비수도권	소계	82.5	80.6	—
	인문사회	82.8	82.8	—
	자연과학	75.1	80.0	—
	공학	69.3	71.7	—
	예·체능	59.3	64.5	—
	의학	193.9	117.8	—

주: 1) <표 II-4-1>의 주 1)~3) 참조.

2)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등의 5대 계열 구분('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1>에 의함)을 따름.

- 인문사회계열: 어학, 문학, 사회 및 신학 등
- 자연과학계열: 이학, 해양, 농학, 수산, 간호, 보건, 약학 및 한약학 등(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됨)
- 공학계열: 공학 등
- 예·체능계열: 음악, 미술, 체육 및 무용 등
- 의학계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및 수의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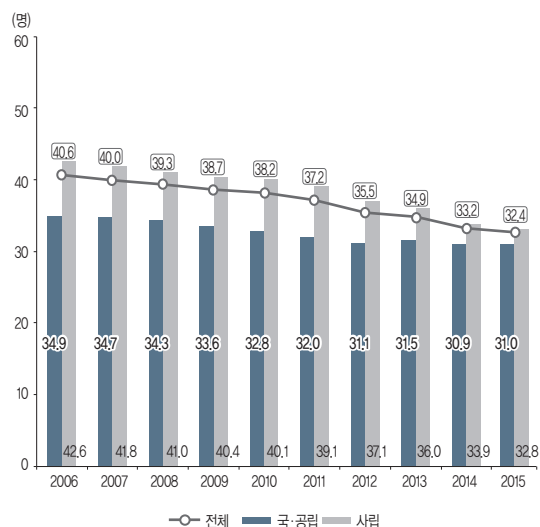
3) 의학계열은 계열의 특성상 전임교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의학계열을 포함하여 전체 전임교원 확보율을 제시할 경우 다른 계열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왜곡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5대 계열 전체의 전임교원 확보율뿐만 아니라, 의학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소계로 제시하였음.

②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연도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40.6명에서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32.4명으로 2006년 대비 약 8.2명 감소하였다. 국·공립대학은 2006년 34.9명에서 2015년 31.0명으로 2006년 대비 약 3.9명 감소하였고, 사립대학은 42.6명에서 32.8명으로 2006년 대비 약 9.8명 감소하였다. 2006년에는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약 7.7명이나 많았으나 꾸준한 노력으로 2015년에는 그 차이가 약 1.8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적어 국·공립대학의 교육여건이 좀 더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표 II-4-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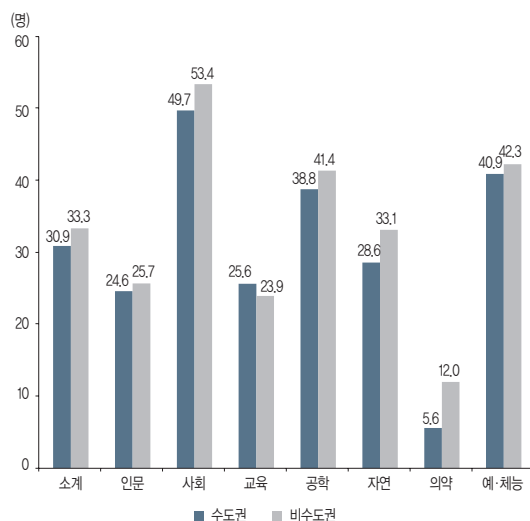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30.9명으로 나타났지만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33.3명으로 나타나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더 적었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국·공립대학은 22.4명, 사립대학은 32.1명, 비수도권의 국·공립대학은 33.3명, 사립대학은 33.4명이었다. 이를 통해서 수도권에 소재한 국·공립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표 II-4-4〉 참조).

아울러 계열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에서는 의약계열(5.6명)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었고, 사회계열(49.7명)이 가장 많았다.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의약계열(12.0명)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었고, 사회계열(53.4명)이 가장 많았다(〈표 II-4-4〉 참조).



■ 그림 II-4-3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06~2015)

주: 〈표 II-4-3〉 참조.



■ 그림 II-4-4 ■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15)

주: 〈표 II-4-4〉 참조.

■ II. 대학 ■

■ 표 II-4-3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06~2015)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2006	40.6	34.9	42.6
2007	40.0	34.7	41.8
2008	39.3	34.3	41.0
2009	38.7	33.6	40.4
2010	38.2	32.8	40.1
2011	37.2	32.0	39.1
2012	35.5	31.1	37.1
2013	34.9	31.5	36.0
2014	33.2	30.9	33.9
2015	32.4	31.0	32.8

주: 1) 총장 및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은 제외됨.
2)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재적 학생 수/전임교원 수

■ 표 II-4-4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2015)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32.4	31.0	32.8
수도권	소계	30.9	22.4	32.1
	인문	24.6	19.1	25.0
	사회	49.7	40.7	50.6
	교육	25.6	18.2	27.0
	공학	38.8	29.8	40.5
	자연	28.6	17.4	31.4
	의약	5.6	2.3	6.0
	예·체능	40.9	29.7	42.5
비수도권	소계	33.3	33.3	33.4
	인문	25.7	31.5	24.0
	사회	53.4	48.5	54.9
	교육	23.9	18.4	29.0
	공학	41.4	38.1	44.4
	자연	33.1	29.5	37.9
	의약	12.0	14.6	11.7
	예·체능	42.3	35.0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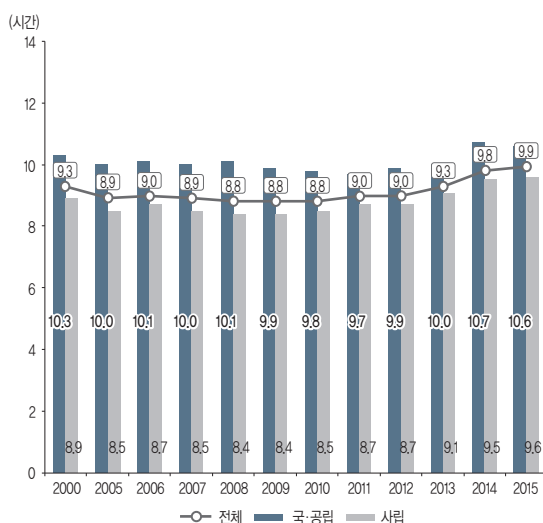
주: 1) 총장 및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은 제외됨.
2)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산출하기 위한 재적 학생 수와 전임교원 수에는 학부와 대학부설 대학원의 현황이 포함됨.
3)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재적 학생 수/전임교원 수

③ 전임교원의 강의 현황

전임교원 1인당 주당 수업시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9.3시간에서 2005년에는 8.9시간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2010년(8.8시간)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5년에는 전년대비 0.1시간 증가한 9.9시간으로 나타났다(〈표 II-4-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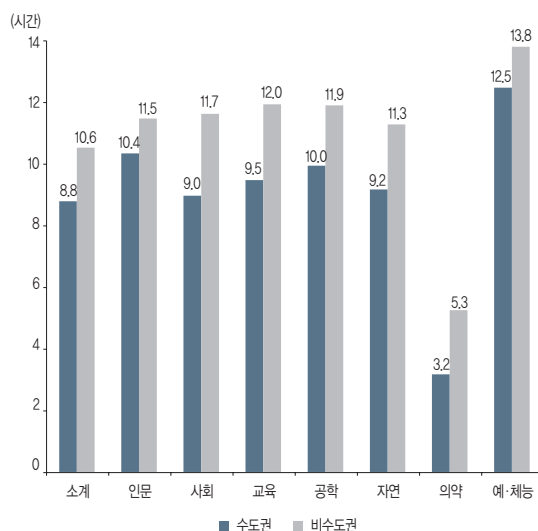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의 경우 2015년 전임교원 1인당 주당 수업시간은 10.6시간으로 2000년과 비교하였을 때 0.3시간 정도 증가했다. 사립대학의 2015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은 9.6시간으로 2000년과 비교하여 0.7시간 정도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에서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10여 년 전과 비교해서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00년 이래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1시간 이상 많은 경향을 보였다(〈표 II-4-5〉 참조).

지역별로 전임교원 1인당 주당 수업시간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의 경우 주당 평균 8.8시간의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10.6시간으로 나타나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들이 주당 1.8시간 정도 더 많은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에서 계열별로 주당 수업시간을 살펴보면, 의약계열 3.2시간, 사회계열 9.0시간, 자연계열 9.2시간, 교육계열 9.5시간, 공학계열 10.0시간, 인문계열 10.4시간, 예·체능계열 12.5시간으로 의약계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가장 적었고, 예·체능계열이 가장 많았다.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의약계열 5.3시간, 자연계열 11.3시간, 인문계열 11.5시간, 사회계열 11.7시간, 공학계열 11.9시간, 교육계열 12.0시간, 예·체능계열 13.8시간으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의약계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가장 적었고, 예·체능계열이 가장 많았다. 한편 비수도권 대학은 의약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11시간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수도권 대학의 경우 예·체능계열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열에서 11시간 이하로 나타났다(〈표 II-4-6〉 참조).



■ 그림 II-4-5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00~2015)

주: 〈표 II-4-5〉 참조.



■ 그림 II-4-6 ■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15)

주: 〈표 II-4-6〉 참조.

■ II. 대학 ■

■ 표 II-4-5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00~2015)

(단위: 시간)

	전체	국·공립	사립
2000	9.3	10.3	8.9
2005	8.9	10.0	8.5
2006	9.0	10.1	8.7
2007	8.9	10.0	8.5
2008	8.8	10.1	8.4
2009	8.8	9.9	8.4
2010	8.8	9.8	8.5
2011	9.0	9.7	8.7
2012	9.0	9.9	8.7
2013	9.3	10.0	9.1
2014	9.8	10.7	9.5
2015	9.9	10.6	9.6

- 주: 1)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전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의 합/전체 전임교원 수
 2) 2012년까지는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 산출을 위한 전임교원 수에 대학과 대학부설 대학원의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됨.
 3) 2013년부터는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 산출을 위한 전임교원 수에 대학과 대학부설 대학원의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 표 II-4-6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2015)

(단위: 시간)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9.9	10.6	9.6
수도권	소계	8.8	8.9	8.8
	인문	10.4	7.7	10.6
	사회	9.0	8.3	9.1
	교육	9.5	8.6	9.7
	공학	10.0	11.4	9.7
	자연	9.2	9.3	9.2
	의약	3.2	4.2	3.0
	예·체능	12.5	12.0	12.6
	소속학과없음	0.2	0.0	0.2
비수도권	소계	10.6	11.0	10.3
	인문	11.5	10.1	11.9
	사회	11.7	10.7	11.9
	교육	12.0	11.2	12.7
	공학	11.9	11.5	12.3
	자연	11.3	11.2	11.5
	의약	5.3	7.5	5.0
	예·체능	13.8	14.5	13.7
	소속학과없음	0.3	0.4	0.2

- 주: 1)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전체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의 합/전체 전임교원 수
 2) 2012년까지는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를 산출하기 위한 전임교원 수에 대학과 대학부설 대학원의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됨.
 3) 2013년부터는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 산출을 위한 전임교원 수에 대학과 대학부설 대학원의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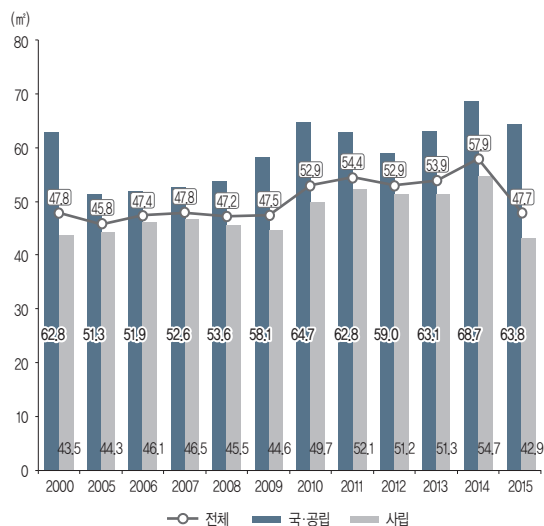
2) 시설 현황

학생 1인당 교지면적 및 교사면적, 도서관 현황을 통해 대학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지면적은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값이며, 이를 재적 학생 수로 나누면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교사면적은 교육기반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특수시설, 기숙시설, 계열별 부속시설, 기타시설 등을 합한 수치이며, 이를 재적 학생 수로 나누면 학생 1인당 교사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표 II-4-7〉 주석참조).

연도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47.8㎡에서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4년에 57.9㎡까지 늘어났지만,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약 17.6% 감소한 47.7㎡로 나타났다. 설립별로 보면 매년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이 넓었으며, 2015년에는 국·공립대학 63.8㎡, 사립대학은 42.9㎡로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이 약 1.5배 정도 넓었다(〈표 II-4-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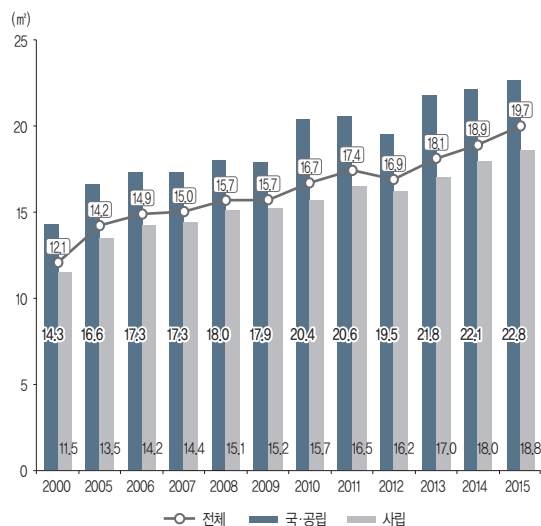
연도별 학생 1인당 교사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12.1㎡에서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5년 19.7㎡로 2000년 대비 약 1.6배 늘어났다. 설립별로 보면, 2015년 국·공립대학의 교사면적은 22.8㎡로 2000년과 비교하여 1.6배 정도 늘어났고, 사립대학의 교사면적은 2015년 18.8㎡로 2000년과 비교하여 1.6배 정도 늘어났다(〈표 II-4-7〉 참조).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15년 대학의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은 100,949.8원이었으며, 국·공립대학(129,439.6원)이 사립대학(92,468.6원)보다 1.4배 정도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137,058.8원)의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이 비수도권 대학(79,437.2원)보다 더 많았다. 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는 국·공립대학(5.8명)이 사립대학(6.0명)보다 적었고, 수도권 대학(5.2명)이 비수도권 대학(6.5명)에 비해 적었다. 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 수는 59.8권이었으며, 국·공립대학(70.3권)이 사립대학(56.7권)보다 많았고, 수도권 대학(70.1권)이 비수도권 대학(53.6권)보다 많았다(〈표 II-4-8〉 참조).



■ 그림 II-4-7 ■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2000~2015)

주: 〈표 II-4-7〉 참조.



■ 그림 II-4-8 ■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사면적(2000~2015)

주: 〈표 II-4-7〉 참조.

■ II. 대학 ■

■ 표 II-4-7 ■ 연도별 설립별 학생 1인당 교지면적 및 교사면적(2000~2015)

(단위: m²)

	학생 1인당 교지면적			학생 1인당 교사면적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2000	47.8	62.8	43.5	12.1	14.3	11.5
2005	45.8	51.3	44.3	14.2	16.6	13.5
2006	47.4	51.9	46.1	14.9	17.3	14.2
2007	47.8	52.6	46.5	15.0	17.3	14.4
2008	47.2	53.6	45.5	15.7	18.0	15.1
2009	47.5	58.1	44.6	15.7	17.9	15.2
2010	52.9	64.7	49.7	16.7	20.4	15.7
2011	54.4	62.8	52.1	17.4	20.6	16.5
2012	52.9	59.0	51.2	16.9	19.5	16.2
2013	53.9	63.1	51.3	18.1	21.8	17.0
2014	57.9	68.7	54.7	18.9	22.1	18.0
2015	47.7	63.8	42.9	19.7	22.8	18.8

주: 1) 교지면적: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값으로, 차용면적은 제외하고 학교소유면적만을 나타냄.
 2) 교사면적: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특수시설, 기숙시설, 계열별 부속시설, 기타시설 등을 합한 수치임.
 3) 학생 1인당 교지면적=전체 교지면적/재적 학생 수
 4) 학생 1인당 교사면적=전체 교사면적/재적 학생 수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 표 II-4-8 ■ 지역별 설립별 학생 1인당 도서관 현황(2015)

(단위: 원, 명, 권)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			도서관 좌석당 학생수			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수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100,949.8	129,439.6	92,468.6	6.0	5.8	6.0	59.8	70.3	56.7
수도권	137,058.8	258,914.0	124,983.8	5.2	4.3	5.3	70.1	115.8	65.6
비수도권	79,437.2	107,174.9	66,837.4	6.5	6.2	6.7	53.6	62.5	49.6

주: 1)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전체 도서관 예산/재적 학생 수
 2) 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재적 학생 수/좌석 수
 3) 학생 1인당 도서관 장서 수=장서 수/재적 학생 수
 4) 폐교의 재적 학생 수는 제외함.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Ⅲ.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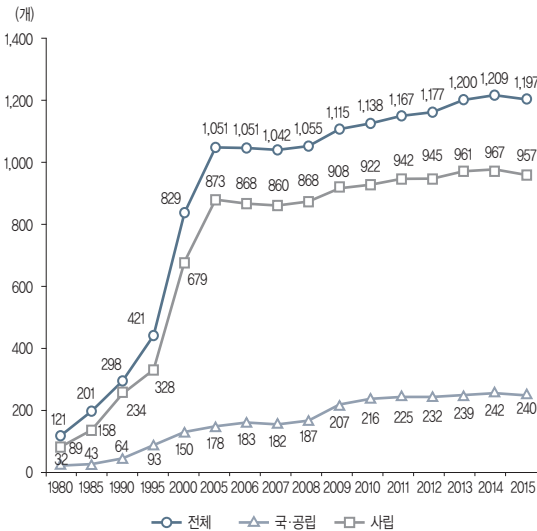
1. 학교
2. 학생
3. 교원

1 학교

우리나라 대학원(일반대학원)은 1953년 문교부 훈령 제 8호 '대학원규정'이 제정 시행된 이후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함께 최상위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에 걸쳐 외형적 교육체제를 갖춘 대학원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이르러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급인력수요와 대학교육의 사회적 수요 급증에 따라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대량 신설인가로 급격한 팽창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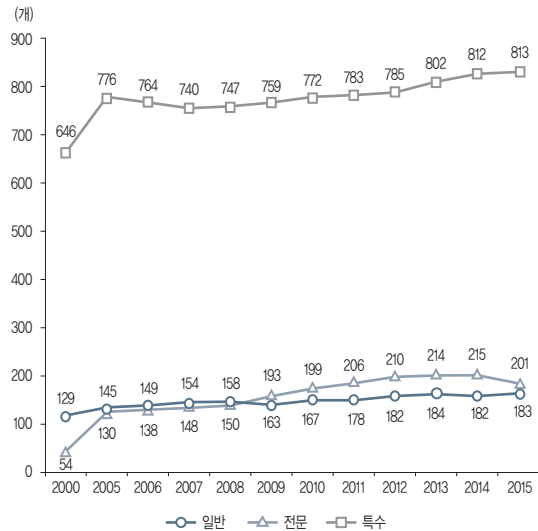
[그림 Ⅲ-1-1]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원 수는 전년 대비 12개 감소한 1,197개로 1980년 대학원 수(121개)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설립별로 나누어 보면, 국·공립은 240개(20.1%), 사립은 957개(79.9%)로 사립이 국·공립보다 약 4배 많았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유형별⁸⁾로 대학원 수를 살펴보면 [그림 Ⅲ-1-2]와 같다. 2015년 현재 전체 대학원 중 특수대학원은 813개(67.9%), 전문대학원 201개(16.8%), 일반대학원 183개(15.3%)로 특수대학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일반대학원은 2000년 129개에서 2015년 183개로 약 1.4배 증가했고, 특수대학원은 2000년 646개에서 2015년 813개로 약 1.3배 증가했다. 전문대학원은 2000년(54개)과 비교할 때 2015년 약 3.7배 규모인 201개로 크게 증가했다.



■ 그림 Ⅲ-1-1 ■ 연도별 설립별 대학원 수(1980~2015)

주: <표 Ⅲ-1-1> 참조.



■ 그림 Ⅲ-1-2 ■ 연도별 유형별 대학원 수(2000~2015)

주: <표 Ⅲ-1-2> 참조.

8) 제 2조 (대학원의 종류 등)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전문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표 Ⅲ-1-1 ■ 연도별 설립별 유형별 대학원 수(1980~2015)

(단위: 개)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대학부설 대학원	대학원 대학	소계	대학부설 대학원	대학원 대학	소계	대학부설 대학원	대학원 대학
1980	121	121	—	32	32	—	89	89	—
1985	201	201	—	43	43	—	158	158	—
1990	298	298	—	64	64	—	234	234	—
1995	421	421	—	93	93	—	328	328	—
2000	829	812	17	150	150	—	679	662	17
2005	1,051	1,017	34	178	178	—	873	839	34
2006	1,051	1,015	36	183	183	—	868	832	36
2007	1,042	1,006	36	182	182	—	860	824	36
2008	1,055	1,018	37	187	186	1	868	832	36
2009	1,115	1,077	38	207	206	1	908	871	37
2010	1,138	1,098	40	216	215	1	922	883	39
2011	1,167	1,126	41	225	224	1	942	902	40
2012	1,177	1,134	43	232	231	1	945	903	42
2013	1,200	1,157	43	239	238	1	961	919	42
2014	1,209	1,165	44	242	240	2	967	925	42
2015	1,197	1,150	47	240	238	2	957	912	45

주: 대학원대학은 1998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함.

■ 표 Ⅲ-1-2 ■ 연도별 유형별 대학원 수(2000~2015)

(단위: 개)

	전체				대학부설 대학원				대학원 대학			
	전체	일반	전문	특수	소계	일반	전문	특수	소계	일반	전문	특수
2000	829	129	54	646	812	129	44	639	17	—	10	7
2005	1,051	145	130	776	1,017	145	98	774	34	—	32	2
2006	1,051	149	138	764	1,015	149	106	760	36	—	32	4
2007	1,042	154	148	740	1,006	154	117	735	36	—	31	5
2008	1,055	158	150	747	1,018	157	119	742	37	1	31	5
2009	1,115	163	193	759	1,077	162	161	754	38	1	32	5
2010	1,138	167	199	772	1,098	166	165	767	40	1	34	5
2011	1,167	178	206	783	1,126	177	171	778	41	1	35	5
2012	1,177	182	210	785	1,134	181	173	780	43	1	37	5
2013	1,200	184	214	802	1,157	183	177	797	43	1	37	5
2014	1,209	182	215	812	1,165	181	178	806	44	1	37	6
2015	1,197	183	201	813	1,150	182	163	805	47	1	3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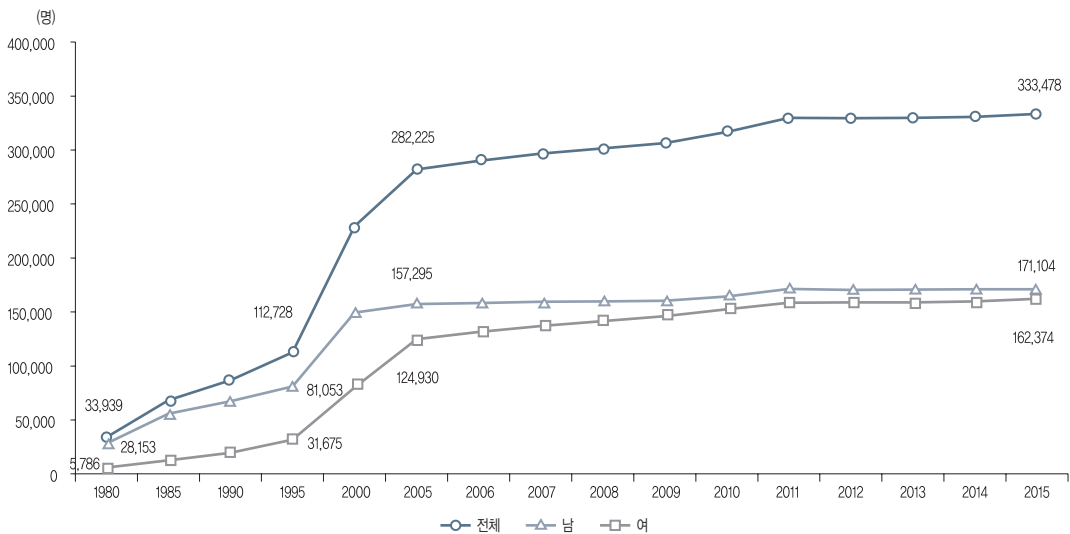
주: 1) '일반'은 일반대학원, '전문'은 전문대학원, '특수'는 특수대학원을 말함.

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2항'에 의거하여 '대학(일반대학)'은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은 전문/특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대학'은 특수대학원을, '대학원대학'은 전문 또는 특수대학원 중 1개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단, 특별법법인으로 설립된 한국학대학원의 경우 대학원대학이면서도 일반대학원으로 집계함.

2 학생

1) 학생 수

[그림 III-2-1]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성별에 따른 대학원 학생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대학원 학생 수는 학교 수의 증가와 함께 1980년 33,939명에서 2015년 333,478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1995년 대학원 설립기준의 완화와 함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고등교육의 대중화, 보편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1980년 28,153명에서 2015년 171,104명으로 약 6.1배 증가하였으며, 1980년 5,786명에 불과했던 여학생은 2015년 162,374명으로 약 28.1배 늘어났다. 1980년 당시에는 남학생이 전체 대학원 학생 수의 83.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반해, 2015년에는 남학생이 51.3%, 여학생이 48.7%로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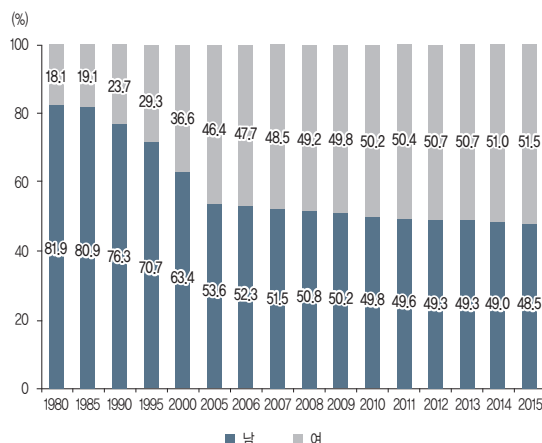


■ 그림 III-2-1 ■ 연도별 성별 학생 수(1980~2015)

주: <표 III-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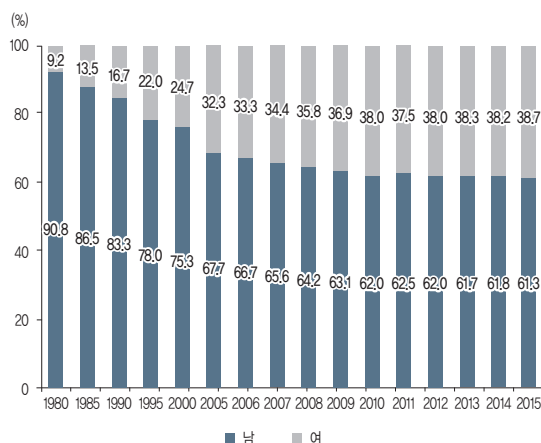
석사과정 학생 수는 1980년 29,901명에서 2000년에 197,436명으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260,920명으로 1980년에 비해 9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림 III-2-2]에서 연도별로 석사과정 학생의 성비를 살펴보면, 1980년에 석사과정 남학생은 24,485명, 여학생은 5,416명으로 전체 석사과정 학생 중 여학생의 비중이 20%를 넘지 못했다. 이후 여학생이 꾸준히 증가해 2010년부터 여학생 비중이 전체 학생의 50%를 넘었다. 2015년 석사과정 남학생은 126,607명, 여학생은 134,313명으로 전체 학생 중 여학생 비중이 51.5%로 나타났다(<표 III-2-1> 참조).

박사과정 학생 수(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이하 동일)도 지난 30여 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1980년 4,038명에서 2015년 72,558명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그림 III-2-3]을 통해 박사과정 학생들의 성비를 살펴보면, 1980년 남학생은 3,668명, 여학생은 370명으로 여학생이 전체 학생의 10%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석사과정과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 2005년부터 여학생의 비율이 30%를 넘었다. 2015년 여학생의 비율은 38.7%로 1980년에 비해 약 29.5%p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남학생의 비율(61.3%)이 여학생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1> 참조).



■ 그림 III-2-2 ■ 연도별 성별 학생비율(석사과정, 1980~2015)

주: <표 III-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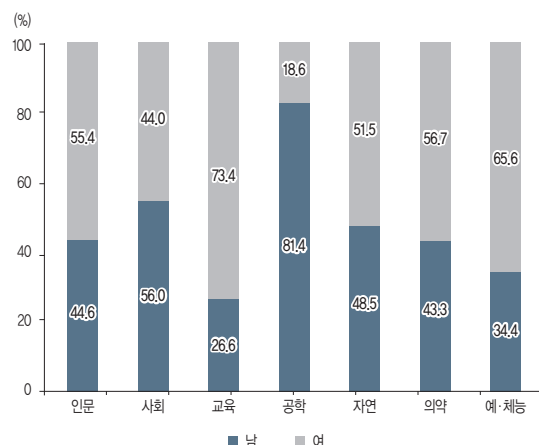


■ 그림 III-2-3 ■ 연도별 성별 학생비율(박사과정, 1980~2015)

주: <표 III-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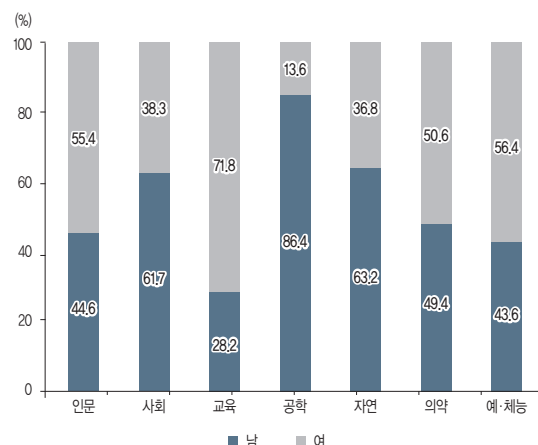
2015년 석사과정 학생 수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사회계열이 72,69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계열, 인문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순이었으며, 자연계열이 17,112명으로 가장 적었다(<표 III-2-2> 참조). 한편 계열별 성비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그림 III-2-4>에서와 같이 교육계열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이 73.4%에 달한 반면, 공학계열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81.4%를 넘어섰고 여학생의 비율은 18.6%에 그쳤다. 자연계열은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사회계열은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인문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은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2015년 계열별 박사과정 학생 수를 보면, 공학계열이 18,8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인문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 순이었다(<표 III-2-2> 참조). <그림 III-2-5>에서 계열별 박사과정 학생의 성비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계열은 석사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계열(71.8%)이었다. 예·체능계열(56.4%)과 인문계열(55.4%), 의약계열(50.6%)도 여학생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사회계열(38.3%), 자연계열(36.8%), 공학계열(28.2%)은 여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석사과정과 비교했을 때, 박사과정이 인문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열에서 여학생 비율이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III-2-4 ■ 계열별 성별 학생비율(석사과정, 2015)

주: <표 III-2-2> 참조.



■ 그림 III-2-5 ■ 계열별 성별 학생비율(박사과정, 2015)

주: <표 III-2-2> 참조.

■ Ⅲ. 대학원 ■

■ 표 Ⅲ-2-1 ■ 연도별 과정별 성별 학생 수(1980~2015)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33,939	28,153	5,786	29,901	24,485	5,416	4,038	3,668	370
1985	68,178	55,726	12,452	57,698	46,666	11,032	10,480	9,060	1,420
1990	86,911	67,351	19,560	72,417	55,284	17,133	14,494	12,067	2,427
1995	112,728	81,053	31,675	93,993	66,449	27,544	18,735	14,604	4,131
2000	229,437	149,365	80,072	197,436	125,259	72,177	32,001	24,106	7,895
2005	282,225	157,295	124,930	238,753	127,868	110,885	43,472	29,427	14,045
2006	290,029	158,371	131,658	243,833	127,550	116,283	46,196	30,821	15,375
2007	296,576	159,458	137,118	249,016	128,250	120,766	47,560	31,208	16,352
2008	301,412	159,733	141,679	252,010	128,017	123,993	49,402	31,716	17,686
2009	306,471	160,388	146,083	256,085	128,608	127,477	50,386	31,780	18,606
2010	316,633	164,266	152,367	263,100	131,060	132,040	53,533	33,206	20,327
2011	329,933	171,410	158,523	270,234	134,091	136,143	59,699	37,319	22,380
2012	329,544	170,512	159,032	267,232	131,869	135,363	62,312	38,643	23,669
2013	329,822	170,870	158,952	263,884	130,184	133,700	65,938	40,686	25,252
2014	330,872	170,978	159,894	260,897	127,733	133,164	69,975	43,245	26,730
2015	333,478	171,104	162,374	260,920	126,607	134,313	72,558	44,497	28,061

주: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 수는 박사과정에 포함됨.

■ 표 Ⅲ-2-2 ■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학생 수(2015)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333,478	171,104	162,374	260,920	126,607	134,313	56,029	32,421	23,608	16,529	12,076	4,453
수도권	소계	186,551	92,669	93,882	146,427	68,744	77,683	28,903	15,732	13,171	11,221	8,193	3,028
	인문	31,472	14,561	16,911	25,559	11,816	13,743	5,355	2,433	2,922	558	312	246
	사회	54,748	30,521	24,227	46,032	25,351	20,681	8,133	4,819	3,314	583	351	232
	교육	25,283	5,718	19,565	23,163	5,132	18,031	2,027	551	1,476	93	35	58
	공학	26,648	21,864	4,784	17,230	13,743	3,487	4,566	3,843	723	4,852	4,278	574
	자연	14,131	7,157	6,974	8,270	3,532	4,738	2,672	1,430	1,242	3,189	2,195	994
	의약	17,704	7,205	10,499	12,417	4,651	7,766	3,468	1,580	1,888	1,819	974	845
	예·체능	16,565	5,643	10,922	13,756	4,519	9,237	2,682	1,076	1,606	127	48	79
비수도권	소계	146,927	78,435	68,492	114,493	57,863	56,630	27,126	16,689	10,437	5,308	3,883	1,425
	인문	15,991	6,607	9,384	13,212	5,473	7,739	2,634	1,065	1,569	145	69	76
	사회	31,925	18,807	13,118	26,658	15,356	11,302	5,137	3,361	1,776	130	90	40
	교육	30,966	9,337	21,629	28,049	8,502	19,547	2,865	817	2,048	52	18	34
	공학	27,040	22,783	4,257	17,597	14,609	2,988	7,234	6,294	940	2,209	1,880	329
	자연	15,147	8,824	6,323	8,842	4,759	4,083	3,963	2,492	1,471	2,342	1,573	769
	의약	18,939	9,251	9,688	14,554	7,024	7,530	4,003	1,996	2,007	382	231	151
	예·체능	6,919	2,826	4,093	5,581	2,140	3,441	1,290	664	626	48	22	26

■ 표 Ⅲ-2-3 ■ 유형별 과정별 성별 학생 수(2015)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333,478	171,104	162,374	260,920	126,607	134,313	56,029	32,421	23,608	16,529	12,076	4,453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324,376	166,334	158,042	254,400	123,310	131,090	54,053	31,339	22,714	15,923	11,685	4,238
	일반대학원	154,528	85,586	68,942	89,053	45,501	43,552	49,972	28,706	21,266	15,503	11,379	4,124
	전문대학원	37,780	20,588	17,192	33,279	17,649	15,630	4,081	2,633	1,448	420	306	114
	특수대학원	132,068	60,160	71,908	132,068	60,160	71,908	-	-	-	-	-	-
대학원 대학	소계	9,102	4,770	4,332	6,520	3,297	3,223	1,976	1,082	894	606	391	215
	일반대학원	289	89	200	148	36	112	141	53	88	-	-	-
	전문대학원	7,949	4,309	3,640	5,508	2,889	2,619	1,835	1,029	806	606	391	215
	특수대학원	864	372	492	864	372	492	-	-	-	-	-	-

■ Ⅲ. 대학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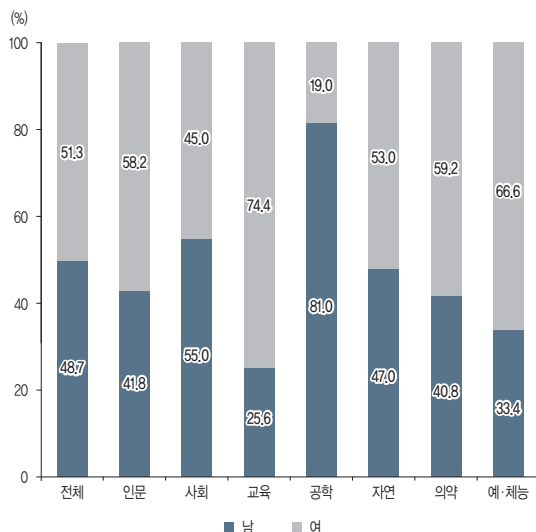
2) 입학

2015년 대학원 입학생 수는 129,201명으로, 이 중 석사과정 입학생은 103,047명, 박사과정 입학생(석·박사통합과정포함, 이하 동일)은 26,154명이었다. 석사과정 입학생 중 남학생은 50,157명(48.7%), 여학생은 52,890명(51.3%)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박사과정 입학생은 남학생이 15,603명(59.7%), 여학생이 10,551명(40.3%)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으며, 석사과정 입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비율이 약 11%p 낮았다(〈표 Ⅲ-2-4〉 참조).

계열별로 2015년 석사과정 입학생을 살펴보면, 사회계열 입학생이 전체의 28.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교육계열이 17.0%로 그 뒤를 이었다. 공학계열(15.7%)과 인문계열(14.5%)도 입학생 비중이 10%를 넘었다. 반면 의약계열(9.1%), 자연계열(7.7%), 예·체능계열(7.4%)은 다른 계열에 비해 입학생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표 Ⅲ-2-4〉 참조). [그림 Ⅲ-2-6]에 의하면, 석사과정 입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계열은 교육계열(74.4%), 예·체능계열(66.6%), 의약계열(59.2%), 인문계열(58.2%), 자연계열(53.0%)이었고, 사회계열(45.0%)과 공학계열(48.7%)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비중이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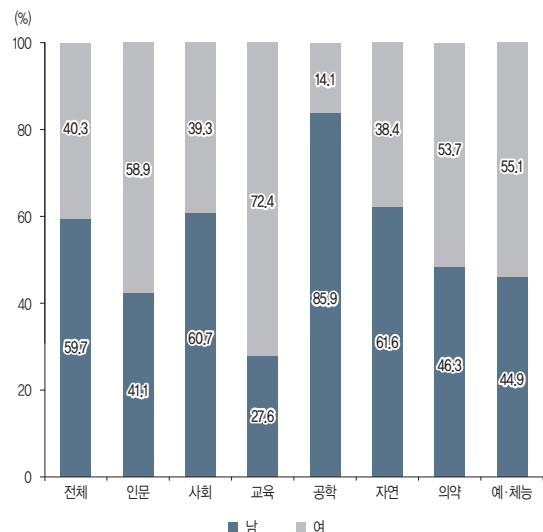
2015년 박사과정 입학생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공학계열 입학생(25.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인문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 순이었다(〈표 Ⅲ-2-4〉 참조). [그림 Ⅲ-2-7]에 따라 성별로 살펴보면, 교육계열(72.4%)의 여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인문계열(58.9%), 예·체능계열(55.1%), 의약계열(53.7%)도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반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은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대학원 입학생의 연령을 보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입학생 모두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석사과정은 25~29세 사이의 입학생이 전체의 30.9%로 가장 많았고, 박사과정 역시 25~29세 사이의 입학생이 28.4%로 가장 많았다. 석사과정의 입학생 중 20대의 비중은 56.4%, 30대는 23.4%, 40대는 14.5%, 50대는 5.1%, 60대는 0.6%이었다. 박사과정은 20대가 41.5%, 30대 30.9%, 40대가 18.4%, 50대가 8.2%, 60대가 1.0%였다(〈표 Ⅲ-2-7〉 참조).



■ 그림 Ⅲ-2-6 ■ 계열별 성별 입학생 비율(석사과정, 2015)

주: 〈표 Ⅲ-2-4〉 참조.



■ 그림 Ⅲ-2-7 ■ 계열별 성별 입학생 비율(박사과정, 2015)

주: 〈표 Ⅲ-2-4〉 참조.

■ 표 Ⅲ-2-4 ■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입학생 수(2015)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29,201	65,760	63,441	103,047	50,157	52,890	20,944	11,828	9,116	5,210	3,775	1,435
수도권	소계	73,260	35,921	37,339	58,613	27,372	31,241	10,867	5,808	5,059	3,780	2,741	1,039
	인문	11,947	5,115	6,832	9,895	4,241	5,654	1,859	775	1,084	193	99	94
	사회	22,259	12,203	10,056	18,972	10,299	8,673	3,105	1,805	1,300	182	99	83
	교육	9,200	2,033	7,167	8,417	1,819	6,598	766	205	561	17	9	8
	공학	11,412	9,252	2,160	7,936	6,270	1,666	1,799	1,509	290	1,677	1,473	204
	자연	5,929	2,863	3,066	3,788	1,581	2,207	1,027	524	503	1,114	758	356
	의약	6,223	2,360	3,863	4,289	1,471	2,818	1,384	608	776	550	281	269
	예·체능	6,290	2,095	4,195	5,316	1,691	3,625	927	382	545	47	22	25
비수도권	소계	55,941	29,839	26,102	44,434	22,785	21,649	10,077	6,020	4,057	1,430	1,034	396
	인문	6,096	2,409	3,687	5,058	2,012	3,046	1,000	378	622	38	19	19
	사회	12,603	7,285	5,318	10,528	5,934	4,594	2,037	1,321	716	38	30	8
	교육	10,107	2,948	7,159	9,050	2,655	6,395	1,039	289	750	18	4	14
	공학	11,321	9,478	1,843	8,226	6,814	1,412	2,502	2,165	337	593	499	94
	자연	6,198	3,451	2,747	4,147	2,149	1,998	1,449	894	555	602	408	194
	의약	6,798	3,150	3,648	5,115	2,364	2,751	1,558	716	842	125	70	55
	예·체능	2,818	1,118	1,700	2,310	857	1,453	492	257	235	16	4	12

■ 표 Ⅲ-2-5 ■ 유형별 과정별 성별 입학생 수(2015)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29,201	65,760	63,441	103,047	50,157	52,890	20,944	11,828	9,116	5,210	3,775	1,435
대학 부설 대학원	소계	125,369	63,870	61,499	100,061	48,733	51,328	20,284	11,486	8,798	5,024	3,651	1,373
	일반대학원	65,720	35,596	30,124	41,980	21,485	20,495	18,863	10,569	8,294	4,877	3,542	1,335
	전문대학원	13,060	7,105	5,955	11,492	6,079	5,413	1,421	917	504	147	109	38
	특수대학원	46,589	21,169	25,420	46,589	21,169	25,420	-	-	-	-	-	-
대학원 대학	소계	3,832	1,890	1,942	2,986	1,424	1,562	660	342	318	186	124	62
	일반대학원	118	34	84	74	19	55	44	15	29	-	-	-
	전문대학원	3,242	1,663	1,579	2,440	1,212	1,228	616	327	289	186	124	62
	특수대학원	472	193	279	472	193	279	-	-	-	-	-	-

■ Ⅲ. 대학원 ■

■ 표 Ⅲ-2-6 ■ 연도별 과정보별 연령별 입학생 수(2006~2015)

(단위: 명)

	석사								박사							
	전체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6	93,907	20,000	34,487	14,135	10,254	15,031	-	-	17,005	759	4,558	4,236	2,986	4,466	-	-
2007	95,977	20,395	35,858	13,950	10,668	15,106	-	-	17,979	840	5,078	4,196	3,114	4,751	-	-
2008	95,184	20,149	36,079	13,703	10,422	14,831	-	-	18,188	938	5,134	4,191	3,128	4,797	-	-
2009	101,159	21,656	40,010	14,158	10,374	11,727	2,926	308	18,929	1,037	5,452	4,082	3,201	3,760	1,298	99
2010	105,731	23,016	39,842	15,302	10,936	12,710	3,553	372	21,227	1,332	5,994	4,516	3,439	4,202	1,581	163
2011	105,353	24,033	37,590	15,695	10,775	13,172	3,733	355	21,519	1,689	6,082	4,451	3,316	4,193	1,630	158
2012	102,788	24,046	34,915	15,436	10,128	13,573	4,222	468	23,328	2,345	6,443	4,832	3,327	4,405	1,816	160
2013	101,940	23,857	33,476	15,791	9,860	14,021	4,467	468	24,920	3,008	6,950	4,815	3,401	4,659	1,909	178
2014	101,833	25,219	32,008	15,206	9,640	14,478	4,768	514	25,924	3,357	7,138	5,004	3,443	4,779	1,997	206
2015	103,047	26,342	31,803	14,478	9,599	14,966	5,256	603	26,154	3,441	7,424	4,753	3,332	4,801	2,132	271

주: 1) 2008년의 경우, 호남대학교교육대학원 연령별 입학자가 전형별 입학자보다 1명 많게 조사되어 석·박사 입학자 수의 총계가 전형별 입학자 수 총계(113,371명)와 다름.

2) 2006~2008년의 40~49세 범주에는 '40세 이상'의 값을 제시함. 당시에는 50세 이상의 범주를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고, 해당 대상을 40세 이상에 포함시켜 함께 집계함.

■ 표 Ⅲ-2-7 ■ 계열별 과정보별 연령별 입학생 수(2015)

(단위: 명)

	석사								박사							
	전체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103,047	26,342	31,803	14,478	9,599	14,966	5,256	603	26,154	3,441	7,424	4,753	3,332	4,801	2,132	271
인문	14,953	3,112	4,046	2,103	1,422	2,761	1,264	245	3,090	61	601	536	480	809	483	120
사회	29,500	4,734	7,863	4,835	3,542	5,956	2,339	231	5,362	97	874	898	822	1,628	956	87
교육	17,467	3,711	5,259	2,971	1,973	2,808	708	37	1,840	27	284	452	320	563	181	13
공학	16,162	5,723	6,077	1,572	1,038	1,411	324	17	6,571	1,680	2,502	819	552	748	248	22
자연	7,935	3,981	2,507	498	266	452	208	23	4,192	1,265	1,750	513	249	312	94	9
의약	9,404	2,369	3,678	1,605	807	774	154	17	3,617	274	1,039	1,142	647	420	87	8
예·체능	7,626	2,712	2,373	894	551	804	259	33	1,482	37	374	393	262	321	8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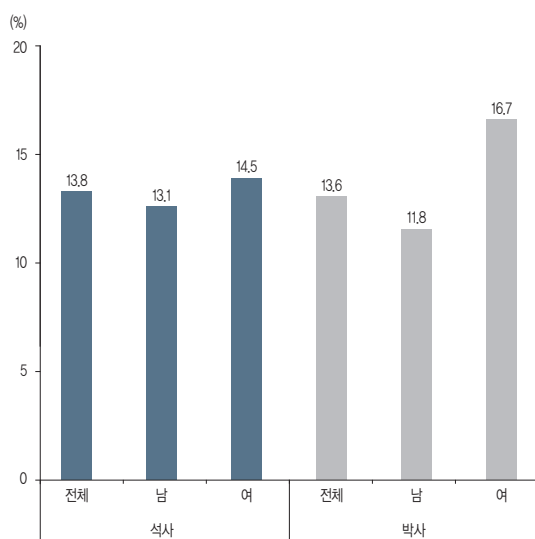
3) 학생 변동 상황⁹⁾

① 휴학

대학원의 휴학생 수를 보면, 2006학년도 전체 휴학생 수는 41,745명이었으나, 이후 2011학년도(46,336명)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다가 2014학년도에는 전년 대비 137명 감소한 45,624명으로 나타났다. 2014학년도 휴학생 중 남학생은 21,842명으로 47.9%를 차지하였으며, 여학생은 23,782명으로 52.1%를 차지하였다. 대학원 과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석사과정 휴학생은 2006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3만명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은 2006학년도 휴학생 수가 6,613명이었으나, 2014학년도에는 9,537명으로 2006학년도에 비해 약 1.4배 증가하였다(〈표 III-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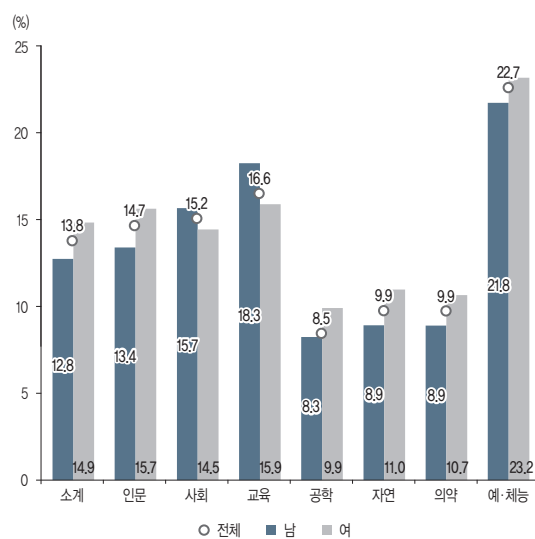
[그림 III-2-8]에서 2014학년도 대학원 과정별 성별 휴학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 학생의 휴학률은 13.8%이며, 남학생의 휴학률은 13.1%, 여학생은 14.5%로 여학생의 휴학률이 약 1.4%p 높았다. 박사과정 학생의 휴학률은 13.6%로 석사과정과 비슷하였으며, 그 중 남학생의 휴학률은 11.8%, 여학생은 16.7%로 여학생의 휴학률이 남학생보다 약 4.9%p 높았다.

[그림 III-2-9]에서 2014학년도 계열별 휴학률을 살펴보면, 예·체능계열이 22.7%로 가장 높았고, 교육계열이 16.6%, 사회계열 15.2%, 인문계열 14.7%, 자연 및 의약계열이 9.9%, 공학계열 8.5%로 나타났다. 사회계열과 교육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열에서 여학생의 휴학률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 그림 III-2-8 ■ 과정별 성별 휴학률(2014, 학년도 기준)

주: 〈표 III-2-10〉 참조.



■ 그림 III-2-9 ■ 계열별 성별 휴학률(2014, 학년도 기준)

주: 〈표 III-2-10〉 참조.

9) 대학원의 학생 변동 상황과 관련된 자료들의 기준일은 조사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3월 1일부터 차년도(조사년도) 2월 28일임.

■ Ⅲ. 대학원 ■

■ 표 Ⅲ-2-8 ■ 연도별 과정별 성별 휴학생 수(2006~2014, 학년도 기준)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6	41,745	22,242	19,503	35,132	18,147	16,985	6,445	3,982	2,463	168	113	55
2007	42,108	22,137	19,971	34,906	17,772	17,134	7,000	4,246	2,754	202	119	83
2008	43,981	22,626	21,355	36,439	18,296	18,143	7,257	4,141	3,116	285	189	96
2009	42,297	21,309	20,988	34,787	17,067	17,720	7,151	4,009	3,142	359	233	126
2010	45,071	22,088	22,983	36,898	17,624	19,274	7,658	4,129	3,529	515	335	180
2011	46,336	22,557	23,779	37,656	17,765	19,891	8,090	4,412	3,678	590	380	210
2012	44,747	23,513	21,234	36,303	18,599	17,704	7,753	4,451	3,302	691	463	228
2013	45,761	22,249	23,512	36,786	17,382	19,404	8,117	4,329	3,788	858	538	320
2014	45,624	21,842	23,782	36,087	16,760	19,327	8,574	4,472	4,102	963	610	353

주: 휴학생은 학년도 기준으로, 교육기본통계의 4월 1일 기준 휴학생과 다름

■ 표 Ⅲ-2-9 ■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휴학생 수(2014, 학년도 기준)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45,624	21,842	23,782	36,087	16,760	19,327	8,574	4,472	4,102	963	610	353
수도권	소계	27,737	12,724	15,013	21,979	9,792	12,187	4,995	2,445	2,550	763	487	276
	인문	4,447	1,919	2,528	3,361	1,435	1,926	991	433	558	95	51	44
	사회	8,933	5,141	3,792	7,368	4,227	3,141	1,470	861	609	95	53	42
	교육	4,586	1,112	3,474	4,145	1,014	3,131	419	92	327	22	6	16
	공학	2,341	1,861	480	1,647	1,283	364	524	421	103	170	157	13
	자연	1,395	610	785	831	339	492	416	184	232	148	87	61
	의약	1,982	716	1,266	1,283	400	883	493	194	299	206	122	84
	예·체능	4,053	1,365	2,688	3,344	1,094	2,250	682	260	422	27	11	16
비수도권	소계	17,887	9,118	8,769	14,108	6,968	7,140	3,579	2,027	1,552	200	123	77
	인문	2,394	939	1,455	1,847	699	1,148	519	226	293	28	14	14
	사회	4,107	2,596	1,511	3,245	2,025	1,220	839	557	282	23	14	9
	교육	4,825	1,695	3,130	4,404	1,573	2,831	411	118	293	10	4	6
	공학	2,136	1,769	367	1,459	1,206	253	609	507	102	68	56	12
	자연	1,427	801	626	933	531	402	447	249	198	47	21	26
	의약	1,644	771	873	1,109	513	596	515	246	269	20	12	8
	예·체능	1,354	547	807	1,111	421	690	239	124	115	4	2	2

■ 표 Ⅲ-2-10 ■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휴학률(2014, 학년도 기준)

(단위: %)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전체	13.8	12.8	14.9	13.8	13.1	14.5	15.5	13.7	18.1	6.5	5.7	8.6
	인문	14.7	13.4	15.7	13.5	12.2	14.7	19.8	19.0	20.4	20.2	19.6	20.9
	사회	15.2	15.7	14.5	14.7	15.3	13.8	18.0	17.5	18.9	18.2	16.5	20.9
	교육	16.6	18.3	15.9	16.5	18.7	15.7	17.1	14.8	18.0	21.6	20.4	22.2
	공학	8.5	8.3	9.9	9.0	8.7	10.1	9.8	9.2	13.0	3.8	3.9	3.0
	자연	9.9	8.9	11.0	10.4	10.3	10.4	13.1	10.9	16.4	3.9	3.2	5.3
	의약	9.9	8.9	10.7	8.8	7.7	9.7	13.5	11.9	15.0	11.0	12.0	9.9
	예·체능	22.7	21.8	23.2	22.8	22.0	23.3	22.1	20.9	23.1	23.8	24.1	23.7
수도권	소계	15.0	13.7	16.2	15.0	14.1	15.8	17.4	15.3	20.1	7.6	6.7	9.8
	인문	14.5	13.2	15.5	13.3	12.1	14.5	19.5	18.4	20.4	20.6	19.8	21.6
	사회	16.3	16.7	15.8	15.9	16.5	15.1	18.9	18.0	20.2	17.9	15.9	21.1
	교육	18.2	19.4	17.8	17.9	19.7	17.4	20.9	16.7	22.4	20.8	17.6	22.2
	공학	9.0	8.6	10.6	9.6	9.2	11.1	11.2	10.6	14.7	4.0	4.2	2.4
	자연	10.0	8.7	11.3	10.0	9.5	10.4	14.9	12.0	18.4	5.1	4.5	6.5
	의약	11.2	9.8	12.1	10.2	8.4	11.4	14.1	11.8	16.1	11.9	13.4	10.3
	예·체능	24.2	23.6	24.6	24.2	23.7	24.4	24.2	22.7	25.3	27.6	31.4	25.4
비수도권	소계	12.3	11.7	13.0	12.4	12.0	12.7	13.5	12.2	15.6	4.2	3.5	6.0
	인문	15.0	13.9	15.9	14.0	12.5	15.0	20.5	20.3	20.6	18.8	18.7	18.9
	사회	13.2	14.1	11.9	12.5	13.4	11.2	16.6	16.7	16.5	19.7	19.4	20.0
	교육	15.3	17.7	14.3	15.4	18.1	14.2	14.4	13.6	14.8	23.8	26.7	22.2
	공학	8.1	7.9	9.2	8.4	8.3	9.0	8.8	8.4	11.7	3.4	3.3	3.9
	자연	9.8	9.2	10.6	10.7	10.9	10.5	11.8	10.2	14.6	2.2	1.5	3.7
	의약	8.7	8.3	9.1	7.6	7.2	7.9	13.0	12.1	13.9	6.2	5.8	6.8
	예·체능	19.1	18.3	19.7	19.5	18.5	20.1	17.8	17.9	17.7	12.5	10.5	15.4

주: 휴학률=(휴학생 수/전년도 재적 학생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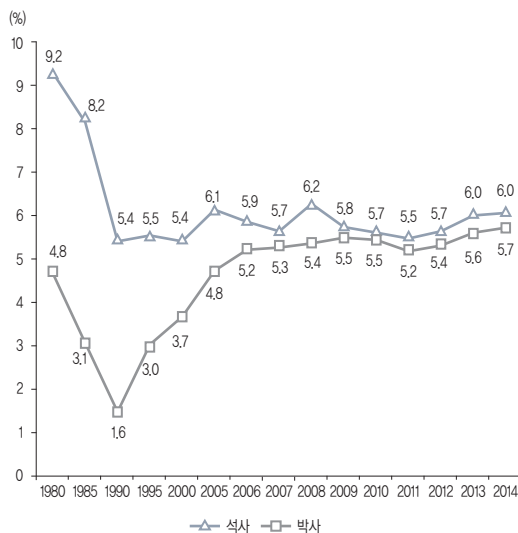
■ Ⅲ. 대학원 ■

② 중도탈락

[그림 Ⅲ-2-10]은 1980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의 대학원 과정별 중도탈락률을 나타내고 있다. 중도탈락률 추이를 살펴보면, 1980학년도 석사과정 학생의 중도탈락률은 9.2%로 거의 10명 중 한 명꼴로 대학원을 그만두었다면, 1985학년도에는 중도탈락률이 8%대로 낮아졌고, 1990년대에는 5%대로 더 낮아졌다. 2000년대에도 석사과정 학생의 중도탈락률은 2005학년도(6.1%)와 2008학년도(6.2%)를 제외하면 5%대를 유지해왔다. 2014학년도 석사과정 학생의 중도탈락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6.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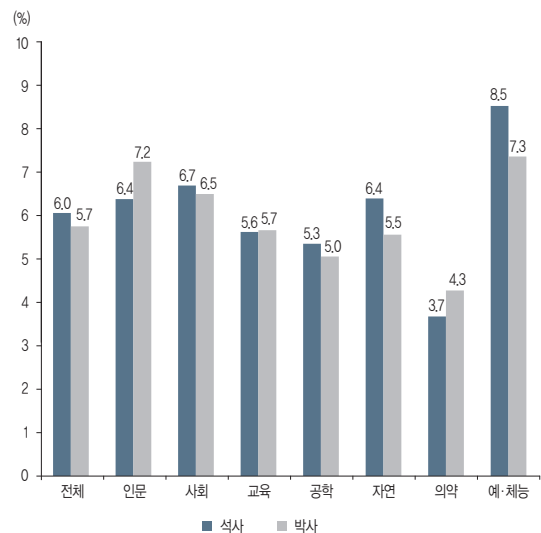
박사과정 학생(석/박사통합과정포함, 이하 동일)의 중도탈락률은 석사과정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중도탈락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1980학년도 박사과정 중도탈락률은 4.8%로 석사과정의 절반 수준이었다. 1990학년도까지 계속 감소하여 1.6%로 떨어졌으나, 그 이후로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6학년도부터 5%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4학년도 중도탈락률은 5.7%로 전년 대비 약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중도탈락률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2014학년도에는 약 0.3%p의 차이를 보였다([그림 Ⅲ-2-10] 참조).

[그림 Ⅲ-2-11]에서 대학원 과정별로 계열별 중도탈락률을 보면, 석사과정은 예·체능계열이 8.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6.7%), 인문 및 자연계열(6.4%)의 중도탈락률이 6%를 넘었다. 교육계열(5.6%)과 공학계열(5.3%)의 중도탈락률은 5%대였으며, 의약계열이 3.7%로 가장 낮았다. 박사과정 학생의 중도탈락률도 예·체능계열이 7.3%로 가장 높았으며, 인문계열(7.2%)과 사회계열(6.5%)의 중도탈락률도 6%를 넘었다. 그 외 교육계열(5.7%), 자연계열(5.5%), 공학계열(5.0%)의 중도탈락률은 5%대로 나타났다. 석사과정과 마찬가지로, 의약계열의 중도탈락률이 4.3%로 가장 낮았다.



■ 그림 Ⅲ-2-10 ■ 연도별 과정별 중도탈락률
(1980~2014, 학년도 기준)

주: <표 Ⅲ-2-11> 참조.



■ 그림 Ⅲ-2-11 ■ 계열별 과정별 중도탈락률
(2014, 학년도 기준)

주: <표 Ⅲ-2-13> 참조.

■ 표 Ⅲ-2-11 ■ 연도별 과정별 성별 중도탈락 학생 수(1980~2014, 학년도 기준)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2,943	2,535	408	2,750	2,355	395	193	180	13	-	-	-
1985	5,055	4,064	991	4,725	3,790	935	330	274	56	-	-	-
1990	4,115	3,091	1,024	3,884	2,928	956	231	163	68	-	-	-
1995	5,743	4,193	1,550	5,188	3,767	1,421	555	426	129	-	-	-
2000	11,789	7,762	4,027	10,599	6,846	3,753	1,190	916	274	-	-	-
2005	16,627	9,650	6,977	14,529	8,171	6,358	2,098	1,479	619	-	-	-
2006	16,850	9,685	7,165	14,468	8,021	6,447	2,277	1,588	689	105	76	29
2007	16,722	9,562	7,160	14,215	7,887	6,328	2,367	1,599	768	140	76	64
2008	18,240	10,467	7,773	15,548	8,725	6,823	2,530	1,657	873	162	85	77
2009	17,663	9,674	7,989	14,902	7,944	6,958	2,553	1,600	953	208	130	78
2010	17,831	9,749	8,082	14,883	7,896	6,987	2,691	1,679	1,012	257	174	83
2011	18,105	9,682	8,423	14,976	7,726	7,250	2,803	1,755	1,048	326	201	125
2012	18,585	9,913	8,672	15,190	7,822	7,368	2,963	1,827	1,136	432	264	168
2013	19,460	10,343	9,117	15,779	8,101	7,678	3,148	1,908	1,240	533	334	199
2014	19,794	10,757	9,037	15,778	8,253	7,525	3,369	2,059	1,310	647	445	202

■ 표 Ⅲ-2-12 ■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중도탈락 학생 수(2014, 학년도 기준)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9,794	10,757	9,037	15,778	8,253	7,525	3,369	2,059	1,310	647	445	202
수도권	소계	11,145	5,733	5,412	8,796	4,340	4,456	1,887	1,082	805	462	311	151
	인문	1,991	966	1,025	1,585	757	828	371	186	185	35	23	12
	사회	3,580	2,103	1,477	3,045	1,751	1,294	510	335	175	25	17	8
	교육	1,432	424	1,008	1,293	374	919	128	46	82	11	4	7
	공학	1,287	1,037	250	820	651	169	315	259	56	152	127	25
	자연	847	415	432	490	216	274	192	99	93	165	100	65
	의약	743	302	441	502	186	316	172	79	93	69	37	32
	예·체능	1,265	486	779	1,061	405	656	199	78	121	5	3	2
비수도권	소계	8,649	5,024	3,625	6,982	3,913	3,069	1,482	977	505	185	134	51
	인문	1,051	479	572	862	376	486	176	97	79	13	6	7
	사회	2,130	1,406	724	1,791	1,162	629	327	237	90	12	7	5
	교육	1,757	682	1,075	1,613	635	978	141	46	95	3	1	2
	공학	1,460	1,237	223	1,026	859	167	373	323	50	61	55	6
	자연	881	540	341	596	350	246	214	143	71	71	47	24
	의약	659	328	331	494	237	257	143	75	68	22	16	6
	예·체능	711	352	359	600	294	306	108	56	52	3	2	1

■ Ⅲ. 대학원 ■

■ 표 Ⅲ-2-13 ■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중도탈락률(2014, 학년도 기준)

(단위: %)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전체	6.0	6.3	5.7	6.0	6.5	5.7	6.1	6.3	5.8	4.4	4.2	4.9
	인문	6.5	6.8	6.3	6.4	6.5	6.3	7.2	8.2	6.3	7.9	8.7	6.8
	사회	6.6	7.1	6.0	6.7	7.1	6.1	6.5	7.0	5.6	5.7	5.9	5.3
	교육	5.6	7.2	5.0	5.6	7.3	5.0	5.5	6.5	5.1	9.5	10.2	9.1
	공학	5.2	5.2	5.6	5.3	5.3	5.5	5.9	5.8	6.7	3.4	3.4	3.7
	자연	6.0	6.1	6.0	6.4	6.7	6.1	6.1	6.1	6.3	4.7	4.4	5.4
	의약	3.8	3.8	3.9	3.7	3.6	3.7	4.2	4.2	4.3	4.4	4.7	4.1
	예·체능	8.3	9.6	7.6	8.5	10.2	7.6	7.4	7.3	7.5	6.2	9.3	3.9
수도권	소계	6.0	6.2	5.8	6.0	6.2	5.8	6.6	6.8	6.3	4.6	4.3	5.3
	인문	6.5	6.7	6.3	6.3	6.4	6.2	7.3	7.9	6.8	7.6	8.9	5.9
	사회	6.5	6.8	6.2	6.6	6.8	6.2	6.5	7.0	5.8	4.7	5.1	4.0
	교육	5.7	7.4	5.2	5.6	7.2	5.1	6.4	8.4	5.6	10.4	11.8	9.7
	공학	4.9	4.8	5.5	4.8	4.7	5.1	6.7	6.5	8.0	3.6	3.4	4.7
	자연	6.1	5.9	6.2	5.9	6.0	5.8	6.9	6.4	7.4	5.7	5.2	7.0
	의약	4.2	4.1	4.2	4.0	3.9	4.1	4.9	4.8	5.0	4.0	4.1	3.9
	예·체능	7.6	8.4	7.1	7.7	8.8	7.1	7.1	6.8	7.2	5.1	8.6	3.2
비수도권	소계	5.9	6.4	5.4	6.1	6.7	5.5	5.6	5.9	5.1	3.9	3.9	4.0
	인문	6.6	7.1	6.3	6.5	6.7	6.4	6.9	8.7	5.6	8.7	8.0	9.5
	사회	6.8	7.6	5.7	6.9	7.7	5.8	6.5	7.1	5.3	10.3	9.7	11.1
	교육	5.6	7.1	4.9	5.6	7.3	4.9	4.9	5.3	4.8	7.1	6.7	7.4
	공학	5.6	5.6	5.6	5.9	5.9	5.9	5.4	5.3	5.7	3.1	3.3	2.0
	자연	6.0	6.2	5.8	6.8	7.2	6.4	5.6	5.8	5.2	3.4	3.4	3.4
	의약	3.5	3.5	3.5	3.4	3.3	3.4	3.6	3.7	3.5	6.8	7.8	5.1
	예·체능	10.0	11.8	8.8	10.5	13.0	8.9	8.0	8.1	8.0	9.4	10.5	7.7

주: 중도탈락률=(중도탈락자 수/전년도 재적 학생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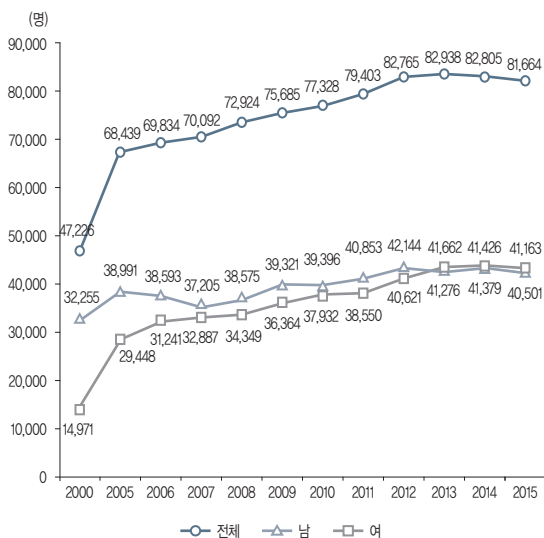
4) 졸업취업¹⁰⁾

① 졸업

대학원의 학위취득자 수¹¹⁾는 1980년 5,552명에서 2015년 94,741명으로 약 17배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 학위취득자가 1980년 4,561명에서 2015년 48,859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고, 여자 학위취득자도 1980년 991명에서 2015년 45,882명으로 46배 이상 늘어났다. 1980년 학위취득자 중 여자의 비율은 17.8%였지만, 2015년에는 48.4%를 차지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여자 학위취득자 비율이 남자와 대등해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2-14〉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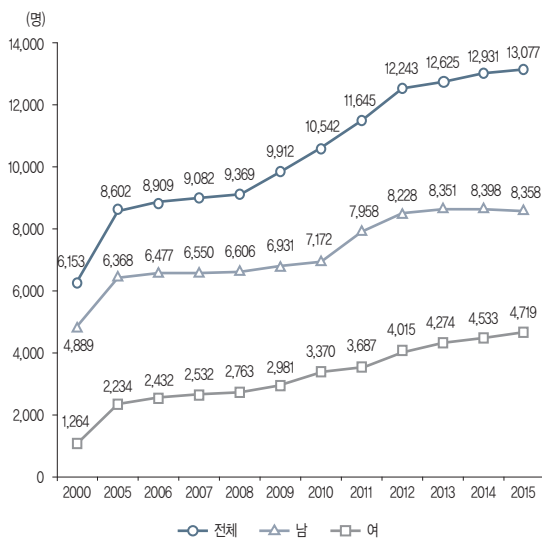
[그림 Ⅲ-2-12]에서 2000년 이후 석사학위 취득자 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2000년 47,226명에서 2015년 81,664명으로 약 1.7배 늘어났다. 성별로 보면, 2000년 석사학위 취득자 중 여자의 비율은 31.7%로 이후 점차 증가해 2015년에는 석사학위 취득자 중 여자의 비율이 절반 가량(50.4%)을 차지했다. [그림 Ⅲ-2-13]은 연도별 박사학위 취득자(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이하 동일) 수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박사학위 취득자는 6,153명이었으며, 2010년부터 만 명을 넘었다. 이후 박사학위 취득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46명 늘어난 13,077명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자의 비율은 2000년 20.5%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36.1%에 달하였다. 이처럼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 1.8배 정도 많았다.

〈표 Ⅲ-2-16〉을 보면, 2015년 일반대학원의 계열별 평균 졸업 소요기간을 알 수 있다. 대학원 졸업을 위해 석사과정은 평균 2.4년, 박사과정은 평균 5.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과정 졸업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계열은 공학계열로 2.1년이었고, 가장 긴 계열은 예·체능계열과 인문계열로 각각 3.1년, 3.0년이 소요되었다. 박사과정 중에는 의학계열이 4.3년으로 졸업을 위해 가장 짧은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인문계열이 6.4년으로 졸업을 위해 가장 긴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Ⅲ-2-12 ■ 연도별 성별 석사학위 취득자 수 (2000~2015)

주: 〈표 Ⅲ-2-14〉 참조.



■ 그림 Ⅲ-2-13 ■ 연도별 성별 박사학위 취득자 수 (2000~2015)

주: 〈표 Ⅲ-2-14〉 참조.

10) 대학원의 졸업 관련 내용은 교육기본통계조사에 근거하되, 취업 관련 내용은 취업통계조사에 근거함.

11) 학위취득자 수는 전년도 8월 졸업자 및 당해연도 2월 졸업자를 포함함.

■ Ⅲ. 대학원 ■

■ 표 Ⅲ-2-14 ■ 연도별 과정별 성별 학위취득자 수(1980~2015)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1980	5,552	4,561	991	-	-	-	-	-	-	-	-	-
1985	18,037	14,808	3,229	-	-	-	-	-	-	-	-	-
1990	22,269	17,233	5,036	-	-	-	-	-	-	-	-	-
1995	31,505	23,033	8,472	-	-	-	-	-	-	-	-	-
2000	53,379	37,144	16,235	47,226	32,255	14,971	6,153	4,889	1,264	-	-	-
2005	77,041	45,359	31,682	68,439	38,991	29,448	8,602	6,368	2,234	-	-	-
2006	78,743	45,070	33,673	69,834	38,593	31,241	8,909	6,477	2,432	-	-	-
2007	79,174	43,755	35,419	70,092	37,205	32,887	8,995	6,476	2,519	87	74	13
2008	82,293	45,181	37,112	72,924	38,575	34,349	9,344	6,593	2,751	25	13	12
2009	85,597	46,252	39,345	75,685	39,321	36,364	9,713	6,785	2,928	199	146	53
2010	87,870	46,568	41,302	77,328	39,396	37,932	10,252	6,967	3,285	290	205	85
2011	91,048	48,811	42,237	79,403	40,853	38,550	11,040	7,496	3,544	605	462	143
2012	95,008	50,372	44,636	82,765	42,144	40,621	11,436	7,635	3,801	807	593	214
2013	95,563	49,627	45,936	82,938	41,276	41,662	11,751	7,712	4,039	874	639	235
2014	95,736	49,777	45,959	82,805	41,379	41,426	11,526	7,343	4,183	1,405	1,055	350
2015	94,741	48,859	45,882	81,664	40,501	41,163	11,525	7,199	4,326	1,552	1,159	393

주: 대학원 학위취득자는 전년도 8월, 해당년도 2월 학위취득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80~2015), 교육통계연보(이하 동일).

2)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이하 동일).

■ 표 Ⅲ-2-15 ■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학위취득자 수(2015)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94,741	48,859	45,882	81,664	40,501	41,163	11,525	7,199	4,326	1,552	1,159	393
수도권	소계	54,092	26,943	27,149	46,841	22,458	24,383	6,183	3,701	2,482	1,068	784	284
	인문	8,326	3,830	4,496	7,453	3,392	4,061	840	424	416	33	14	19
	사회	16,768	9,268	7,500	15,197	8,251	6,946	1,513	983	530	58	34	24
	교육	6,989	1,443	5,546	6,585	1,333	5,252	388	104	284	16	6	10
	공학	8,591	7,095	1,496	6,892	5,596	1,296	1,259	1,094	165	440	405	35
	자연	4,455	2,055	2,400	3,329	1,393	1,936	768	421	347	358	241	117
	의약	4,783	1,914	2,869	3,750	1,389	2,361	883	446	437	150	79	71
	예·체능	4,180	1,338	2,842	3,635	1,104	2,531	532	229	303	13	5	8
비수도권	소계	40,649	21,916	18,733	34,823	18,043	16,780	5,342	3,498	1,844	484	375	109
	인문	4,025	1,695	2,330	3,626	1,519	2,107	393	175	218	6	1	5
	사회	9,252	5,332	3,920	8,305	4,684	3,621	938	640	298	9	8	1
	교육	7,779	2,126	5,653	7,357	1,979	5,378	421	146	275	1	1	0
	공학	8,218	6,949	1,269	6,585	5,517	1,068	1,425	1,251	174	208	181	27
	자연	4,428	2,593	1,835	3,272	1,822	1,450	923	605	318	233	166	67
	의약	5,310	2,551	2,759	4,287	1,993	2,294	998	541	457	25	17	8
	예·체능	1,637	670	967	1,391	529	862	244	140	104	2	1	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이하 동일).

■ 표 Ⅲ-2-16 ■ 계열별 과정별 평균 졸업소요기간(일반대학원, 2015)

(단위: 년)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체	2.4	5.2
인문	3.0	6.4
사회	2.5	4.9
교육	2.6	5.2
공학	2.1	5.5
자연	2.2	5.5
의약	2.6	4.3
예·체능	3.1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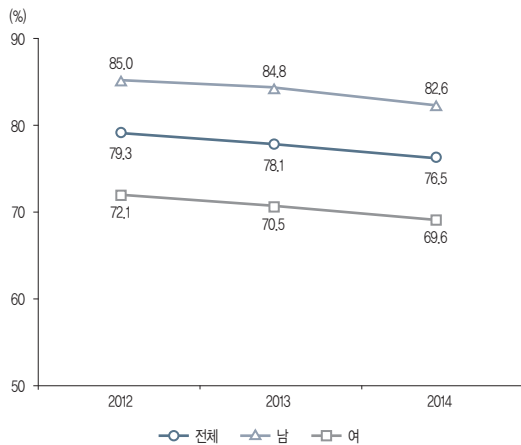
주: 평균 졸업소요기간= 졸업소요기간의 총합/재적 학생 수

■ Ⅲ. 대학원 ■

② 취업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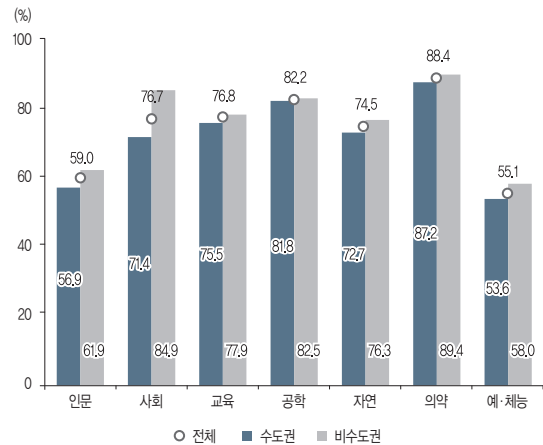
2012년부터 석사 졸업자의 취업을 살펴보면 [그림 Ⅲ-2-14]와 같다. 2012년 석사 전체 취업률은 79.3%로 조사되었으나 매년 감소하여 2014년에는 약 2.8%p 하락한 76.5%의 취업률을 보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석사 졸업자의 경우 2012년 85.0%의 취업률에서 2014년에는 82.6%로 전체 취업률과 비슷한 수준인 약 2.4%p 감소하였다. 여자의 경우에도 2012년 72.1%에서 2014년에는 69.6%로 약 2.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자보다 남자의 취업률이 2012년 이래로 항상 높았으며, 그 격차는 2012년 약 12.9%p에서 2014년 약 13.0%p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Ⅲ-2-15]에서 2014년 석사 취업률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의약계열이 88.4%로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이 82.2%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계열(76.8%), 사회계열(76.7%), 자연계열(74.5%)의 취업률은 70%를 넘었으나, 인문계열(59.0%)과 예·체능계열(55.1%)의 취업률은 60%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열에서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의 석사 취업률이 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의약계열이 각각 87.2%, 89.4%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으며, 계열별 석사 취업률 순위는 계열별 대학원 전체 취업률 순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표 Ⅲ-2-18> 참조).



■ 그림 Ⅲ-2-14 ■ 연도별 성별 석사 취업률(2012~2014)

주: <표 Ⅲ-2-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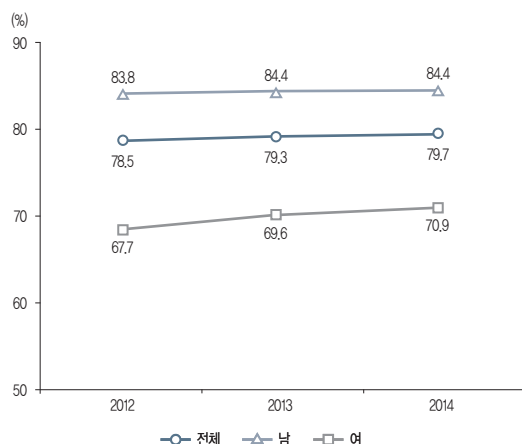
■ 그림 Ⅲ-2-15 ■ 지역별 계열별 석사 취업률(2014)

주: <표 Ⅲ-2-18> 참조.

12) 대학원 졸업자는 모두 일반대학원 졸업자로 범위를 한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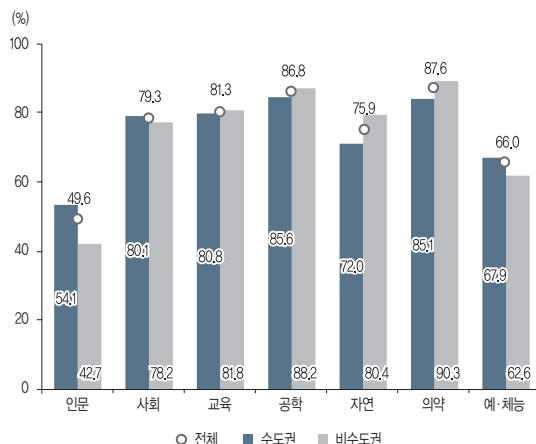
2012년부터 박사학위 취득자(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이하 동일)의 취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I-2-16]과 같다. 2012년 박사 전체 취업률은 78.5%였으며, 2013년에는 79.3%, 2014년에는 79.7%로 2012년 대비 약 1.2%p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약 2.8%p 감소한 석사 취업률과는 대비를 이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2012년 83.8%에서 2014년 84.4%로 약 0.6%p 상승하였으며, 여자는 2012년 67.7%에서 2014년 70.9%로 남자에 비해 큰 폭인 약 3.2%p 증가하였다. 한편 석사와 마찬가지로 박사 역시 남자의 취업률이 여자에 비해 계속 높았으나, 그 격차는 2012년 약 16.1%p에서 2014년 약 13.5%p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17]은 2014년 계열에 따른 지역별 박사 졸업자의 취업률을 보여준다. 먼저 계열별 전체 취업률을 살펴보면, 의약계열이 87.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공학계열 86.8%, 교육계열 81.3%, 사회계열 79.3%, 자연계열 75.9%, 예·체능계열 66.0%, 인문계열 49.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에서 비수도권 일반 대학원의 박사 취업률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취업률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계열은 인문계열로 약 11.4%p의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공학계열이 85.6%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으며, 의약계열(85.1%), 교육계열(80.8%), 사회계열(80.1%)도 80%를 넘었다. 비수도권에 서도 의약계열의 취업률이 90.3%로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88.2%), 교육계열(81.8%), 자연계열(80.4%)도 80%가 넘었다. 인문계열의 경우, 각각 54.1%, 42.7%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III-2-16 ■ 연도별 성별 박사 취업률(2012~2014)

주: <표 III-2-17> 참조.



■ 그림 III-2-17 ■ 지역별 계열별 박사 취업률(2014)

주: <표 III-2-18> 참조.

■ 표 Ⅲ-2-17 ■

연도별 과정별 성별 취업률(일반대학원, 2011~2014)

(단위: %)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1	79.2	86.1	68.7	-	-	-	-	-	-
2012	79.1	84.6	71.1	79.3	85.0	72.1	78.5	83.8	67.7
2013	78.5	84.7	70.3	78.1	84.8	70.5	79.3	84.4	69.6
2014	77.5	83.3	69.9	76.5	82.6	69.6	79.7	84.4	70.9

주: 1) 취업자 정의: 조사기준일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 교내취업자(2014년 기준): 조사 기준일 당시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학교법인 및 관련 기관(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에 1년 이상 계약한 자로서, 최저임금(2014년: 1,088,890원, 2015년: 1,166,220원) 이상의 월 급여를 받는 자.
 - 해외취업자: 조사 기준일 당시에 해외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
 - 농림어업종사자: 조사 기준일 당시에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
 - 개인창업활동종사자: 조사 기준일 당시에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개인작품 창작활동을 하는 자.
 - 1인 창(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2014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합계가 1,200만원 이상인 자.
 - 프리랜서: 2014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액이 3,266,670원 이상인 자.

2) 취업률을 구하는 방식은 연도에 따라 조금씩 변하여 왔음.

연도	취업률	취업자	취업대상자
2011~2013	$\frac{\text{취업자}}{\text{취업대상자}} \times 10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201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 취업불가능자: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를 포함함.
 - 제외인정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을 포함함.
 - 외국인유학생: 외국 국적을 가진 유학생(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 및 순수외국인을 포함함.
 - 2011년 하반기 석사 및 박사과정 구분 불가.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DB(이하 동일).

■ 표 Ⅲ-2-18 ■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취업률(일반대학원, 201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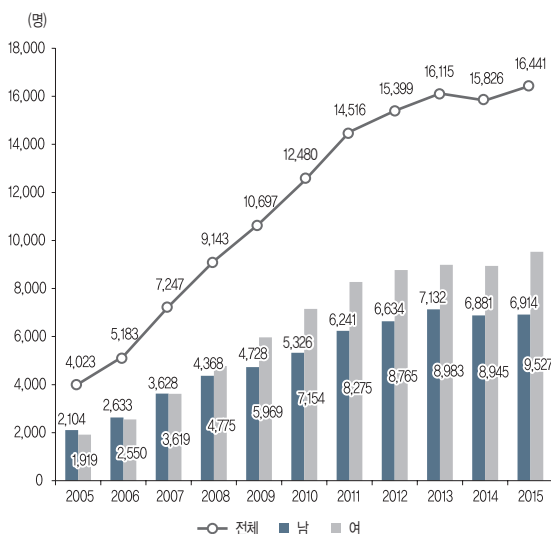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전체	77.5	83.3	69.9	76.5	82.6	69.6	79.7	84.4	70.9
	인문	56.5	63.5	53.5	59.0	64.9	56.8	49.6	60.8	42.2
	사회	77.7	83.5	70.4	76.7	83.2	70.3	79.3	83.7	70.6
	교육	78.4	85.9	76.0	76.8	81.8	75.6	81.3	91.0	76.9
	공학	83.4	84.9	75.8	82.2	83.8	75.9	86.8	87.9	75.2
	자연	74.9	78.7	70.9	74.5	78.4	71.2	75.9	79.2	70.2
	의약	88.1	92.9	83.0	88.4	94.1	82.9	87.6	91.2	83.2
수도권	예·체능	57.7	67.3	53.3	55.1	64.8	51.7	66.0	71.5	60.6
	소계	75.3	81.5	68.3	73.8	80.7	67.4	78.3	82.7	71.1
	인문	56.2	63.7	53.2	56.9	63.9	54.7	54.1	63.4	47.9
	사회	74.7	81.0	68.3	71.4	77.3	67.2	80.1	85.1	71.2
	교육	77.3	84.7	75.3	75.5	79.8	74.6	80.8	89.8	76.8
	공학	82.8	84.1	76.9	81.8	83.1	77.2	85.6	86.6	75.0
	자연	72.4	75.2	70.1	72.7	76.8	70.0	72.0	73.1	70.5
비수도권	의약	86.3	91.0	82.1	87.2	93.6	82.0	85.1	87.8	82.2
	예·체능	57.0	67.0	53.3	53.6	62.7	51.1	67.9	74.2	63.1
	소계	80.1	85.1	72.2	79.6	84.4	72.8	81.3	86.4	70.7
	인문	57.0	63.3	53.9	61.9	66.0	60.0	42.7	56.7	33.7
	사회	82.3	86.3	75.0	84.9	89.5	77.6	78.2	81.9	69.6
	교육	79.2	86.7	76.6	77.9	83.0	76.4	81.8	92.0	77.0
	공학	83.9	85.8	74.5	82.5	84.4	74.4	88.2	89.4	75.5
비수도권	자연	77.6	81.8	72.1	76.3	79.7	72.8	80.4	85.5	69.7
	의약	89.7	94.5	84.0	89.4	94.5	83.8	90.3	94.6	84.5
	예·체능	59.2	67.8	53.4	58.0	67.6	53.2	62.6	68.1	54.3

주: <표 Ⅲ-2-17>의 주 참조.

5)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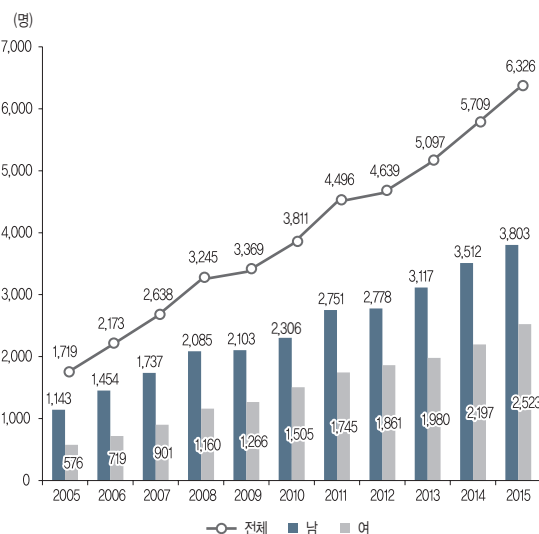
2015년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2,767명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2005년 5,742명과 비교하여 약 4.0배 증가하였다. 대학원 과정별로는 석사과정이 16,441명으로 72.2%를,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이하 동일)이 6,326명으로 27.8%를 차지했다(〈표 III-2-19〉 참조).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석사과정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그림 III-2-18]과 같다. 먼저 2005년 석사과정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4,023명으로 이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5년에는 16,441명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남학생 수가 더 많았으나, 2008년부터 여학생 수가 남학생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2015년 현재 석사과정의 외국인 여학생 수는 9,527명으로 남학생(6,914명)보다 약 1.4배 많았다. [그림 III-2-19]의 박사과정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또한 2005년 1,719명에서 2015년 현재 6,326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성별로 살펴보면, 석사과정과 달리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남학생 수가 여학생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5년 수도권 12,282명, 비수도권 10,485명으로 수도권의 외국인 유학생이 약 1.2배 더 많았다. 성별로는 수도권은 남학생 5,102명, 여학생 7,180명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 1.4배 더 많았고, 비수도권은 남학생 5,615명, 여학생 4,870명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 1.2배 더 많았다(〈표 III-2-20〉 참조). [그림 III-2-20]을 통해 석사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계열은 사회계열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인문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교육계열, 의약계열 순이었다. 비수도권 또한 사회계열의 학생이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 의약계열 순으로 많았다. [그림 III-2-21]에 따르면 박사과정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공학계열이 가장 많았고 인문계열, 자연계열, 사회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교육계열 순이었다. 비수도권에서도 공학계열의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연계열, 사회계열, 인문계열, 의약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III-2-18 ■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석사과정,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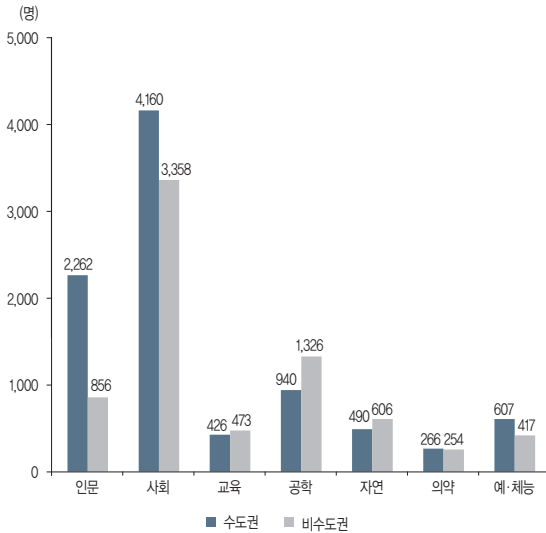
주: 〈표 III-2-19〉 참조.



■ 그림 III-2-19 ■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박사과정,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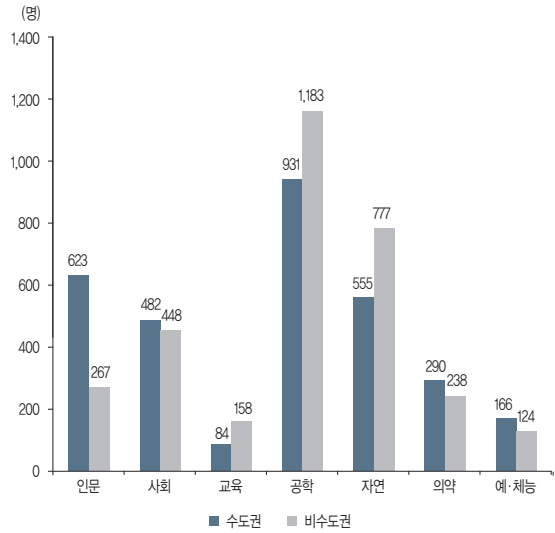
주: 〈표 III-2-19〉 참조.

■ Ⅲ 대학원 ■



■ 그림 Ⅲ-2-20 ■ 지역별 계열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석사과정, 2015)

주: <표 Ⅲ-2-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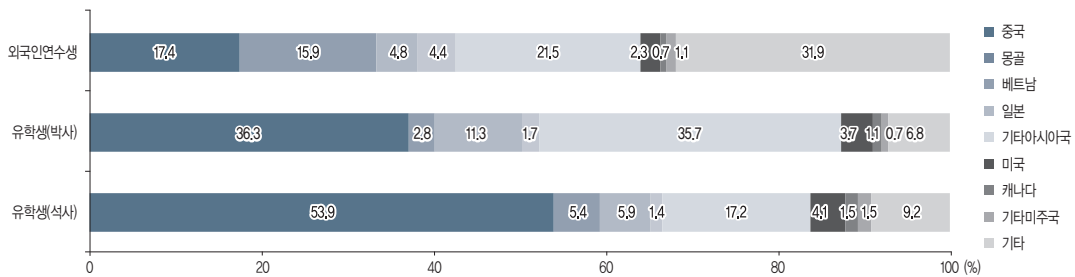


■ 그림 Ⅲ-2-21 ■ 지역별 계열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박사과정, 2015)

주: <표 Ⅲ-2-20> 참조.

국내 대학원과정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국가 유학생이 84.9%(19,324명)를 차지했으며, 미주 출신이 6.6%(1,507명)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이 49.0%(11,163명)로 전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는 남학생 8,662명, 여학생 10,662명으로 여학생이 약 1.2배 더 많았고, 미주는 남학생 814명, 여학생 693명으로 남학생이 약 1.2배 더 많았다(<표 Ⅲ-2-21> 참조).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수 추이를 보면, 2007년 1,598명에서 2015년 현재 7,170명으로 약 4.5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이들의 졸업 후 현황을 보면, 미상이 53.8%(3,857명), 본국귀국이 33.5%(2,403명), 국내취업이 6.9%(498명), 국내진학이 5.7%(412명)이었다. 즉, 국내 대학원 과정 졸업 이후 외국인 유학생 절반 이상이 미상이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2-22> 참조).

[그림 Ⅲ-2-22]에는 2015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연수생의 현황이 출신국가별로 나타나있다. 석사 및 박사과정의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연수생 모두 아시아 국가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83.8%, 87.7%, 64.0%로 가장 높았다. 아시아 국가 내에서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연수생 모두 중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그림 Ⅲ-2-22 ■ 출신국가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연수생 현황(2015)

주: <표 Ⅲ-2-21, 24> 참조.

■ 표 Ⅲ-2-19 ■ 연도별 과정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2005~2015)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5	5,742	3,247	2,495	4,023	2,104	1,919	1,719	1,143	576	-	-	-
2006	7,356	4,087	3,269	5,183	2,633	2,550	2,173	1,454	719	-	-	-
2007	9,885	5,365	4,520	7,247	3,628	3,619	2,638	1,737	901	-	-	-
2008	12,388	6,453	5,935	9,143	4,368	4,775	3,245	2,085	1,160	-	-	-
2009	14,066	6,831	7,235	10,697	4,728	5,969	2,919	1,816	1,103	450	287	163
2010	16,291	7,632	8,659	12,480	5,326	7,154	3,221	1,934	1,287	590	372	218
2011	19,012	8,992	10,020	14,516	6,241	8,275	3,767	2,274	1,493	729	477	252
2012	20,038	9,412	10,626	15,399	6,634	8,765	3,776	2,215	1,561	863	563	300
2013	21,212	10,249	10,963	16,115	7,132	8,983	4,089	2,445	1,644	1,008	672	336
2014	21,535	10,393	11,142	15,826	6,881	8,945	4,486	2,678	1,808	1,223	834	389
2015	22,767	10,717	12,050	16,441	6,914	9,527	5,039	2,930	2,109	1,287	873	414

■ 표 Ⅲ-2-20 ■ 지역별 계열별 과정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2015)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22,767	10,717	12,050	16,441	6,914	9,527	5,039	2,930	2,109	1,287	873	414
수도권	소계	12,282	5,102	7,180	9,151	3,361	5,790	2,351	1,238	1,113	780	503	277
	인문	2,885	901	1,984	2,262	686	1,576	597	204	393	26	11	15
	사회	4,642	1,699	2,943	4,160	1,469	2,691	432	211	221	50	19	31
	교육	510	111	399	426	92	334	78	17	61	6	2	4
	공학	1,871	1,387	484	940	659	281	540	418	122	391	310	81
	자연	1,045	498	547	490	169	321	368	220	148	187	109	78
	의약	556	262	294	266	112	154	183	99	84	107	51	56
	예·체능	773	244	529	607	174	433	153	69	84	13	1	12
비수도권	소계	10,485	5,615	4,870	7,290	3,553	3,737	2,688	1,692	996	507	370	137
	인문	1,123	383	740	856	301	555	250	75	175	17	7	10
	사회	3,806	1,733	2,073	3,358	1,507	1,851	430	213	217	18	13	5
	교육	631	202	429	473	141	332	153	59	94	5	2	3
	공학	2,509	2,003	506	1,326	1,009	317	915	771	144	268	223	45
	자연	1,383	795	588	606	290	316	626	403	223	151	102	49
	의약	492	268	224	254	129	125	192	116	76	46	23	23
	예·체능	541	231	310	417	176	241	122	55	67	2	0	2

■ 표 Ⅲ-2-21 ■ 출신국가별 과정별 성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2015)

(단위: 명)

		전체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22,767	10,717	12,050	16,441	6,914	9,527	5,039	2,930	2,109	1,287	873	414
아시아	소계	19,324	8,662	10,662	13,775	5,378	8,397	4,402	2,501	1,901	1,147	783	364
	중국	11,163	4,109	7,054	8,869	3,079	5,790	1,914	810	1,104	380	220	160
	몽골	1,061	268	793	883	214	669	152	44	108	26	10	16
	베트남	1,681	957	724	968	462	506	467	331	136	246	164	82
	일본	333	107	226	226	68	158	100	36	64	7	3	4
	기타	5,086	3,221	1,865	2,829	1,555	1,274	1,769	1,280	489	488	386	102
미주	소계	1,507	814	693	1,161	618	543	264	153	111	82	43	39
	미국	906	510	396	669	375	294	185	105	80	52	30	22
	캐나다	307	158	149	240	119	121	52	32	20	15	7	8
	기타	294	146	148	252	124	128	27	16	11	15	6	9
기타		1,936	1,241	695	1,505	918	587	373	276	97	58	47	11

주: 출신국가별 외국인 학위과정생에는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가 포함됨.

■ Ⅲ. 대학원 ■

■ 표 Ⅲ-2-22 ■ 연도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현황(2007~2015)

(단위: 명)

	전체	본국귀국	국내취업	국내진학	미상
2007	1,598	1,097	225	276	-
2008	1,959	1,288	290	381	-
2009	2,252	1,655	290	307	-
2010	3,533	1,720	503	395	915
2011	4,913	2,307	684	473	1,449
2012	6,197	2,865	543	471	2,318
2013	7,618	2,943	640	455	3,580
2014	8,258	3,101	673	516	3,968
2015	7,170	2,403	498	412	3,857

주: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는 대학원과정의 구분되지 않음.

■ 표 Ⅲ-2-23 ■ 연도별 성별 국내 외국인 연수생 수(2012~2015)

(단위: 명)

	전체			어학연수			기타연수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2	557	325	232	50	31	19	507	294	213
2013	1,099	576	523	397	182	215	702	394	308
2014	971	490	481	192	85	107	779	405	374
2015	1,290	645	645	447	204	243	843	441	402

주: 대학원에서의 국내 외국인 연수생 현황은 2012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함.

■ 표 Ⅲ-2-24 ■ 연도별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연수생 수(2012~201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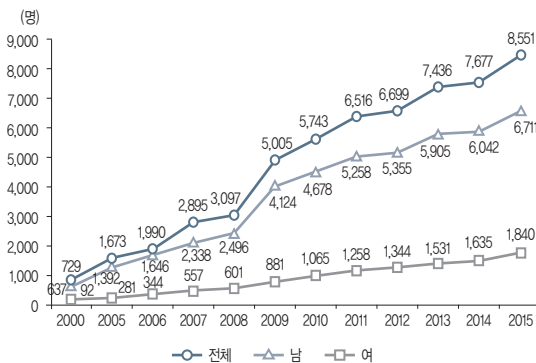
	전체	아시아					미주			기타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	기타	미국	캐나다	기타	
2012	557	157	13	31	11	130	14	1	11	189
2013	1,099	266	188	19	89	193	20	16	2	306
2014	971	252	65	10	72	181	21	8	10	352
2015	1,290	225	205	62	57	277	30	9	14	411

- 주: 1) 외국인 연수생은 어학연수와 기타연수 학생의 수를 합산한 것임.
 2) 출신국가별 외국인 연수생에는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가 포함됨.
 3) '기타'는 아시아와 미주 지역에 속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나타냄.
 4) 아시아의 '기타'는 중국, 몽골, 베트남,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지역 국가를 나타냄.
 5) 미주의 '기타'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미주 지역 국가를 나타냄.
 6) 대학원에서의 국내 외국인 연수생 현황은 2012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함.

3 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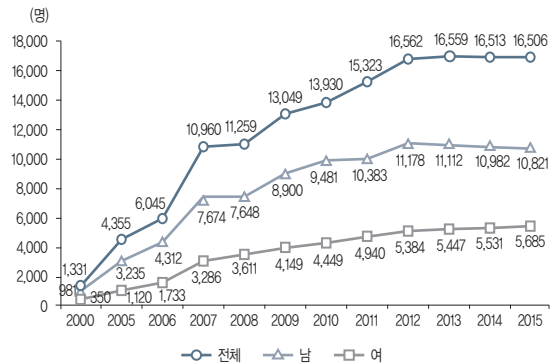
1) 교원의 구성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Ⅲ-3-1]과 같다. 2000년 729명이었던 전임교원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5년 8,551명으로 12배 가까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 남교원은 6,711명, 여교원은 1,840명이다. 이는 2000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약 10.5배, 약 20배로 늘어난 규모이다. [그림 Ⅲ-3-2]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전임교원 수도 2000년 1,331명에서 2015년 16,506명으로 12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2013년부터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다. 비전임 남녀 교원도 모두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비전임 남교원은 전체 비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전임교원은 2008년에서 2009년, 비전임교원은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 그림 Ⅲ-3-1 ■ 연도별 성별 전임교원 수(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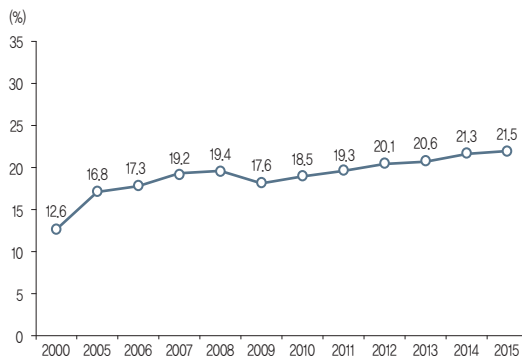
주: <표 Ⅲ-3-1> 참조.



■ 그림 Ⅲ-3-2 ■ 연도별 성별 비전임교원 수(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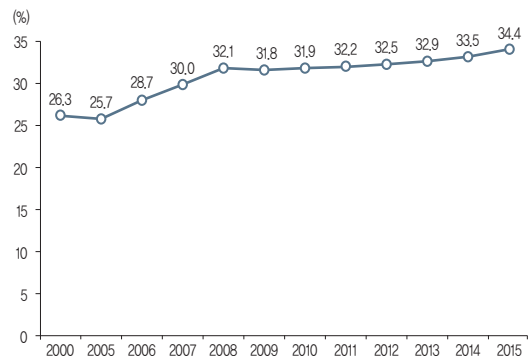
주: <표 Ⅲ-3-1> 참조.

대학원의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모두 남교원이 여교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림 Ⅲ-3-3]을 통해 먼저 전임 여교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 12.6%에서 전년 대비 약 1.8%p 낮아졌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2015년 현재 전임 여교원 비율은 21.5%로 2000년과 비교했을 때 약 8.9%p 증가하였다. 비전임교원 중 여교원의 비율은 2000년 26.3%에서 2015년 34.4%로 약 8.1%p 늘어났으며, 전임 여교원 비율보다 약 12.9%p 높았다([그림 Ⅲ-3-4] 참조).



■ 그림 Ⅲ-3-3 ■ 연도별 전임 여교원 비율(2000~2015)

주: <표 Ⅲ-3-1> 참조.



■ 그림 Ⅲ-3-4 ■ 연도별 비전임 여교원 비율(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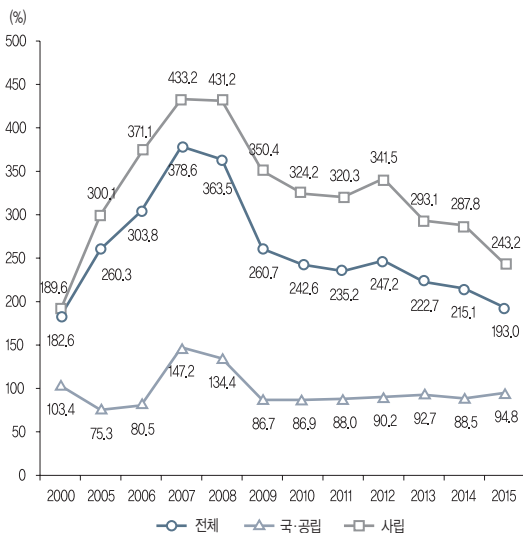
주: <표 Ⅲ-3-1> 참조.

■ Ⅲ. 대학원 ■

설립별로 교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전임교원의 경우 국·공립교원은 2,892명이었으며, 그 중 남교원이 2,427명, 여교원이 465명이었고, 사립교원은 5,659명으로 그 중 남교원이 4,284명, 여교원이 1,375명이었다. 국·공립의 여교원 비율은 16.1%, 사립은 24.3%로 나타나 사립 대학원의 여교원 비율이 국·공립 대학원보다 더 높았다. 비전임교원의 경우 국·공립교원은 2,742명으로 그 중 남교원이 2,009명, 여교원이 733명이었고, 사립교원은 13,764명으로 그 중 남교원이 8,812명, 여교원이 4,952명이었다. 전임교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전임교원도 사립 대학원(36.0%)이 국·공립 대학원(26.7%)에 비해 여교원의 비율이 높았다(〈표 Ⅲ-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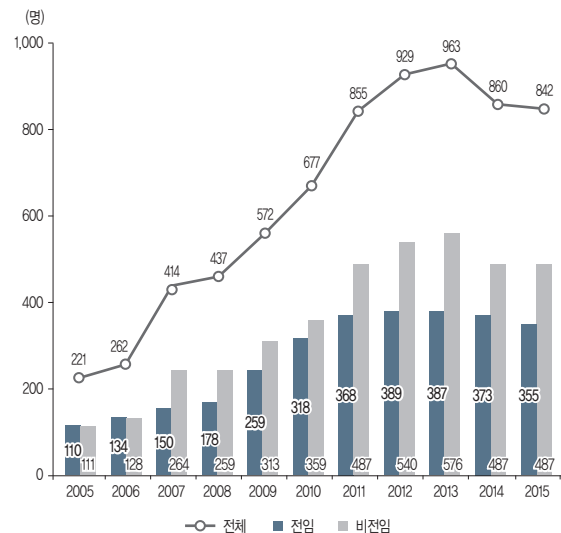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Ⅲ-3-5]와 같다. 2000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의 비율은 182.6%이었고 2007년 378.6%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으나 그 후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은 193.0%로 나타났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2000년 국·공립 대학원의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은 103.4%인데 반해, 사립은 189.6%로 국·공립보다 약 86.2%p 더 높았다. 2015년에는 국·공립과 사립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국·공립이 94.8%, 사립이 243.2%로 약 148.4%p의 큰 차이가 났다. 이를 통해서 고등교육 양적 확대에 따른 교원의 확대는 비전임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3-6]은 연도별 외국인 교원 수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 221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교원 수는 2015년에는 842명으로 약 3.8배 증가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전임교원이 110명(50.0%), 비전임교원이 111명(50.0%)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5년에는 전임교원이 355명(42.2%), 비전임교원이 487명(57.8%)으로 비전임 교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설립별로 보면, 2015년 현재 전체 외국인 교원 중 82.8%에 달하는 697명이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



■ 그림 Ⅲ-3-5 ■ 연도별 설립별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비율(2000~2015)

주: 〈표 Ⅲ-3-1〉 참조.



■ 그림 Ⅲ-3-6 ■ 연도별 외국인 교원 수(2005~2015)

주: 〈표 Ⅲ-3-2〉 참조.

■ 표 Ⅲ-3-1 ■ 연도별 설립별 성별 교원 수(2000~2015)

(단위: 명)

	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0	729	637	92	59	55	4	670	582	88
2005	1,673	1,392	281	296	259	37	1,377	1,133	244
2006	1,990	1,646	344	461	411	50	1,529	1,235	294
2007	2,895	2,338	557	553	488	65	2,342	1,850	492
2008	3,097	2,496	601	706	617	89	2,391	1,879	512
2009	5,005	4,124	881	1,702	1,494	208	3,303	2,630	673
2010	5,743	4,678	1,065	1,976	1,713	263	3,767	2,965	802
2011	6,516	5,258	1,258	2,389	2,053	336	4,127	3,205	922
2012	6,699	5,355	1,344	2,512	2,159	353	4,187	3,196	991
2013	7,436	5,905	1,531	2,613	2,227	386	4,823	3,678	1,145
2014	7,677	6,042	1,635	2,801	2,368	433	4,876	3,674	1,202
2015	8,551	6,711	1,840	2,892	2,427	465	5,659	4,284	1,375

	비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0	1,331	981	350	61	51	10	1,270	930	340
2005	4,355	3,235	1,120	223	188	35	4,132	3,047	1,085
2006	6,045	4,312	1,733	371	332	39	5,674	3,980	1,694
2007	10,960	7,674	3,286	814	631	183	10,146	7,043	3,103
2008	11,259	7,648	3,611	949	737	212	10,310	6,911	3,399
2009	13,049	8,900	4,149	1,476	1,146	330	11,573	7,754	3,819
2010	13,930	9,481	4,449	1,717	1,360	357	12,213	8,121	4,092
2011	15,323	10,383	4,940	2,103	1,628	475	13,220	8,755	4,465
2012	16,562	11,178	5,384	2,265	1,746	519	14,297	9,432	4,865
2013	16,559	11,112	5,447	2,423	1,850	573	14,136	9,262	4,874
2014	16,513	10,982	5,531	2,480	1,838	642	14,033	9,144	4,889
2015	16,506	10,821	5,685	2,742	2,009	733	13,764	8,812	4,952

주: 1) 2012년까지는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포함됨.
 2) 2013년부터는 전임강사 폐지에 따라 전임교원에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3) 비전임교원에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명예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기타 등이 포함됨.

■ 표 Ⅲ-3-2 ■ 연도별 설립별 외국인 교원 수(2005~2015)

(단위: 명)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전임	비전임	소계	전임	비전임	소계	전임	비전임
2005	221	110	111	13	1	12	208	109	99
2006	262	134	128	5	1	4	257	133	124
2007	414	150	264	18	-	18	396	150	246
2008	437	178	259	19	3	16	418	175	243
2009	572	259	313	41	10	31	531	249	282
2010	677	318	359	77	22	55	600	296	304
2011	855	368	487	154	52	102	701	316	385
2012	929	389	540	152	55	97	777	334	443
2013	963	387	576	171	55	116	792	332	460
2014	860	373	487	165	65	100	695	308	387
2015	842	355	487	145	47	98	697	308	389

■ Ⅲ. 대학원 ■

■ 표 Ⅲ-3-3 ■ 지역별 계열별 설립별 성별 교원 수(2015)

(단위: 명)

		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8,551	6,711	1,840	2,892	2,427	465	5,659	4,284	1,375
수도권	소계	4,789	3,568	1,221	604	503	101	4,185	3,065	1,120
	인문	661	488	173	48	38	10	613	450	163
	사회	1,170	969	201	211	188	23	959	781	178
	교육	294	126	168	10	8	2	284	118	166
	공학	302	280	22	54	50	4	248	230	18
	자연	413	329	84	73	49	24	340	280	60
	의약	1,715	1,213	502	191	158	33	1,524	1,055	469
	예·체능	213	144	69	15	11	4	198	133	65
	소속학과없음	21	19	2	2	1	1	19	18	1
비수도권	소계	3,762	3,143	619	2,288	1,924	364	1,474	1,219	255
	인문	128	99	29	32	23	9	96	76	20
	사회	481	411	70	308	267	41	173	144	29
	교육	156	103	53	24	19	5	132	84	48
	공학	758	709	49	324	298	26	434	411	23
	자연	487	407	80	104	92	12	383	315	68
	의약	1,710	1,387	323	1,489	1,221	268	221	166	55
	예·체능	38	23	15	6	3	3	32	20	12
	소속학과없음	4	4	0	1	1	0	3	3	0
		비전임교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6,506	10,821	5,685	2,742	2,009	733	13,764	8,812	4,952
수도권	소계	11,191	6,999	4,192	1,101	775	326	10,090	6,224	3,866
	인문	1,850	1,028	822	66	33	33	1,784	995	789
	사회	3,444	2,553	891	185	150	35	3,259	2,403	856
	교육	1,386	537	849	210	101	109	1,176	436	740
	공학	930	807	123	143	121	22	787	686	101
	자연	874	627	247	69	49	20	805	578	227
	의약	1,002	569	433	319	250	69	683	319	364
	예·체능	1,557	792	765	93	59	34	1,464	733	731
	소속학과없음	148	86	62	16	12	4	132	74	58
비수도권	소계	5,315	3,822	1,493	1,641	1,234	407	3,674	2,588	1,086
	인문	582	328	254	132	80	52	450	248	202
	사회	922	708	214	348	294	54	574	414	160
	교육	561	283	278	267	145	122	294	138	156
	공학	1,154	1,070	84	320	292	28	834	778	56
	자연	752	596	156	114	84	30	638	512	126
	의약	881	582	299	401	309	92	480	273	207
	예·체능	391	207	184	48	23	25	343	184	159
	소속학과없음	72	48	24	11	7	4	61	41	20

주: 1) 전임교원에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포함됨.

2) 비전임교원에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명예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기타 등이 포함되나, 여기서는 시간강사를 제외함. 시간강사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의 5대 계열 구분(‘대학설립운영규정’의 <별표1>에 의함)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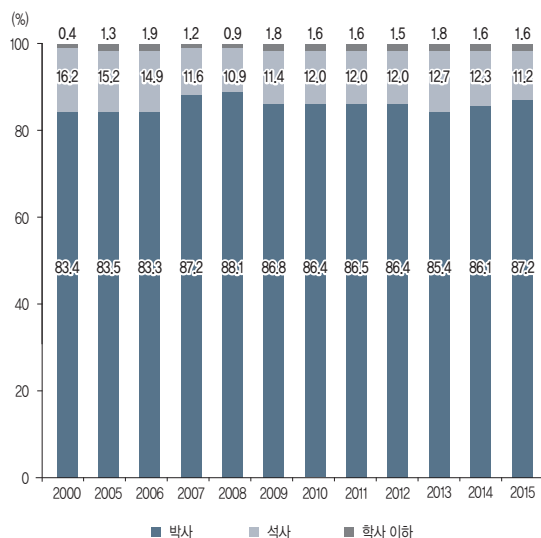
2) 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

연도별로 대학원 전임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III-3-7]과 같다. 2000년에 비하여 2015년 박사과 학사 이하 학위를 소지한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석사 학위를 소지한 교원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2000년 608명이었던 박사학위 소지 교원은 2015년에는 2000년 대비 12배가 넘는 규모인 7,459명으로 늘어났다. 전임교원 중에 박사학위 소지 비중 역시 2000년 83.4%에서 2015년에는 87.2%로 증가하였다. 반면, 석사학위 소지 교원의 경우 2000년 118명(16.2%)에서 2015년에는 955명(11.2%)으로 그 수는 증가하였지만, 전체 전임교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표 III-3-4〉 참조).

[그림 III-3-8]을 통해 2015년 계열별 전임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을 보면, 공학계열(98.0%), 자연계열(97.8%), 인문계열(91.9%)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중이 90%를 넘었다. 사회계열(88.0%), 교육계열(87.6%), 의약계열(82.0%)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의 비율이 80%를 넘었다. 예·체능계열(54.2%)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의 비중이 전체 전임교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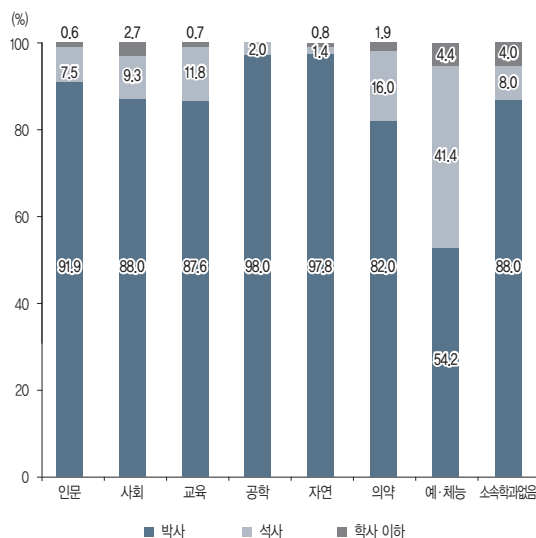
지역별 교원의 학위 소지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원의 경우 전체 4,789명의 교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87.4%(4,185명), 석사학위 소지자가 10.9%(521명), 학사학위 소지자가 1.7%(81명)로 박사학위 소지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수도권 대학원도 전체 3,762명의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87.0%(3,274명), 석사학위 소지자가 11.5%(434명), 학사학위 소지자 1.4%(54명)로 수도권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표 III-3-5〉 참조).

한편 신규임용 된 전임교원의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체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60.4%(90명)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72.2%(785명)로 약 11.8%p 증가하였다. 반면 국외 박사학위 소지자 비중은 2006년 39.6%(59명)에서 2015년 27.8%(302명)로 약 11.8%p 감소하였다(〈표 III-3-6〉 참조).



■ 그림 III-3-7 ■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00~2015)

주: 〈표 III-3-4〉 참조.



■ 그림 III-3-8 ■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소지 현황(2015)

주: 〈표 III-3-5〉 참조.

■ Ⅲ. 대학원 ■

■ 표 Ⅲ-3-4 ■ 연도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00~2015)

(단위: 명)

	전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2000	729	608	118	3	-
2005	1,673	1,397	255	21	-
2006	1,990	1,657	296	30	7
2007	2,895	2,524	337	33	1
2008	3,097	2,729	339	27	2
2009	5,005	4,345	571	89	-
2010	5,743	4,964	689	90	-
2011	6,516	5,636	779	94	7
2012	6,699	5,789	807	99	4
2013	7,436	6,353	947	128	8
2014	7,677	6,607	947	122	1
2015	8,551	7,459	955	135	2

주: '기타'에는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의 사유로 정석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교원(즉,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가 없는 교원)이 포함됨.

■ 표 Ⅲ-3-5 ■ 지역별 계열별 전임교원 학위 소지 현황(2015)

(단위: 명)

		전체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전체		8,551	7,459	955	135	2
수도권	소계	4,789	4,185	521	81	2
	인문	661	609	48	3	1
	사회	1,170	1,064	83	23	0
	교육	294	263	28	3	0
	공학	302	284	18	0	0
	자연	413	394	12	7	0
	의약	1,715	1,443	237	35	0
	예·체능	213	109	93	10	1
	소속학과없음	21	19	2	0	0
비수도권	소계	3,762	3,274	434	54	0
	인문	128	116	11	1	0
	사회	481	389	71	21	0
	교육	156	131	25	0	0
	공학	758	755	3	0	0
	자연	487	486	1	0	0
	의약	1,710	1,367	312	31	0
	예·체능	38	27	11	0	0
	소속학과없음	4	3	0	1	0

주: '기타'에는 국제전문학교 졸업 및 기타의 사유로 정석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교원(즉,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가 없는 교원)이 포함됨.

■ 표 Ⅲ-3-6 ■ 연도별 성별 신규임용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 현황(2006~2015)

(단위: 명)

	전체			국내			국외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06	149	111	38	90	62	28	59	49	10
2007	245	192	53	134	102	32	111	90	21
2008	248	196	52	130	97	33	118	99	19
2009	319	241	78	160	121	39	159	120	39
2010	341	218	123	188	108	80	153	110	43
2011	480	331	149	267	177	90	213	154	59
2012	272	187	85	160	104	56	112	83	29
2013	325	240	85	199	137	62	126	103	23
2014	403	285	118	262	181	81	141	104	37
2015	1,087	856	231	785	617	168	302	239	63

■ 표 Ⅲ-3-7 ■ 지역별 계열별 성별 신규임용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 현황(2015)

(단위: 명)

		전체			국내			국외		
		전체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전체		1,087	856	231	785	617	168	302	239	63
수도권	소계	295	177	118	199	109	90	96	68	28
	인문	73	45	28	36	18	18	37	27	10
	사회	62	41	21	37	23	14	25	18	7
	교육	28	11	17	24	10	14	4	1	3
	공학	28	23	5	20	16	4	8	7	1
	자연	26	21	5	18	14	4	8	7	1
	의약	60	26	34	55	24	31	5	2	3
	예·체능	9	2	7	5	1	4	4	1	3
	소속학과없음	9	8	1	4	3	1	5	5	0
비수도권	소계	792	679	113	586	508	78	206	171	35
	인문	8	5	3	3	1	2	5	4	1
	사회	19	15	4	8	5	3	11	10	1
	교육	19	10	9	11	7	4	8	3	5
	공학	352	333	19	261	250	11	91	83	8
	자연	298	242	56	222	183	39	76	59	17
	의약	92	73	19	80	62	18	12	11	1
	예·체능	3	0	3	1	0	1	2	0	2
	소속학과없음	1	1	0	0	0	0	1	1	0

관련조사 및 자료/참고문헌



관련조사 및 자료

■ 교육기본통계(kess.kedi.re.kr)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교육통계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통해 통계간행물, 유초중등통계, 대학통계, 취업통계, 평생통계 및 국제통계 등의 서비스를 실시함
- 2015년 상반기 고등교육통계조사 시 학생 및 교원의 원자료(개별DB)를 수합하는 ‘고도화조사’가 시범 운영됨에 따라 조사 방식이 이원화되었으며, 교육기본통계 고등교육 관련 항목은 아래와 같음

1. 고도화 조사

학교	① 학교개황
학생	① 학생기본정보 ② 입학정보 ③ 재적정보 ④ 학적변동정보 ⑤ 교류정보 ⑥ 졸업정보 ⑦ 자격정보 ⑧ 외국인 학생정보
교원	① 교원기본정보 ② 학위정보 ③ 임용정보 ④ 경력정보 ⑤ 본직정보 ⑥ 동태정보 ⑦ 강의정보
입력장표	학생 ① 교원자격증 발급 현황 ② 학생 편제정원 ③ 지원자 현황 ④ 명예박사 학위수여 상황
	교직원 ① 재직교원 수 ※ 학제별 추가 입력 사항 - 전문대학,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 교원현황(교원확보율, 교원1인당 학생수)
	교육 ① 주당개설과목 및 수강인원현황 ② 국내·외 학점교류현황

2. 집계장표 조사

학교	① 학교개황
학생	① 모집 및 입학정원 ② 재적학생 현황 ③ 등록금 미납납자 현황(미등록) ④ 학부 편제정원 및 재학생현황 ⑤ 학생 편제정원 ⑥ 대학원 계열별 입학정원 ⑦ 지원자 및 입학상황 ⑧ 전형별 정원외 재적학생현황 ⑨ 연령별 학생현황 ⑩ 졸업 및 졸업 후 상황 ⑪ 자격증 발급현황 ⑫ 교원자격증 발급현황 ⑬ 박사 명예박사 학위수여 상황 ⑭ 학위취득 및 취득 후 상황 ⑮ 학생변동 상황 ⑯ 제적생 상황 ⑰ 제적사유별 제적자수 ⑱ 외국인 유학생 현황(국가별 형태별 학과별) ⑲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현황 ※ 학제별 추가 입력 사항 -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직업별 신·편입생현황 -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직업별 학생현황
교직원	① 총장 및 전임교원 현황 ② 겸임 및 초빙교원 현황 ③ 기타교원 현황 ④ 시간강사 현황(개별 항목별) ⑤ 재직교원 수 ⑥ 교원인식년(연구년)제 운영 현황 ⑦ 전임교원의 본교 및 타대학 출신비율 현황 ⑧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⑨ 외국인 비전임교원 현황 ⑩ 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 현황 ⑪ 교원 급여 현황 ⑫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 현황 ⑬ 직원현황 ⑭ 교원현황(위탁생 포함, 미포함) ⑮ 학과별 교원현황(위탁생 포함) ⑯ 학위별 교원현황 ※ 학제별 추가 입력 사항 - 전문대학,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 교원현황(교원확보율, 교원1인당 학생수) ※ 설립별 추가 입력 사항 - 국립대학: 국립대학 배정정원 및 채용현황
시설	①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기관현황
교육	① 시간제등록과정 ② 재학생 해외연수현황 ③ 주당개설과목 및 수강인원현황 ④ 강좌(교양 교직) 개설 및 수강현황 ⑤ 교양 및 공통강좌개설 및 수강현황 ⑥ 개설교과현황 ⑦ 전공강좌 개설 및 수강현황 ⑧ 사이버강좌 개설 및 수강현황 ⑨ 국내·외 학점교류현황
산학협력	① 산학협력(제결업체, 연구개발, 수의사업, 위탁교육, 장학금) ② 산학협력(현장실습 및 취업) ③ 산학협력(인적교류) ④ 산학연관 협력실적

■ 취업통계조사(kess.kedi.re.kr)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 2004년부터 매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통계조사 실시.
- 2006년부터 일반대학원 졸업자에 대해서도 취업통계조사 실시.
- 2004~2009년까지 대학자체조사로 취업통계를 산출하였고, 2010년부터는 건강보험DB와 연계하여 취업자 조사.
- 2012년부터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를 통한 연 2회 취업통계 조사 실시.
 - 1차 조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조사(조사기준일: 6월 1일)
 - 2차 조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조사기준일: 12월 1일)
- 2015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로 일원화됨.
- 조사내용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구분	내용
학생 인적 정보	- 학교가 학사정보DB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써, 연계조사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필요함 - 학교코드, 본/분교, 단과대학교코드,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코드, 학과명, 학과소분류명, 주야간구분, 개인식별키, 학번, 성명*, 성별,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외국인유학생여부, 예비역여부, 입학당시 취업여부
취업 정보	① 취업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산업인력공단 DB 확인 해외취업자)**, 농림어업 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② 진학자: 국내전문대학/국내대학/국내대학원, 국외전문대학/국외대학/국외대학원 ③ 입대자** ④ 취업불가능자: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⑤ 기타 ⑥ 미상 ⑦ 제외인정자: 여자군인 중 임관 전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훈련생

주 1. 학생 인적 정보 중 * 표시항목은 취업통계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조사결과 제출 시 자동 삭제됨.

2. 취업 정보 중 ** 표시항목은 공공 DB(건강보험공단, 산업인력공단, 한국장학재단, 병무청)와의 연계조사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학교조사로 이루어짐.

참고문헌

교육부(1998). 교육 50년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한강희 외(2010). 한국전문대학교육 30년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서(대학).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서(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서(전문대학).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서.

만든 사람들

교육부

김관복(기획조정실장)

신익현(정책기획관)

이해숙(교육통계담당관)

이현미, 임효진, 김영옥, 서효정(교육통계담당관실)

배성근(대학정책실장)

홍민식(대학지원관)

박재성(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엄중흠, 조아라(취업창업교육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김창환(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임후남(교육통계연구센터소장)

박성호, 한효진, 안윤정, 하대진, 윤신영, 전소열(이상 연구분석서비스팀)

김본영, 김상호, 이경미, 손영호, 김연천(이상 고등교육통계팀)

이기준, 손지혜, 김은미, 엽승현, 구경아(이상 취업통계팀)

2015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고등교육·취업통계편

통계자료 SM 2015-04-02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 백순근

발행일 : 2015년 12월

주 소 : (137-791) 서울 서초구 바우뒀로 1길 35(우면동)

인 쇄 : 범신사 02-503-8737

ISSN : 2287-8521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통계담당관

Tel : 044) 203-6324

Fax : 044) 203-6629

<http://www.moe.go.kr>

대학지원실

취업창업교육지원과

Tel : 044) 203-6880

Fax : 044) 203-621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연구센터

Tel : 02) 3460-0380

Fax : 02) 3460-0120

<http://kess.kedi.re.kr>

